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청소년은 연령에 대한 기준이 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법률 중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연령의 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법률들에서 제시하는 연령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일컫는 용어도 다양하다. 만 19세 미만에 속하는 사람을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소년법』에서는 ‘소년’이라는 용어로 칭한다(이양훈, 2014).

스탠리 홀(Stanley Hall)은 이 발달단계를 청소년들의 갈등과 기분의 동요가 가득 찬 험난한 시기 또는 거친 바람과 성난 파도로 비유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는 소극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시민성에 기반한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었다. 시민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청소년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사업 등에서 배제되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했다. 이는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정책의 주요 대상이자 정책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모상현, 2019).

필연적으로 누구나 인생단계에서 한 번씩 거쳐 가는 청소년기를 경험한다. 청소년기는 의존적인 아동기에서 자립적인 성인으로의 전환기로 아동기와 성인기의 특징을 함께 지니는 이중적 성격을 나타낸다(이영호, 2007).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정은 가정이나 공동체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지위로 권리주체가 아닌 보호의 객체로서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부여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보호의 객체로서 청소년의 지위를 강조하는 것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청소년을 공동체로부터 유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의 지위뿐만 아니라 인격적 충족을 위한 학습과 참여의 주체로서의 능동적인 지위 역시 부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충청남도(忠淸南道)는 대한민국 중서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와 접하고, 서쪽은 황해(서해)가 있고, 남쪽으로 전라북도, 북쪽으로는 경기도와 접하고 있다. 8시 7군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2037년 추계기간 동안 충남 총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증가하나 증가폭은 둔화될 것이라

전망되었다.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시군에 출생아 감소와 사망자 증가 현상이 두드러져 인구 자연 감소가 확산되고, 동시에 인구의 사회적 변동(전입, 전출)이 시군별 인구 증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충청남도의 시군별 중위연령은 2017년 대비 2037년에 평균 10세 안팎 증가하여, 2037년에는 천안, 아산, 계룡은 40대, 서산, 당진, 홍성은 50대, 그 외 지역은 60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피라미드는 모든 시군에서 2017년에 중간 연령층이 많은 항아리형 구조에서 2037년 점차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이 넓어지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점차 변화할 전망이다. 청소년과 청년인구감소가 지속되어 2060년에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청소년은 단 10%로 예측되고 있다. 초고령화 심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사회기반시설 유지비용 부담 증가, 지자체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악화, 인구감소의 악순환 고착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감소가 시대적 흐름임을 볼 때,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가 실제적으로 '생산인구'로 유입되는 청소년 관련 현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인구는 인구경쟁력의 근원일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청소년 세대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을 위한 미래예측과 새로운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제도와 작업환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지역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의 역량개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와 정치의식'을 확인하여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의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② 연구내용 및 방법

1. 청소년 정치의식과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고찰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를 확인하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정치의식과 정치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을 고찰하여 청소년 정치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였다. 특히, 충남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 참여활동의 근거형성과 청소년 활동을 통해 정치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2. 청소년 정치참여 법 제도 및 참여기구 현황 분석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근거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 조항과 선거권 하향 조정 등의 사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및 지자체 학생인권 학생자치 학교자치 조례 등의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며 청소년 참여기구 및 청소년의회의 운영 등의 운영 현황과 사례를 개괄하여 향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로 제안하였다.

3.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및 현황 분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일반 현황을 파악하고 정치참여에 내·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한계점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 파악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정치의식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국가 권력에 대한 신뢰 수준, 정치적 이슈에 관련한 대화 실태,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정치적 의견, 민주시민의식,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의견, 소셜미디어 활동 실태,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 정치활동 경험,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정치효능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었다.

4.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전문가 간담회

청소년 시설 학교 혹은 단체 등에서 청소년 대상 참여사업 및 참여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참여 권리교육 등 운영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 참여확대를 제약하는 요인 및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5.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제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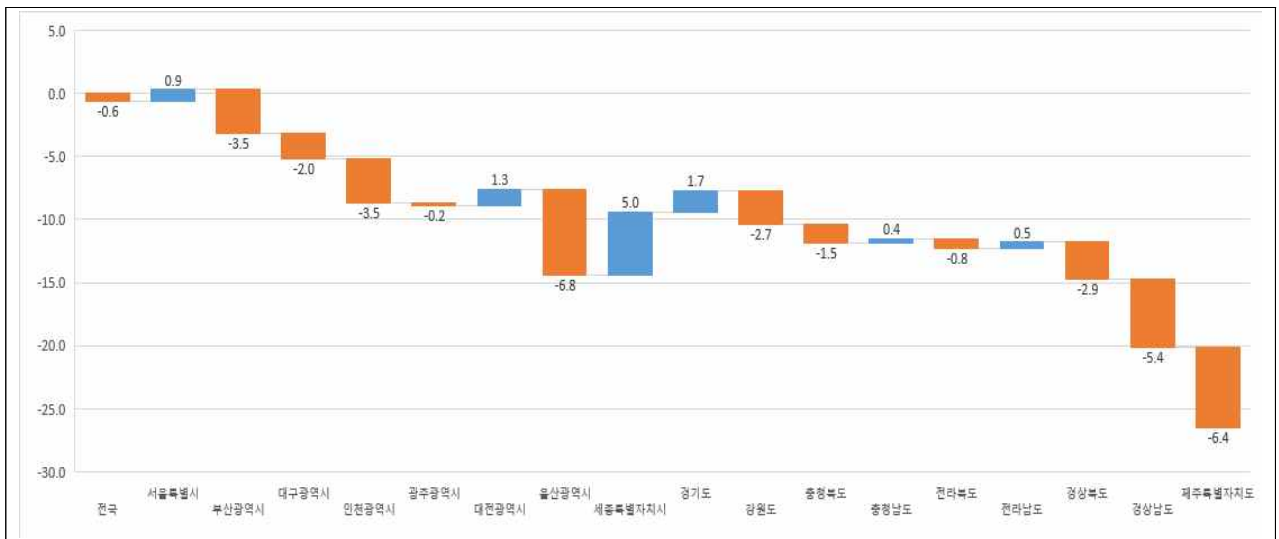
제 2 장

충청남도 청소년 환경 분석

1 충청남도 청소년관련 기본 현황

1 충청남도 경제적 특성

충청남도는 Display/반도체 산업 중심과 철강산업 중심 설비 투자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타 시도 대비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20년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로 인해 타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충청남도는 플러스 성장(0.4)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 지역별 경제성장률

타 지역대비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에 따른 많은 제조업체의 지방이전의 요충지가 되었으나 주거보다 수도권 출퇴근인구가 많아 교육, 소비 등의 인프라와 수요가 적어 소득유출이 많고 불균형이 심화된다.

<표 2-1> 충청남도 기업유치 현황

구분	계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업체수	5,086	752	749	716	745	714	770	640
수도권 이전기업	188	15	32	32	23	24	30	32

지역적으로는 북부권의 경우 수도권과 인접해있는 장점을 지닌 반면 남부권은 낙후도가 심하고 특히 계룡, 청양, 부여, 서천 지역은 낙후수준이 큰 상황이라 젊은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 중심이 되며 소멸위기 지역이 되고 있다. 북부권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크게 이루어져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구조의 문제와 교육문제 등 청소년 관련 환경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② 청소년인구 현황 및 전망

1. 총 인구 현황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충청남도는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대전, 세종 등과 인접해있으며, 인구는 약 212만명, 면적은 8,245.5km²이다. 도청 소재지는 예산군과 홍성군에 걸쳐져 있는 내포신도시며, 산하에 8시 7군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대전이 1989년도 충남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에는 천안시가 최대 도시가 되었고, 현재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대도시 특례 지위까지 얻어 충남 최대 도시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경기와 인구 교류가 가장 많으며, 대전, 세종으로의 전출이 전입보다 많다. 2022년 9월 기준 충청남도 총 인구는 2,187,299명으로, 천안시에 가장 많은 충청남도민이 거주하고 있다. 행정동별 인구를 살펴보면 천안시가 676,344명으로 충청남도 총 인구의 30.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산시 16.0%(349,589명), 서산시 8.3%(180,522명), 당진시 7.9%(173,011명), 논산시 5.4%(117,127명), 공주시 4.8%(104,855명) 등의 순이다. 총 세대수 1,015,797세대로 천안이 302,490세대로 가장 많고, 아산시 150,761세대, 서산시 82,193세대, 당진시 80,738세대 등이었다. 세대수는 2021년 9월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부여군은 약간 감소하였다. 남자 총인구는 1,124,844명, 여자 총인구는 1,062,455명으로 남자가 약 6만명 정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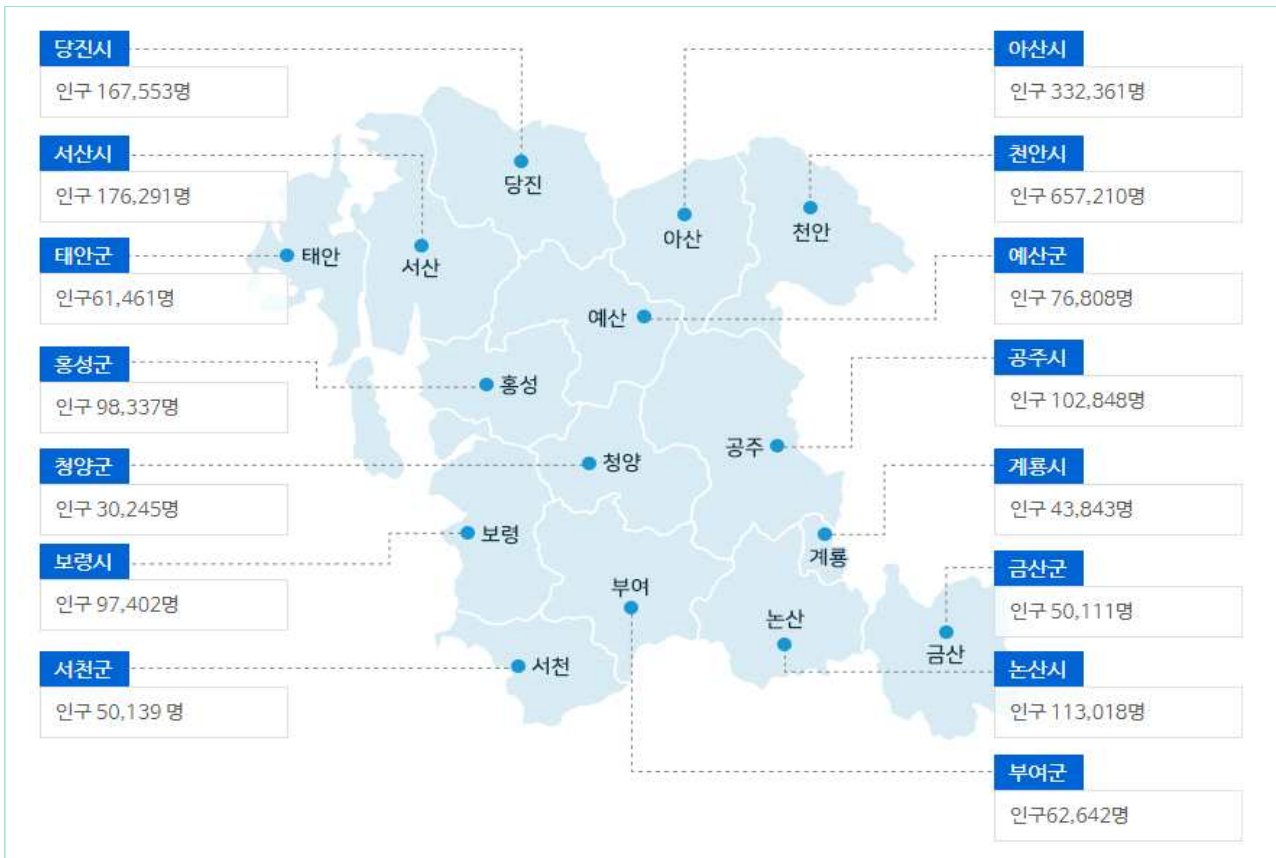
<표 2-2> 충청남도 총 인구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성별		세대	
	(외국인포함)		(외국인제외)	남	여	세대수	증감률
	명	%					
충청남도	2,187,299	100.0	2,187,299	1,124,844	1,062,455	1,015,797	1.4
천안시	676,344	30.9	676,344	347,074	329,270	302,490	1.5
동남구	263,891	12.1	263,891	134,379	129,512	118,976	1.7
서북구	412,453	18.9	412,453	212,695	199,758	183,514	1.4
공주시	104,855	4.8	104,855	52,426	52,429	52,454	1.7
보령시	100,342	4.6	100,342	51,721	48,621	49,628	0.4
아산시	349,589	16.0	349,589	183,285	166,304	150,761	3.4
서산시	180,522	8.3	180,522	94,290	86,232	82,193	1.0
논산시	117,127	5.4	117,127	58,572	58,555	58,148	0.2

계룡시	44,020	2.0	44,020	21,940	22,080	17,718	3.3
당진시	173,011	7.9	173,011	92,667	80,344	80,738	1.5
금산군	52,311	2.4	52,311	26,486	25,825	26,119	0.9
부여군	64,006	2.9	64,006	31,853	32,153	33,060	△0.6
서천군	51,451	2.4	51,451	25,790	25,661	26,660	0.1
청양군	30,917	1.4	30,917	15,784	15,133	16,506	0.5
홍성군	100,925	4.6	100,925	50,729	50,196	46,786	0.1
예산군	78,872	3.6	78,872	40,008	38,864	39,326	0.7
태안군	63,007	2.9	63,007	32,219	30,788	33,210	0.9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2022년 9월 기준)



자료: 충청남도 통계정보관 (2022년 9월 기준)

[그림 2-2] 충청남도 총 인구

2019년 대비 2020년 행정시·군구별 인구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총인구는 0.25% 증가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천안시의 동남구 0.31%, 아산시 2.53%, 서산시 0.01%, 계룡시 1.14%, 당진시 0.47%, 예산군 0.09%, 태안군 0.16%가 증가하였고, 천안시 서북구 0.22%,

공주시 0.23%, 보령시 0.91%, 논산시 0.89%, 금산군 0.21%, 부여군 1.37%, 서천군 1.08%, 청양군 0.47%, 홍성군 0.64%가 감소하였다.

충청남도 총 인구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2018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22년 9월 기준 약 5천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은 2016년부터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은 2016년까지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는 감소하였다. 천안시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 9월 기준은 약간 감소하였다. 특히, 부여군은 작년 대비 1.37%의 인구가 감소하여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2-3> 연도 및 행정구역별 총 인구 변화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9
총인구	2,194,516	2,194,384	2,185,575	2,181,835	2,187,299
천안시	666,153	672,556	676,996	676,430	676,344
동남구	267,305	268,767	265,917	263,079	263,891
서북구	398,848	403,789	411,079	413,351	412,453
공주시	109,687	108,629	106,536	105,094	104,855
보령시	104,881	104,162	103,088	101,266	100,342
아산시	330,242	333,074	333,101	340,953	349,589
서산시	178,621	179,151	179,669	180,499	180,522
논산시	124,298	122,981	120,540	118,184	117,127
계룡시	43,934	43,188	43,031	43,522	44,020
당진시	173,544	173,024	171,699	172,204	173,011
금산군	55,470	54,596	53,561	52,422	52,311
부여군	69,254	67,984	66,472	64,893	64,006
서천군	55,289	54,205	53,143	52,015	51,451
청양군	32,910	32,359	31,571	31,062	30,917
홍성군	103,367	102,872	102,458	101,579	100,925
예산군	82,288	81,488	80,112	78,805	78,872
태안군	64,578	64,115	63,598	62,907	63,007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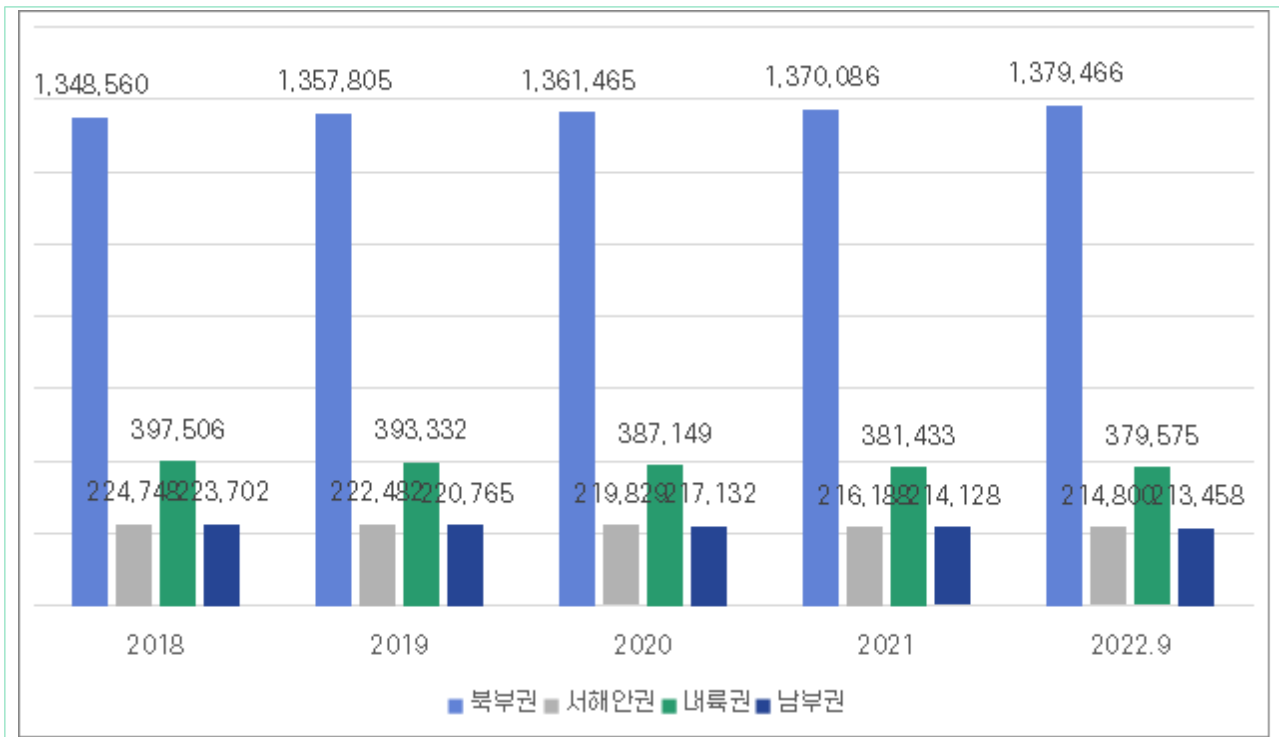
충청남도는 전체 지역을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부권역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이 포함되고, 서해안권은 보령, 태안, 서천이 포함된다. 내륙권은 공주, 부여, 청양, 홍성, 예산이 남부권은 계룡, 논산, 금산이 포함된다. 인구수는 다음 표와 같다. 2022년 9월 기준 충청남도의 권역별 인구수를 확인하면, 북부권역은 0.68%증가하였고, 서해안권(0.64%), 내륙권역(0.49%), 남부권역(0.31%)가 감소하였다.

<표 2-4> 연도 및 권역별 총 인구 변화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9	
					인구수	총인구 %
북부권	1,348,560	1,357,805	1,361,465	1,370,086	1,379,466	63.1
서해안권	224,748	222,482	219,829	216,188	214,800	9.8
내륙권	397,506	393,332	387,149	381,433	379,575	17.4
남부권	223,702	220,765	217,132	214,128	213,458	9.8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그림 2-3] 연도 및 권역별 총 인구 변화

2. 청소년인구 현황

2022년 청소년(9~24세) 인구는 8,128,541명으로 20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2년 1,420만 9천명이었던 청소년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2020년 854만 2천명, 2021년 830만 6천명, 2022년 812만 8천명이다. 통계청의 추계인구 기준으로는 2030년 654만명, 2060년 445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30년까지는 청소년인구가 약 20명씩 감소하는 것이다. 전체인구에서 청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에는 36.8%로 인구의 3/1이 넘었으나, 2021년 16.0%로 1980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2060년 1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0월 기준, 충청남도 9~24세 청소년 인구는 333,770명으로 충청남도 총 인구(2,121,000명)의 1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전체 청소년인구 대비 4.11%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 총 인구 중 청소년 인구 비중은 2018년 17.0%, 2019년 16.6%, 2020년 16.2%, 2021년 16.02%, 2022년 10월 15.73%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5> 충청남도 청소년 시군별 인구수

단위: 명

구분	청소년 (만 9세 ~ 24세)	2017년 대비 5년 증감율	2024년 청소년 인구 추정수
계	333,770	-9.43%	339,707
천안시	117,710	-6.52%	119,099
공주시	44,678	-10.23%	13,458
보령시	73,032	-4.09%	13,496
아산시	14,659	-17.56%	56,148
서산시	12,887	-20.81%	27,741
논산시	58,389	5.04%	16,007
계룡시	27,420	-9.58%	9,537
당진시	15,244	-22.14%	26,004
금산군	9,385	-10.89%	6,446
부여군	25,002	-5.59%	7,734
서천군	6,281	-17.25%	5,483
청양군	7,152	-28.08%	3,860
홍성군	5,304	-26.66%	16,889
예산군	3,493	-18.45%	8,956
태안군	14,949	-10.51%	7,512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2022년 10월 기준)



[그림 2-4] 충청남도 청소년 시군별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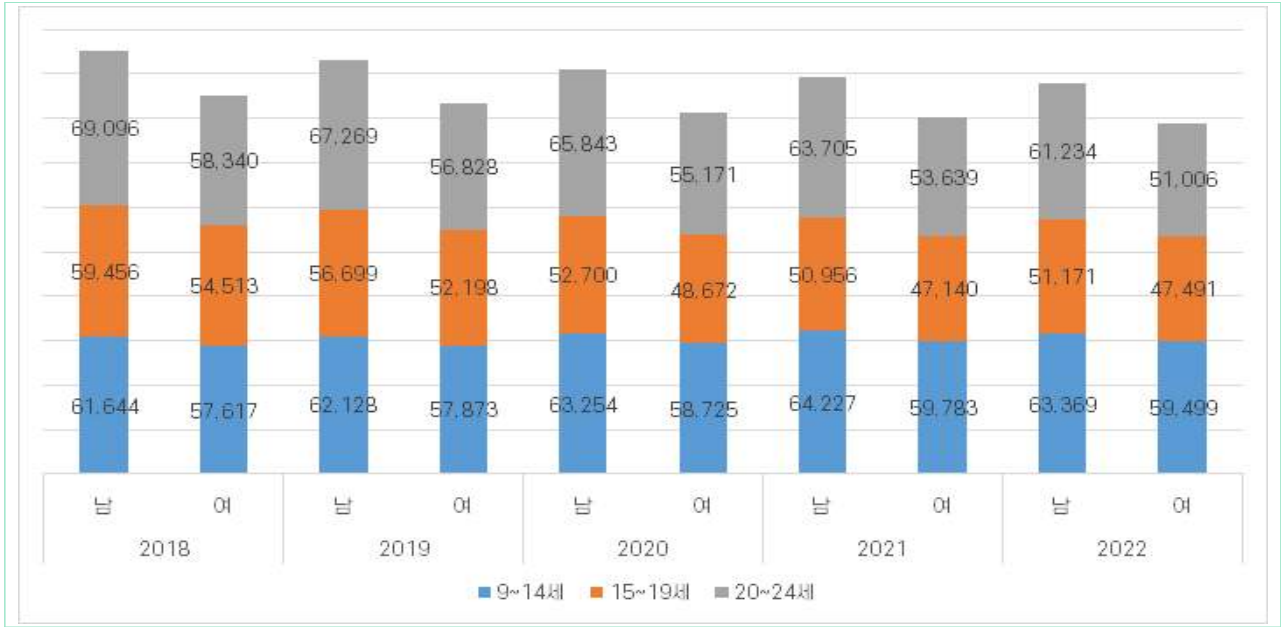
충청남도 청소년 인구의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9~14세 청소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 10월 기준, 약 6천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15~19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22년 10월 기준으로 약 600명이 증가하였고, 20~24세 청소년의 수는 2018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표 2-6> 연도별 청소년인구 변화

단위: 명

년도	구분	계	9~14세	15~19세	20~24세
2018	남	190,196	61,644	59,456	69,096
	여	170,470	57,617	54,513	58,340
	계	360,666	119,261	113,969	127,436
2019	남	186,096	62,128	56,699	67,269
	여	166,899	57,873	52,198	56,828
	계	352,995	120,001	108,897	124,097
2020	남	181,797	63,254	52,700	65,843
	여	162,568	58,725	48,672	55,171
	계	344,365	121,979	101,372	121,014
2021	남	178,888	64,227	50,956	63,705
	여	160,562	59,783	47,140	53,639
	계	339,450	124,010	98,096	117,344
2022 (10월)	남	175,774	63,369	51,171	61,234
	여	157,996	59,499	47,491	51,006
	계	333,770	122,868	98,662	112,240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그림 2-5] 연도별 청소년인구 변화

2022년 충청남도 행정동별 청소년 비율을 살펴보면 천안시의 비율이 35.3%로 가장 높다. 시군별로 구체적 수치를 비교해보면, 청소년 인구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행정동은 천안시(35.3%; 동남구 13.4%, 서북구 21.9%)이며, 다음으로 아산시(17.5%), 서산시(8.2%), 당진시(7.5%), 논산시(4.6%), 홍성군(4.5%), 공주시(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행정동별 청소년 수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0
청소년 총인구	360,666	352,995	344,365	339,450	333,770
천안시	124,272	122,805	121,200	119,719	117,710
동남구	48,597	47,828	46,546	45,468	44,678
서북구	75,675	74,977	74,654	74,251	73,032
공주시	16,891	16,145	15,034	14,534	14,659
보령시	15,481	14,813	14,204	13,534	12,887
아산시	55,603	55,854	56,108	57,339	58,389
서산시	29,816	29,101	28,404	28,181	27,420
논산시	18,519	17,626	16,714	16,019	15,244
계룡시	10,336	10,006	9,702	9,571	9,385
당진시	26,066	25,671	25,347	25,228	25,002
금산군	7,498	7,290	6,888	6,520	6,281

부여군	9,374	8,802	8,169	7,658	7,152
서천군	6,669	6,334	5,898	5,609	5,304
청양군	4,447	4,100	3,757	3,505	3,493
홍성군	16,443	16,134	15,702	15,427	14,949
예산군	10,893	10,394	9,785	9,420	9,038
태안군	8,358	7,920	7,453	7,186	6,857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2022년 충청남도 행정동을 권역에 따라 구분한 청소년 인구는 다음 표와 같다. 권역에 따른 청소년의 수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시가 포함되는 북부권에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공주, 부여, 청양, 홍성, 예산이 포함되는 내륙권, 보령, 서천, 태안군이 포함된 서해안권, 계룡, 논산, 금산이 포함된 남부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총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소년인구는 전체 권역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 연도 및 권역별 청소년인구 변화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0
북부권	235,757	233,431	231,059	230,467	228,521
서해안권	30,508	29,067	27,555	50,544	49,291
내륙권	58,048	55,575	52,447	26,329	25,048
남부권	36,353	34,922	33,304	32,110	30,910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그림 2-6] 연도 및 권역별 청소년인구 변화

3. 충청남도 초·중·고등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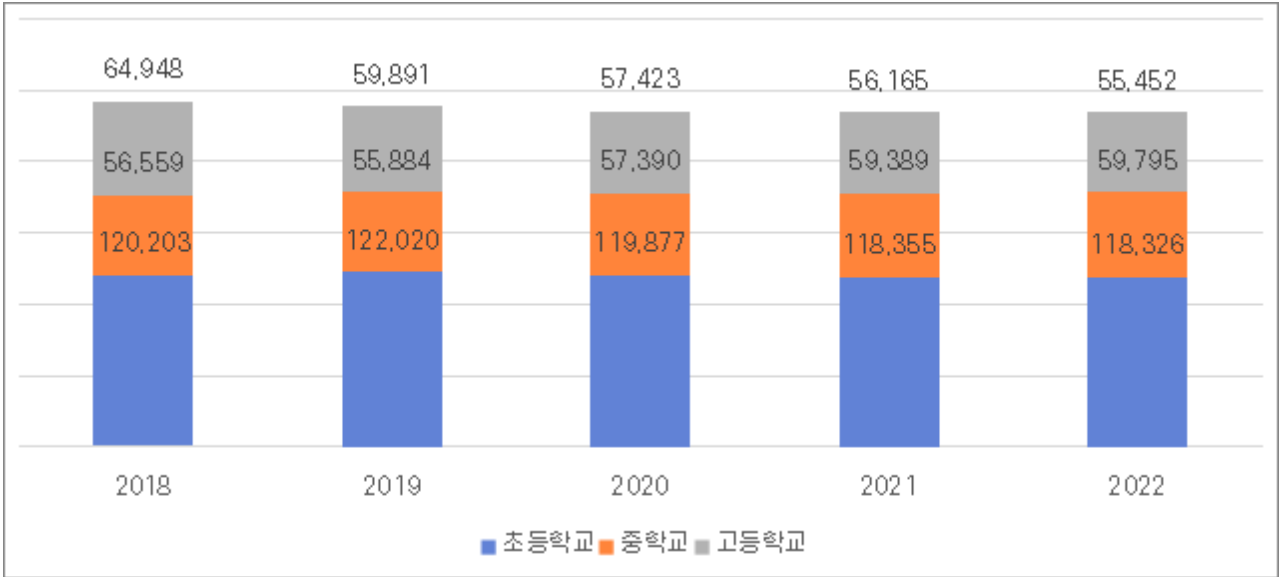
2022년 충청남도 학교급에 따른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급은 초등학교로서 58.1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25.69%, 고등학교 16.1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개년 동안 충청남도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를 학교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2018년 120,203명에서 2019년 122,020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중학생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59,389명, 2022년 59,795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고등학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2-9> 연도별 충청남도 초·중·고등학생 현황

단위: 명

년도	구분	개교	학급수	학생수
2018. 9	초등학교	420	5,931	120,203
	중학교	189	2,249	56,559
	고등학교	117	2,462	64,948
	소계	726	10,642	241,710
2019. 9	초등학교	420	6,020	122,020
	중학교	188	2,228	55,884
	고등학교	117	2,436	59,891
	소계	725	10,684	237,795
2020. 9	초등학교	422	5,978	119,877
	중학교	186	2,252	57,390
	고등학교	117	2,417	57,423
	소계	725	10,647	234,690
2021. 9	초등학교	422	6,052	118,355
	중학교	186	2,314	59,389
	고등학교	117	2,410	56,165
	소계	725	10,776	233,909
2022. 9	초등학교	421	6,254	118,326
	중학교	186	2,377	59,795
	고등학교	117	2,402	55,452
	소계	724	11,033	233,573

자료: 충남교육청 각급 학교현황 알림, 각 년도.



[그림 2-7] 연도별 충청남도 초·중·고등학생 현황

4. 학교밖 청소년 현황

충청남도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2017년 1,800명에서 2018년 1,850명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000명, 2020년에는 2,006명이었다. 2021년에는 1,407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학업중단 학생 현황

단위: 명, %

시도	총계	학업중단자		
		초등	중등	고등
전국	42,755	15,389	7,235	20,131
충청남도	1,407	411	228	768
비율	3.29	2.67	3.15	3.82

5. 다문화 청소년 현황

충청남도의 다문화가구는 2020년 기준 18,514가구로 천안이 5,002가구, 아산시가 3,338가구, 당진시가 1,705가구, 서산시 1,462가구, 논산시 1,162가구 등으로 확인되었다.

<표 2-11> 다문화 가족 현황

단위: 명

구분	가구	가구원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합계	18,514	58,086	38,288	8,877
천안시	5,002	14,853	9,149	2,434
공주시	961	3,300	2,377	435
보령시	803	2,546	1,760	359
아산시	3,338	9,680	5,846	1,737
서산시	1,462	4,566	3,037	687
논산시	1,162	3,932	2,780	577
계룡시	152	488	343	62
당진시	1,705	5,344	3,450	813
금산군	614	2,162	1,589	295
부여군	614	2,203	1,635	257
서천군	390	1,298	911	168
청양군	333	1,227	913	140
홍성군	796	2,577	1,751	373
예산군	730	2,386	1,650	363
태안군	452	1,524	1,097	177

2 충청남도 청소년관련 제도적 여건 및 인프라

1 충청남도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 현황

청소년 복지 향상 및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수요와 도민의 관심 증가로 최근 1년간 조례 4건 제·개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2> 충청남도 청소년정책 관련 자치법규 현황

법규	제/개정일	소관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2010-02-10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9-30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2017-06-07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2018-02-20	정보화담당관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건강증진식품과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2019-07-10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0-05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30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	2021-02-22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2-22	여성가족정책관

2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조직기관 및 기관현황

1. 청소년 활동 시설 현황

청소년 활동시설은 5가지 형태로 나뉘고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3> 충남 청소년 수련(활동)시설별 기능 및 특성

시설종류	시설 개념 기능 및 특성
청소년 수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은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집회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 시설, 2개소 이상의 자치활동실, 2개 이상의 특성화 수련활동장, 1개소 이상의 상담실, 1개소 이상 휴게실, 1개소 이상 지도자실이 필수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 해야 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 수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입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시설기준으로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식당, 실내집회장, 야외 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강의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지도자실, 휴게실, 비상설비, 기타시설 등을 설치 • 기본적인 기능은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며 단체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것
청소년 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시설로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 야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유스호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 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2014.7.22. 시행) • 입지조건은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 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충청남도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분야에 대해 타 시도 대비 충분한 인프라와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충청남도 청소년수련시설 총계

구 분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계	48	11	15	13	2	7
공공시설	32	11	15	3	1	2
민간시설	16	-	-	10	1	5

충청남도의 시군별 청소년활동 시설은 <표 2-15>와 같다. 청소년활동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6곳의 시설이 있는 태안군이고, 다음으로 천안시 5곳, 공주시, 서산시, 부여군, 청양군이 각 4개소를 운영 중이다.

<표 2-15> 충청남도 시군별 청소년 활동시설 현황

시 군	합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계	공공	민간	(공공)	(공공)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48	32	16	11	15	13	3	10	2	1	1	7	2	5
천안시	5	5	-	2	1	1	1	-	-	-	-	1	1	-
공주시	4	2	2	-	2	-	-	-	-	-	-	2	-	2
보령시	3	2	1	1	1	1	-	1	-	-	-	-	-	-
아산시	3	2	1	1	1	1	-	1	-	-	-	-	-	-
서산시	4	2	2	1	1	2	-	2	-	-	-	-	-	-
논산시	2	1	1	1	-	1	-	1	-	-	-	-	-	-
계룡시	-	-	-	-	-	-	-	-	-	-	-	-	-	-
당진시	3	3	-	-	3	-	-	-	-	-	-	-	-	-
금산군	3	2	1	1	1	1	-	1	-	-	-	-	-	-
부여군	4	3	1	-	1	1	1	-	-	-	-	2	1	1
서천군	3	2	1	1	1	-	-	-	-	-	-	1	-	1
청양군	4	3	1	-	1	2	1	1	1	1	-	-	-	-
홍성군	2	2	-	1	1	-	-	-	-	-	-	-	-	-
예산군	2	2	-	1	1	-	-	-	-	-	-	-	-	-
태안군	6	1	5	1	-	3	-	3	1	-	1	1	-	1

※ 운영중 42개소, 휴지 6개소

충청남도의 청소년 인구는 전국대비 4.4%인데 반하여 충남의 청소년 참여활동을 위한 기구의 구성은 전국대비 8.9%로 매우 높은 편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기관 5개,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기관 15개이다. 이는 충청남도가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인프라와 시설 및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15> 충남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기관 현황

구분		시·군	운영기관
참여위원회 운영기관	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	천안시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3	공주시	공주시청
	4	보령시	보령시청소년수련관
	5	아산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6	서산시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7	논산시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8	계룡시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9	당진시	당진청소년문화의집
	10	금산군	금산문화의집
	11	부여군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	서천군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	청양군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	홍성군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	예산군	예산군청소년수련관
	16	태안군	태안군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기관	1	천안시	천안시청소년수련관
	2	천안시	천안시성정청소년문화의집
	3	천안시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4	공주시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5	공주시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6	보령시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7	보령시	보령시청소년수련관
	8	아산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9	아산시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10	서산시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11	서산시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
	12	논산시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13	당진시	당진청소년문화의집
	14	당진시	합덕청소년문화의집
	15	금산군	금산다락원청소년수련관
16	금산군	금산군청소년미래센터	
17	금산군	마달피삼육청소년수련원	
18	부여군	부여군청소년문화의집	
19	서천군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20	서천군	서천군청소년수련관	
21	서천군	서천유스호텔	

	22	청양군	청양군청소년문화의집
	23	홍성군	홍성군청소년수련관
	24	홍성군	광천청소년문화의집
	25	예산군	예산군청소년수련관
	26	예산군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
	27	태안군	태안군청소년수련관

2. 청소년 상담 시설 현황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29조에 의거해 청소년상담실을 모태로 하여 지역사회에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업무를 위해 설립되었다. 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상담 및 연구와 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하며 전문상담원들이 성격, 진로, 학습, 인권 등 개인상담 및 부모상담 또한 비행 및 일탈의 예방, 인터넷 중독예방, 청소년동반자 운영과 같은 위기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충남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이 골고루 분포되어있고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16> 충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현황

시군명	기관명	종사자 (명)
도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
천안시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
공주시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9
보령시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8
아산시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
서산시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
논산시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8
계룡시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
당진시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
금산군	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7
부여군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서천군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7
청양군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6
홍성군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7
예산군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8
태안군	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3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청남도에서는 청소년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소년 전담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이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 충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상, 보호,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설립한 청소년 상담 및 활동 전문기관이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설립근거는 법률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조례(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7조 법인의 기능, 규칙 : 여성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이다.



[그림 2-8]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조직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는 청소년 시책 연구개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활동진흥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수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청소년들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성장 지원, 그 밖에 청소년 육성정책 이념에 부합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2-17>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주요사업내용

실별		주요사업내용
청소년 상담 복지 사업	청소년안전망 사업	지역사회안전망 운영 /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강화 / 청소년전화1388 운영 /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소 운영 /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 고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지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 시·군센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사업	청소년 트라우마 예방교육 / 청소년 트라우마 긴급개입 지원
	인터넷·스마트폰중독 대응사업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대상 치유서비스 지원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사업	또래상담 지도교사 양성 / 도, 시·군 또래상담 연합회 운영 및 지원
	연구조사사업	연구조사사업 / 상담복지정책 심포지엄
	교육 및 연수사업	도,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 청소년상담사 정책수행능력 강화사업
	기타사업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 예비지도자 교육 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빛 대물림 방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도·지원 /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역자원 개발·연계 / 꿈드림 청소년단 / 꿈드림교실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공간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 인큐베이팅 카페 / 실문경제 프로그램 / 상담사 역량강화 지원
	기타 사업	세상소통카드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박람회
청소년 활동 진흥 사업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활동 기관운영 지원 /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청소년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청소년활동 연구조사 및 활용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운영 지원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 지원 /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 / 청소년포상제 운영지원
	청소년 정보지원 관리 및 서비스	청소년 정보 구축 및 관리 /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관리 / 운영전략 수립 관리
	수탁사업	청소년활동 지도자대회 /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 청소년활동 안전 지원 / 충청남도청소년어울림마당 모니터링 / 청소년 지역홍보단 / 충청남도 청소년 리더양성 프로젝트 /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지원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 충청남도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 / 국제교류

제 3 장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조사

1 충청남도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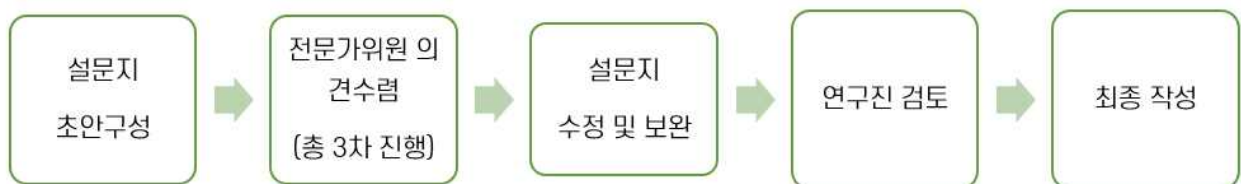
① 조사개요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조사 일시	2022년 9월 1일 ~ 2022년 10월 14일
모집단	충청남도에 거주 중인 고등학생
표집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지 2,000부를 배포함. - 충청남도를 북부권(천안·아산·당진·서산), 서해안권(보령·태안·서천), 내륙권(공주·부여·청양·홍성·예산), 남부권(계룡·논산·금산)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하였음.
조사방법	-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 설문조사 협조공문 및 안내문 발송 - 조사에 협조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면접원 방문 및 자기기입식 집단 면접
분석 대상	총 1,925부(응답률 96.3%)
조사 방법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설문조사 실시
분석 방법	SPSS 통계분석(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분석 등)

② 설문 개요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조사도구와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청소년의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 전반,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 정치적 의견, 정치참여 제약 및 활성화 요인, 정치효능감, 민주시민의식, 선거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의견 등의 문항으로 설문지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연구진의 검토 후 3차에 걸친 전문위원 자문위원회를 거쳐 수정 보완되었고, 마지막으로 연구진의 최종 논의를 통해 문항을 확정하였다.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문항수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 현안에 관심	1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	13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수준	4
정치적 이슈(문제)와 관련한 대화	4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8
정치적 의견	5
민주시민의식	4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	2
최근 한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	4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향	12
정치활동 참여경험	16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10
정치효능감	12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	4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	5
배경변인	9

1. 조사자료의 처리

각 조사 항목에 대한 경험의 정도 주관적 견해의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응답자에게 리커트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요구하였고, 본 문항의 답변은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대상자가 해당문항에 스스로 평정하여 기입하는 방식으로 요구되었다. 본 질문도구에서 역 문항은 사용되지 않았다.

본 조사 자료의 결과 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SPSS for win과 을 활용 Excel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변인 별 집단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별 구분은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으로 분류하였다.
 2. 학교급 구분은 고등재학과 학교에 다니지 않음으로 분류하였다.
 3. 경제적 수준은 리커트 5점 척도 기준으로 상[5], 중[2+3+4], 하[1]로 재코딩하였다.
 4. 학업성적은 리커트 5점 척도 기준으로 상[5], 중[2+3+4], 하[1]로 재코딩하였다.
 5. 정치적 성향은 리커트 10점 척도 기준으로 보수[0+1+2], 중도[3+4+5+6+7], 진보[8+9+10]로 재코딩하였다.
 6. 부모의 학력 수준은 [대학원 졸업], [대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모르겠음]으로 재코딩하였다.
- ※ 모든 변수 분석에서 무응답은 결측으로 처리 하였으며 부모학력은 부와 모 중 높은 학력 기준으로 코딩하였으며 부모님 안계심 답항은 사례수가 미비하여 결측으로 처리함.

2 일반적 특성

①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청소년이 842명(46.9%)이고, 여자청소년이 954명(53.1%)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많았다. 연령은 18세가 955명(5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7세가 627명(34.8%), 19세(9.4%), 16세 44명(2.4%), 20세 5명(0.3%)였다. 99.8%의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이었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은 0.2%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권역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33.1%, 내륙권역 26.7%, 서해안권역 21.2%, 남부권역 19.0%였다. 가족관계를 부모의 동거여부로 확인한 결과,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은 89.1%였고, 어머니와 동거한다는 응답은 93.5%였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졸업이 42.3%로 가장 많았고, 고등졸업이 31.6%, 잘 모른다는 응답이 18.2% 등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대학 졸업이 43.1%, 고등졸업이 32.6%, 잘 모른다는 응답이 18.6%였다. 주관적 가정형편은 중(93.2%)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상(5.4%), 하(1.4%)였다. 주관적 학업성적은 중이 89.5%로 많았고, 상(4.1%), 하(6.4%)였다. 정치적 성향에 대해 아버지는 중도가 84.2%, 진보가 11.6%, 보수가 4.2%였고, 어머니는 중도가 86.9%, 진보가 10.4%, 보수가 2.7%였다. 나의 정치적 성향은 중도가 84.8%, 진보가 11.7%, 보수가 3.6%로 나타났다.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명	%
성별		
남자	842	46.9
여자	954	53.1
연령		
16세	44	2.4
17세	627	34.8
18세	955	53.0
19세	170	9.4
20세	5	0.3
소속		
고등학교 재학 중	1,694	99.8
학교에 다니지 않음	4	0.2
거주지역(권역)		
북부	588	33.1

서해안		378	21.2
내륙		475	26.7
남부		338	19.0
가족관계(부모)			
아버지	동거	1,561	89.1
	비동거	191	10.9
어머니	동거	1,658	93.5
	비동거	115	6.5
부모의 학력			
아버지	학교 안다님	2	.1
	초등 졸업	8	.5
	중등 졸업	25	1.4
	고등 졸업	560	31.6
	대학 졸업	749	42.3
	대학원 졸업	104	5.9
	잘 모름	322	18.2
어머니	학교 안다님	1	.1
	초등 졸업	3	.2
	중등 졸업	20	1.1
	고등 졸업	578	32.6
	대학 졸업	765	43.1
	대학원 졸업	77	4.3
	잘 모름	331	18.6
주관적 가정형편 (경제적 수준)	상	96	5.4
	중	1,669	93.2
	하	25	1.4
주관적 학업성적	상	74	4.1
	중	1,602	89.5
	하	114	6.4
정치적 성향			
아버지	보수	72	4.2
	중도	1,434	84.2
	진보	198	11.6
어머니	보수	47	2.7
	중도	1,496	86.9
	진보	179	10.4
나	보수	61	3.6
	중도	1,455	84.8
	진보	200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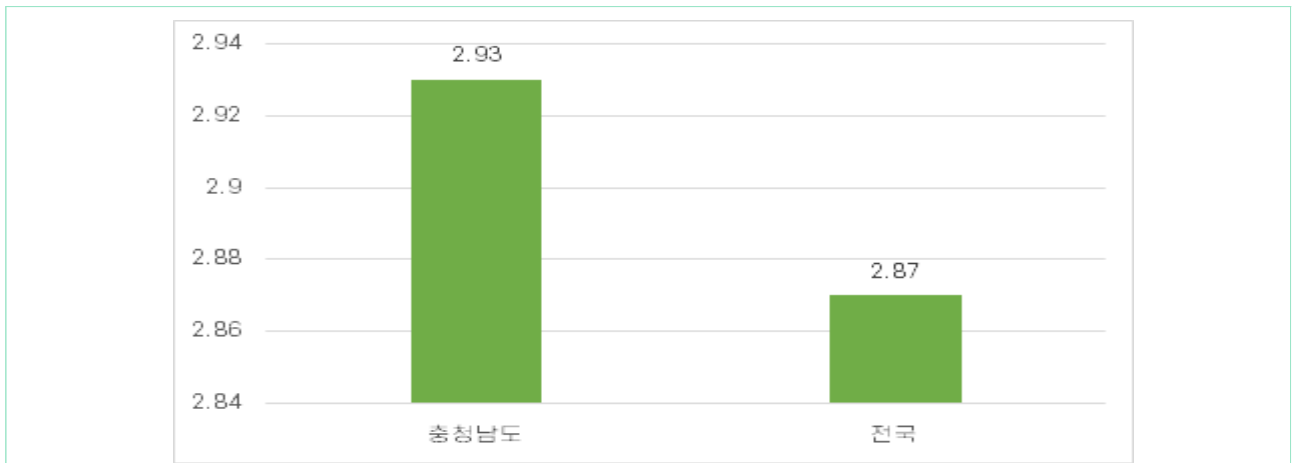
3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

① 우리사회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에게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도를 1점(관심이 전혀 없다)부터 5점(관심이 매우 많다)로 확인한 결과 2.93(SD=1.14)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 정치적 현안에 대해 중간 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이 제시한 전국단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적 현안 관심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도

내 용	지역	M	(SD)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도	충청남도	2.93	1.14
	전국	2.87	1.13



[그림 3-1]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도 (전국 VS 충청남도)

②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리사회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도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성별($T=-3.564$, $P<.001$), 주관적 학업성적($F=23.816$, $P<.001$), 정치적 성향(아버지, 어머니, 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주목할 것은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신의 정치성향이 진보성향일수록 사회 전반의 정치적 현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표 3-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도

구분		M	(SD)	T/F	Scheffe
성별					
	남자	2.82	1.207	-3.564***	
	여자	3.02	1.082		
연령					
	16세	2.58	1.180	1.857	
	17세	2.92	1.125		
	18세	2.92	1.162		
	19세	3.08	1.095		
	20세	3.20	1.304		
소속					
	고등학교 재학 중	2.92	1.144	-.131	
	학교에 다니지 않음.	3.00	1.826		
거주지역(권역)					
	북부	2.91	1.170	1.492	
	서해안	2.96	1.131		
	내륙	2.88	1.098		
	남부	3.04	1.184		
주관적 가정형편 (경제적 수준)					
	상	1.320	.138	2.220	
	중	1.124	.028		
	하	1.409	.294		
주관적 학업성적					
	상	3.36	1.251	23.816***	중<상* 하<상*** 하<중***
	중	2.95	1.122		
	하	2.27	1.129		
정치적 성향					
아버지	보수	3.26	1.125	16.630***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2.87	1.105		
	진보	3.32	1.229		
어머니	보수	3.20	1.100	13.053***	중도<진보***
	중도	2.90	1.115		
	진보	3.34	1.203		
나	보수	3.27	1.300	16.088***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2.87	1.087		
	진보	3.31	1.263		

***p<.001, **p<.01, *p<.05

4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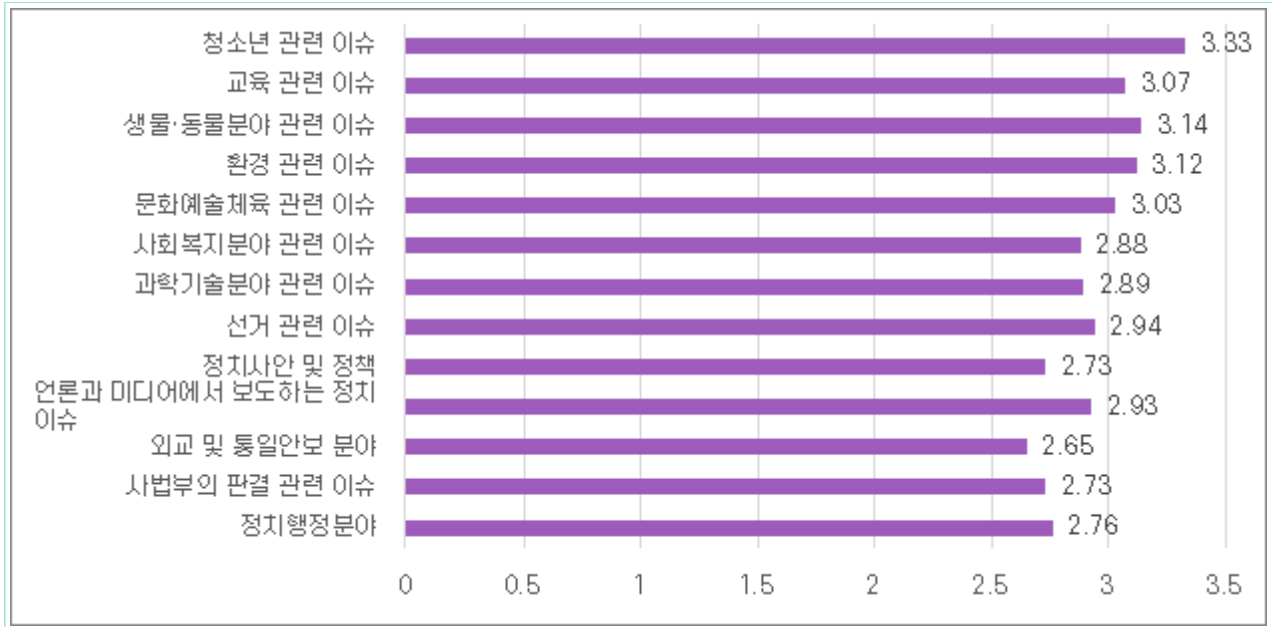
①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도

충청남도 청소년에게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유형에 따라 1점(관심이 전혀 없다)부터 5점(관심이 매우 많다)으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있다고 응답한 정치적 이슈는 “청소년관련 이슈(M=3.33, SD=1.193)”였다. 다음으로는 생물·동물분야 관련 이슈(M=3.14, SD=1.192), 환경 관련 이슈(M=3.12, SD=1.188), 교육 관련 이슈(M=3.07, SD=1.129), 문화예술체육 관련 이슈(M=3.03, SD=1.505)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외교 및 통일안보 분야(M=2.65, SD=1.156),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M=2.73, SD=1.178), 정치사안 및 정책(M=2.73, SD=1.153), 정치행정분야(대통령, 정부, 국회 정당활동 등)(M=2.76, SD=1.366) 등에는 관심도가 낮았다.

최근,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전통적 보호와 통제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의 주체, 즉 자신과 사회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스스로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여, 자치, 민주주의, 사회통합 학습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자신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4>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

내 용	M	(SD)
정치행정분야(대통령, 정부, 국회 정당활동 등)	2.76	1.366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	2.73	1.178
외교 및 통일안보 분야	2.65	1.156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정치 이슈	2.93	1.190
정치사안 및 정책	2.73	1.153
선거 관련 이슈	2.94	1.236
과학기술분야 관련 이슈	2.89	1.204
사회복지분야 관련 이슈	2.88	1.233
문화예술체육 관련 이슈	3.03	1.505
환경 관련 이슈	3.12	1.188
생물·동물분야 관련 이슈	3.14	1.192
교육 관련 이슈	3.07	1.219
청소년 관련 이슈	3.33	1.193



[그림 3-2]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유형별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도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을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과학기술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 관련 이슈($t=-10.815, p<.001$), 교육관련 이슈($t=-9.351, p<.001$), 사회복지관련 분야의 이슈($t=-8.042, p<.001$), 환경관련 이슈($t=-6.894, p<.001$),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t=-16.270, p<.001$)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5> 성별에 따른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

구분		M	(SD)	T
정치행정분야	남자	2.82	1.207	-3.564*
	여자	3.02	1.082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	남자	2.54	1.189	-6.270***
	여자	2.89	1.153	
외교 및 통일안보 분야	남자	2.57	1.227	-2.547*
	여자	2.71	1.092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정치 이슈	남자	2.76	1.229	-5.645***
	여자	3.08	1.142	
정치사안 및 정책	남자	2.65	1.223	-2.477*
	여자	2.79	1.090	

선거 관련 이슈	남자	2.78	1.288	-4.833***
	여자	3.07	1.181	
과학기술분야 관련 이슈	남자	2.90	1.268	.387
	여자	2.87	1.149	
사회복지분야 관련 이슈	남자	2.63	1.160	-8.042***
	여자	3.09	1.266	
문화예술체육 관련 이슈	남자	2.88	1.839	-3.850***
	여자	3.16	1.135	
환경 관련 이슈	남자	2.91	1.213	-6.894***
	여자	3.30	1.143	
생물·동물분야 관련 이슈	남자	2.95	1.232	-6.180***
	여자	3.30	1.137	
교육 관련 이슈	남자	2.79	1.236	-9.351***
	여자	3.32	1.161	
청소년 관련 이슈	남자	3.02	1.244	-10.815***
	여자	3.61	1.082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을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확인한 결과, 과학기술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16세<17세<18세<19세<20세 순의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과학기술분야는 16세<18세<17세<19세<20세로 약간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이슈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16세<19세, $p<.005$).

<표 3-6> 연령에 따른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

구분		M	(SD)	F	Scheffe
정치행정분야	16세	2.39	1.185	1.875	n.s
	17세	2.75	1.157		
	18세	2.74	1.528		
	19세	2.92	1.211		
	20세	3.60	.894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	16세	2.61	1.243	2.018	n.s
	17세	2.73	1.173		
	18세	2.70	1.180		
	19세	2.94	1.197		
	20세	3.40	1.140		
외교 및 통일안보 분야	16세	2.45	1.247	4.659**	n.s
	17세	2.59	1.117		
	18세	2.64	1.158		
	19세	2.98	1.238		
	20세	3.40	1.517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정치 이슈	16세	2.66	1.328	3.620*	n.s
	17세	2.86	1.192		
	18세	2.94	1.175		
	19세	3.17	1.233		
	20세	3.80	.837		
정치사안 및 정책	16세	2.39	1.166	2.883*	n.s
	17세	2.70	1.139		
	18세	2.72	1.153		
	19세	2.92	1.204		
	20세	3.60	.894		
선거 관련 이슈	16세	2.50	1.267	2.868*	n.s
	17세	2.90	1.214		
	18세	2.94	1.247		
	19세	3.13	1.249		
	20세	3.60	.894		
과학기술분야 관련 이슈	16세	2.75	1.400	.500	n.s
	17세	2.90	1.191		
	18세	2.88	1.206		
	19세	2.95	1.224		
	20세	3.40	1.140		
사회복지분야 관련 이슈	16세	2.36	1.203	3.507**	16세<19세*
	17세	2.84	1.133		
	18세	2.88	1.304		
	19세	3.11	1.204		
	20세	2.80	1.483		
문화예술체육 관련 이슈	16세	2.75	1.366	2.736*	n.s
	17세	3.00	1.163		
	18세	3.01	1.747		
	19세	3.37	1.197		
	20세	2.60	1.517		
환경 관련 이슈	16세	2.84	1.397	1.800	n.s
	17세	3.12	1.149		
	18세	3.10	1.205		
	19세	3.30	1.162		
	20세	2.80	1.483		
생물·동물분야 관련 이슈	16세	2.88	1.331	1.007	n.s
	17세	3.15	1.173		
	18세	3.13	1.210		
	19세	3.27	1.154		
	20세	3.20	1.095		

교육 관련 이슈	16세	2.67	1.322	2.693*	n.s
	17세	3.03	1.209		
	18세	3.08	1.223		
	19세	3.29	1.240		
	20세	3.00	1.225		
청소년 관련 이슈	16세	2.93	1.354	3.268*	n.s
	17세	3.28	1.179		
	18세	3.35	1.190		
	19세	3.54	1.208		
	20세	2.60	1.517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을 응답자의 소속에 따라 확인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보다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외교 및 통일안보 분야($t=-2.336$, $p<.05$),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정치 이슈($t=-2.219$,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7> 소속에 따른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

구분		M	(SD)	T
정치행정분야	고등 재학	2.75	1.386	-1.076
	학교 안다님	3.50	1.000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	고등 재학	2.73	1.182	-1.305
	학교 안다님	3.50	1.291	
외교 및 통일안보 분야	고등 재학	2.65	1.156	-2.336*
	학교 안다님	4.00	.816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정치 이슈	고등 재학	2.93	1.190	-2.219*
	학교 안다님	4.25	.500	
정치사안 및 정책	고등 재학	2.72	1.154	-1.352
	학교 안다님	3.50	1.291	
선거 관련 이슈	고등 재학	2.94	1.238	-1.315
	학교 안다님	3.75	.957	
과학기술분야 관련 이슈	고등 재학	2.88	1.203	-1.025
	학교 안다님	3.50	1.291	
사회복지분야 관련 이슈	고등 재학	2.87	1.241	-.206
	학교 안다님	3.00	1.414	
문화예술체육 관련 이슈	고등 재학	3.02	1.528	-1.280
	학교 안다님	4.00	1.414	
환경 관련 이슈	고등 재학	3.12	1.187	-1.060
	학교 안다님	3.75	1.500	

생물·동물분야 관련 이슈	고등 재학	3.15	1.186	-1.434
	학교 안다님	4.00	1.414	
교육 관련 이슈	고등 재학	3.07	1.226	-.694
	학교 안다님	3.50	1.291	
청소년 관련 이슈	고등 재학	3.33	1.197	-.698
	학교 안다님	3.75	1.258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을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내륙권역, 남부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관심도가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과학기술분야 관련 이슈(F=5.306, P<.01)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8> 거주지역에 따른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

구분		M	(SD)	F	Scheffe
정치행정분야	북부	2.74	1.720	.758	n.s
	서해안	2.78	1.166		
	내륙	2.70	1.131		
	남부	2.85	1.229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	북부	2.67	1.179	1.269	n.s
	서해안	2.82	1.170		
	내륙	2.75	1.137		
	남부	2.77	1.255		
외교 및 통일안보 분야	북부	2.62	1.167	1.039	n.s
	서해안	2.70	1.120		
	내륙	2.63	1.101		
	남부	2.74	1.263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정치 이슈	북부	2.91	1.180	.520	n.s
	서해안	2.95	1.174		
	내륙	2.92	1.171		
	남부	3.01	1.259		
정치사안 및 정책	북부	2.72	1.190	.308	n.s
	서해안	2.78	1.134		
	내륙	2.72	1.083		
	남부	2.72	1.219		
선거 관련 이슈	북부	2.89	1.252	1.327	n.s
	서해안	2.97	1.162		
	내륙	2.92	1.205		
	남부	3.05	1.327		
과학기술분야 관련 이슈	북부	2.82	1.196	5.306**	n.s
	서해안	3.11	1.193		
	내륙	2.83	1.170		
	남부	2.88	1.268		
사회복지분야 관련 이슈	북부	2.81	1.172	1.377	n.s
	서해안	2.97	1.493		
	내륙	2.91	1.130		
	남부	2.88	1.193		

문화예술체육 관련 이슈	북부	2.95	2.028	1.178	n.s
	서해안	3.10	1.182		
	내륙	3.03	1.153		
	남부	3.12	1.234		
환경 관련 이슈	북부	3.04	1.192	1.602	n.s
	서해안	3.20	1.154		
	내륙	3.15	1.158		
	남부	3.14	1.259		
생물·동물분야 관련 이슈	북부	3.06	1.198	2.673	n.s
	서해안	3.28	1.158		
	내륙	3.15	1.168		
	남부	3.17	1.240		
교육 관련 이슈	북부	3.01	1.248	1.519	n.s
	서해안	3.17	1.186		
	내륙	3.08	1.193		
	남부	3.11	1.267		
청소년 관련 이슈	북부	3.26	1.195	1.574	n.s
	서해안	3.40	1.150		
	내륙	3.37	1.189		
	남부	3.38	1.240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을 응답자의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라 확인한 결과,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F=3.473$, $P<.05$),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정치 이슈($F=4.877$, $P<.01$), 정치사안 및 정책($F=3.093$, $P<.05$), 선거 관련 이슈($F=6.216$, $P<.01$), 과학기술분야 관련 이슈($F=5.676$, $P<.01$), 사회복지분야 관련 이슈($F=3.926$, $P<.05$), 환경 관련 이슈($F=4.163$, $P<.05$), 생물·동물분야 관련 이슈($F=4.453$, $P<.05$), 교육 관련 이슈($F=8.373$, $P<.001$), 청소년 관련 이슈($F=11.23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9>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

구분		M	(SD)	F	Scheffe
정치행정분야	상	2.82	1.313	2.493	n.s
	중	2.76	1.370		
	하	2.16	1.491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	상	2.71	1.312	3.473*	n.s
	중	2.74	1.167		
	하	2.12	1.333		
외교 및 통일안보 분야	상	2.67	1.340	2.709	n.s
	중	2.66	1.139		
	하	2.12	1.453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정치 이슈	상	2.82	1.255	4.877**	중<하*
	중	2.95	1.181		
	하	2.24	1.393		

정치사안 및 정책	상	2.74	1.209	3.093*	중<하*
	중	2.74	1.143		
	하	2.16	1.491		
선거 관련 이슈	상	2.80	1.260	6.216**	상<하* 중<하**
	중	2.95	1.227		
	하	2.12	1.301		
과학기술분야 관련 이슈	상	2.80	1.342	5.676**	중<하*
	중	2.91	1.188		
	하	2.12	1.424		
사회복지분야 관련 이슈	상	2.85	2.365	3.926*	n.s
	중	2.89	1.136		
	하	2.20	1.258		
문화예술체육 관련 이슈	상	2.93	1.347	2.262	n.s
	중	3.05	1.519		
	하	2.44	1.387		
환경 관련 이슈	상	2.97	1.364	4.163*	중<하*
	중	3.14	1.169		
	하	2.52	1.531		
생물·동물분야 관련 이슈	상	3.04	1.391	4.453*	n.s
	중	3.16	1.169		
	하	2.48	1.558		
교육 관련 이슈	상	2.91	1.430	8.373***	상<하* 중<하**
	중	3.10	1.201		
	하	2.16	1.313		
청소년 관련 이슈	상	3.13	1.370	11.238***	상<하* 중<하***
	중	3.37	1.170		
	하	2.32	1.406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을 응답자의 주관적 성적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정치행정분야(F=33.860, P<.001),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F=25.422, P<.001), 외교 및 통일안보 분야(F=25.904, P<.001),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정치 이슈(F=25.568, P<.001), 정치사안 및 정책(F=23.329, P<.001), 선거 관련 이슈(F=27.066, P<.001), 과학기술분야 관련 이슈(F=22.542, P<.001), 사회복지분야 관련 이슈(F=11.911 P<.001), 문화예술체육 관련 이슈(F=4.369, P<.001), 환경 관련 이슈(F=12.856, P<.05), 생물·동물분야 관련 이슈(F=16.609, P<.001), 교육 관련 이슈(F=29.308, P<.001), 청소년 관련 이슈(F=17.842,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10> 주관적 성적에 따른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

구분		M	(SD)	F	Scheffe
정치행정분야	상	3.70	3.670	33.860***	하<중<상***
	중	2.76	1.147		
	하	2.05	1.120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	상	3.16	1.304	25.422***	중<상* 하<상*** 하<중***
	중	2.76	1.159		
	하	2.04	1.147		
외교 및 통일안보 분야	상	3.11	1.340	23.904***	중<상** 하<상*** 하<중***
	중	2.68	1.135		
	하	2.02	1.089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정치 이슈	상	3.39	1.259	25.568***	중<상** 하<상*** 하<중***
	중	2.96	1.168		
	하	2.25	1.216		
정치사안 및 정책	상	3.25	1.253	23.329***	중<상* 하<상*** 하<중***
	중	2.75	1.136		
	하	2.13	1.117		
선거 관련 이슈	상	3.35	1.265	27.066***	중<상* 하<상*** 하<중***
	중	2.97	1.219		
	하	2.18	1.146		
과학기술분야 관련 이슈	상	3.32	1.183	22.542***	하<상*** 하<중***
	중	2.92	1.190		
	하	2.24	1.200		
사회복지분야 관련 이슈	상	3.11	1.200	11.911***	하<중*
	중	2.91	1.235		
	하	2.36	1.168		
문화예술체육 관련 이슈	상	3.18	1.198	4.369***	하<상** 하<중***
	중	3.06	1.530		
	하	2.64	1.358		
환경 관련 이슈	상	3.22	1.242	12.856*	하<상*** 하<중***
	중	3.15	1.169		
	하	2.58	1.316		
생물·동물분야 관련 이슈	상	3.41	1.204	16.609***	하<상*** 하<중***
	중	3.18	1.170		
	하	2.55	1.344		
교육 관련 이슈	상	3.41	1.281	29.308***	하<상*** 하<중***
	중	3.12	1.202		
	하	2.27	1.165		
청소년 관련 이슈	상	3.54	1.218	17.842***	하<상*** 하<중***
	중	3.37	1.169		
	하	2.71	1.329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을 응답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확인한 결과, 먼저, 아버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정치행정분야(F=7.436, P<.01),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F=5.677, P<.01), 외교 및 통일안보 분야(F=6.267, P<.01),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정치 이슈(F=10.715, P<.001), 정치사안 및 정책, 선거 관련 이슈(F=6.997, P<.001), 사회복지분야 관련 이슈(F=3.141, P<.05), 환경 관련 이슈(F=4.895, P<.01), 교육 관련 이슈(F=6.294, P<.01), 청소년 관련 이슈(F=9.480, P<.001)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정치성향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정치행정분야(F=7.538, P<.001),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F=9.708, P<.001), 외교 및 통일안보 분야(F=5.836, P<.001),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정치 이슈(F=9.912, P<.001), 정치사안 및 정책, 선거 관련 이슈(F=7.507, P<.001), 사회복지분야 관련 이슈(F=3.134, P<.05), 교육 관련 이슈(F=5.740, P<.01), 청소년 관련 이슈(F=5.486, P<.01)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정치성향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정치행정분야(F=15.699, P<.001),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F=8.407, P<.001), 외교 및 통일안보 분야(F=8.298, P<.001),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정치 이슈(F=8.057, P<.001), 정치사안 및 정책, 선거 관련 이슈(F=9.893, P<.001), 사회복지분야 관련 이슈(F=5.239, P<.01), 청소년 관련 이슈(F=6.002, P<.01)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11>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

구분			M	(SD)	F	Scheffe
정치행정분야	아버지	보수	3.07	1.191	7.436**	중도<보수**
		중도	2.71	1.388		
		진보	3.06	1.267		
	어머니	보수	2.87	1.227	7.538**	중도<진보**
		중도	2.73	1.389		
		진보	3.15	1.228		
	나	보수	2.98	1.372	15.699***	중도<진보***
		중도	2.69	1.115		
		진보	3.25	2.482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	아버지	보수	2.99	1.228	5.677**	중도<진보*
		중도	2.70	1.148		
		진보	2.95	1.271		
	어머니	보수	2.85	1.122	9.708***	중도<진보***
		중도	2.71	1.161		
		진보	3.11	1.216		
	나	보수	2.77	1.334	8.407***	중도<진보***
		중도	2.70	1.139		
		진보	3.06	1.254		

외교 및 통일안보 분야	아버지	보수	2.92	1.230	6.267**	n.s
		중도	2.62	1.117		
		진보	2.88	1.313		
	어머니	보수	2.89	1.220	5.836**	중도<진보**
		중도	2.64	1.131		
		진보	2.93	1.267		
나	보수	2.98	1.245	8.298***	중도<진보**	
	중도	2.61	1.110			
	진보	2.90	1.282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정치 이슈	아버지	보수	3.28	1.129	10.715***	중도<진보***
		중도	2.89	1.165		
		진보	3.24	1.263		
	어머니	보수	3.32	1.045	9.912***	중도<진보**
		중도	2.91	1.173		
		진보	3.27	1.262		
	나	보수	3.15	1.314	8.057***	중도<진보**
		중도	2.89	1.149		
		진보	3.23	1.315		
정치사안 및 정책	아버지	보수	2.94	1.137	6.997**	중도<진보**
		중도	2.69	1.123		
		진보	2.98	1.250		
	어머니	보수	2.91	1.120	7.507**	중도<진보**
		중도	2.71	1.134		
		진보	3.05	1.219		
	나	보수	2.93	1.365	9.893***	중도<진보***
		중도	2.68	1.101		
		진보	3.04	1.274		
선거 관련 이슈	아버지	보수	3.38	1.168	16.452***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2.87	1.200		
		진보	3.31	1.314		
	어머니	보수	3.19	1.096	15.666***	중도<진보***
		중도	2.89	1.212		
		진보	3.41	1.242		
	나	보수	3.30	1.476	11.560***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2.87	1.185		
		진보	3.26	1.298		
과학기술분야 관련 이슈	아버지	보수	3.01	1.239	2.399	n.s
		중도	2.87	1.194		
		진보	3.06	1.196		

	어머니	보수	2.85	1.103	1.168	n.s
		중도	2.90	1.205		
		진보	3.04	1.171		
	나	보수	2.97	1.303	1.738	n.s
		중도	2.88	1.184		
		진보	3.05	1.235		
사회복지분야 관련 이슈	아버지	보수	3.06	1.124	3.141*	중도<진보**
		중도	2.87	1.240		
		진보	3.09	1.224		
	어머니	보수	3.02	1.170	3.134*	n.s
		중도	2.88	1.235		
		진보	3.12	1.222		
	나	보수	3.07	1.276	5.239**	n.s
		중도	2.86	1.225		
		진보	3.15	1.261		
문화예술체육 관련 이슈	아버지	보수	3.19	1.109	1.738	n.s
		중도	3.01	1.574		
		진보	3.20	1.228		
	어머니	보수	3.32	1.125	.866	n.s
		중도	3.04	1.560		
		진보	3.10	1.222		
	나	보수	2.92	1.242	2.156	n.s
		중도	3.03	1.556		
		진보	3.25	1.246		
환경 관련 이슈	아버지	보수	3.40	1.109	4.895**	n.s
		중도	3.10	1.176		
		진보	3.31	1.210		
	어머니	보수	3.38	1.012	2.713	n.s
		중도	3.12	1.189		
		진보	3.30	1.177		
	나	보수	3.18	1.242	2.056	n.s
		중도	3.11	1.169		
		진보	3.29	1.239		
생물·동물분야 관련 이슈	아버지	보수	3.23	1.256	1.355	n.s
		중도	3.13	1.176		
		진보	3.27	1.224		
	어머니	보수	3.26	1.163	1.239	n.s
		중도	3.14	1.182		
		진보	3.28	1.125		

	나	보수	3.02	1.297	2.220	n.s
		중도	3.14	1.173		
		진보	3.31	1.215		
교육 관련 이슈	아버지	보수	3.37	1.268	6.294**	중도<진보*
		중도	3.04	1.197		
		진보	3.31	1.295		
	어머니	보수	3.15	1.197	5.740**	중도<진보**
		중도	3.06	1.201		
		진보	3.38	1.305		
	나	보수	3.18	1.272	2.868	n.s
		중도	3.06	1.196		
		진보	3.27	1.319		
청소년 관련 이슈	아버지	보수	3.78	1.038	9.480***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3.30	1.171		
		진보	3.57	1.278		
	어머니	보수	3.62	1.153	5.486**	중도<진보*
		중도	3.32	1.166		
		진보	3.60	1.299		
	나	보수	3.48	1.206	6.002**	중도<진보**
		중도	3.32	1.159		
		진보	3.62	1.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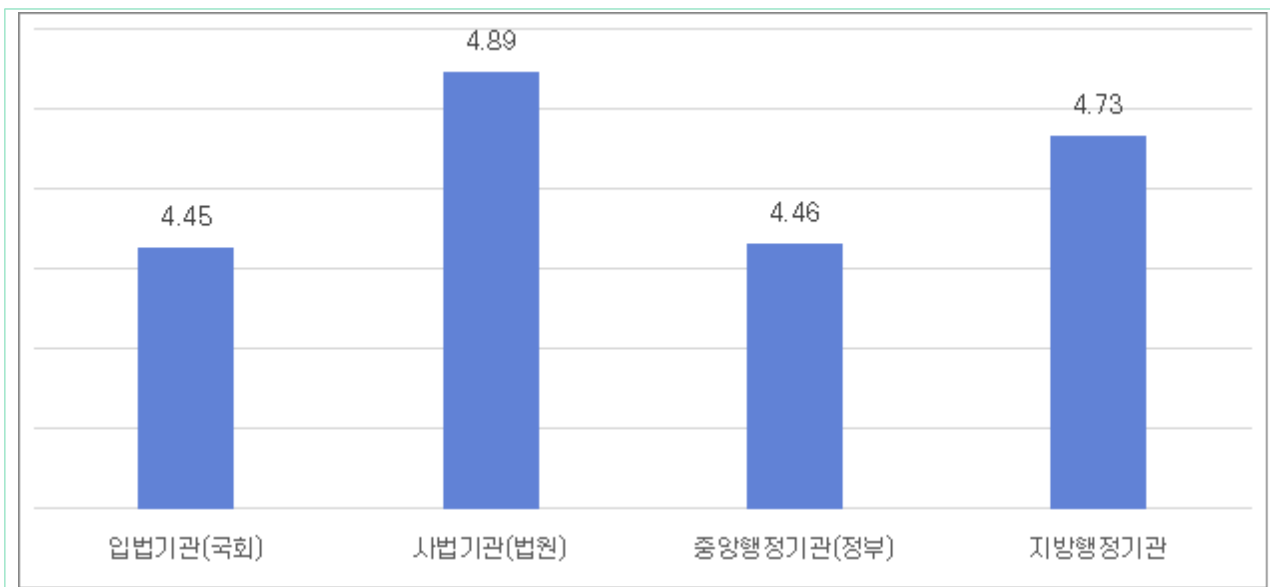
5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수준

①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

본 연구의 청소년들에게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 수준을 ‘낮다 1점’부터 ‘높다 10점’으로 확인한 결과, 사법기관(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4.89(SD=2.4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 4.73(SD=2.047), 중앙행정기관(정부) 4.46(SD=2.121), 입법기관(국회) 4.45(SD=2.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2>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

내 용	M	(SD)
입법기관(국회)	4.45	2.113
사법기관(법원)	4.89	2.474
중앙행정기관(정부)	4.46	2.121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	4.73	2.047



[그림 3-3]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

② 응답자 특성에 따른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국가권력에 권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입법기관(국회)($T=-6.857$, $P<.000$), 사법기관(법원)(국회)($T=-5.349$, $P<.000$), 중앙행정기관(정부)(국회)($T=-4.239$, $P<.000$),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국회)($T=-6.150$, $P<.000$)에서 모두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가권력 유형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13> 성별에 따른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

구분		M	(SD)	T
입법기관(국회)	남자	4.09	2.198	-6.857***
	여자	4.77	1.973	
사법기관(법원)	남자	4.57	2.298	-5.349***
	여자	5.19	2.587	
중앙행정기관(정부)	남자	4.23	2.255	-4.239***
	여자	4.66	1.974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	남자	4.42	2.191	-6.150***
	여자	5.01	1.869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국가권력에 권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사법기관(법원)($F=2.845$, $P<.05$)과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F=2.494$, $P<.05$)에 대한 신뢰도에서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법기관(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7세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8세와 19세가 높았다. 반면, 16세와 20세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에 대한 신뢰도는 17세가 가장 높았고, 18세→19세→16세→20세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표 3-14> 연령에 따른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

구분		M	(SD)	F	Scheffe
입법기관(국회)	16세	3.82	2.160	2.120	n.s
	17세	4.56	2.072		
	18세	4.45	2.115		
	19세	4.28	2.153		
	20세	3.20	2.490		
사법기관(법원)	16세	4.23	2.250	2.845*	n.s
	17세	5.10	2.913		
	18세	4.82	2.175		
	19세	4.82	2.272		
	20세	3.00	2.828		

중앙행정기관(정부)	16세	4.16	2.411	1.506	n.s
	17세	4.60	2.085		
	18세	4.41	2.115		
	19세	4.33	2.164		
	20세	3.40	2.510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	16세	3.98	2.085	2.494*	n.s
	17세	4.83	1.990		
	18세	4.72	2.046		
	19세	4.64	2.171		
	20세	3.40	2.510		

응답자의 소속에 따라 국가권력에 권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15> 소속에 따른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

구분		M	(SD)	T
입법기관(국회)	고등 재학	4.46	2.093	-518
	학교 안다님	5.00	3.162	
사법기관(법원)	고등 재학	4.90	2.483	.121
	학교 안다님	4.75	2.872	
중앙행정기관(정부)	고등 재학	4.46	2.112	-514
	학교 안다님	5.00	3.162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	고등 재학	4.75	2.037	-.005
	학교 안다님	4.75	2.872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권역별 지역에 따라 국가권력에 권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입법기관(국회)($F=5.312, P<.01$), 사법기관(법원)($F=4.837, P<.01$), 중앙행정기관(정부)(국회)($F=6.198, P<.000$),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F=3.564, P<.05$)에 대한 신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법기관(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내륙권역→서해안권역→남부권역→북부권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법기관(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내륙권역→남부권역→서해안권역→북부권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정부)은 내륙권역→서해안권역→남부권역→북부권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은 내륙권역→서해안권역→남부권역→북부권역으로 확인되었다.

<표 3-16> 거주지역에 따른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

구분		M	(SD)	F	Scheffe
입법기관(국회)	북부	4.23	2.095	5.312**	북부<내륙**
	서해안	4.50	2.144		
	내륙	4.74	2.026		
	남부	4.41	2.111		
사법기관(법원)	북부	4.63	2.152	4.837**	북부<내륙**
	서해안	4.94	2.185		
	내륙	5.20	3.074		
	남부	4.95	2.263		
중앙행정기관(정부)	북부	4.23	2.152	6.198***	북부<내륙***
	서해안	4.53	2.102		
	내륙	4.78	2.005		
	남부	4.40	2.122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	북부	4.57	2.030	3.564*	북부<내륙*
	서해안	4.79	2.010		
	내륙	4.97	1.992		
	남부	4.68	2.120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라 국가권력에 권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입법기관(국회)($F=12.484, P<.001$), 사법기관(법원)($F=12.998, P<.001$), 중앙행정기관(정부)($F=11.498, P<.001$),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F=22.075,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주목할 점은 가정형편이 하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다.

<표 3-17>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

구분		M	(SD)	F	Scheffe
입법기관(국회)	상	4.44	2.409	12.484***	하<상*** 하<중***
	중	4.48	2.063		
	하	2.33	2.548		
사법기관(법원)	상	5.27	2.528	12.998***	하<상*** 하<중***
	중	4.90	2.448		
	하	2.46	2.431		
중앙행정기관(정부)	상	4.45	2.479	11.498***	하<상*** 하<중***
	중	4.49	2.074		
	하	2.42	2.358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	상	4.60	2.407	22.075***	하<상*** 하<중***
	중	4.78	1.992		
	하	2.04	1.876		

청소년의 주관적 성적에 따라 국가권력에 권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입법기관(국회) (F=19.085, P<.001), 사법기관(법원)(F=14.011, P<.001), 중앙행정기관(정부)(F=13.416, P<.001),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F=17.844,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18> 주관적 성적에 따른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

구분		M	(SD)	F	Scheffe
입법기관(국회)	상	3.74	2.607	19.085***	상<중** 하<중***
	중	4.56	2.054		
	하	3.46	2.070		
사법기관(법원)	상	4.55	2.695	14.011***	하<중***
	중	4.99	2.456		
	하	3.76	2.176		
중앙행정기관(정부)	상	3.96	2.635	13.416***	하<중***
	중	4.54	2.071		
	하	3.57	2.096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	상	4.53	2.651	17.844***	하<상** 하<중***
	중	4.82	1.982		
	하	3.65	2.082		

정치성향에 따라 국가권력에 권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먼저, 아버지의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는 입법기관(국회)(F=5.886, P<.01), 중앙행정기관(정부)(F=7.186,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어머니의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입법기관(국회)(F=4.569, P<.05), 중앙행정기관(정부)(F=9.696,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나의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중앙행정기관(정부)(F=5.470, 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19> 정치성향에 따른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

구분		M	(SD)	F	Scheffe	
입법기관(국회)	아버지	보수	3.99	2.323	5.886**	진보<중도*
		중도	4.54	2.049		
		진보	4.11	2.149		
	어머니	보수	4.64	2.444	4.569*	진보<중도*
		중도	4.52	2.055		
		진보	4.03	2.192		
	나	보수	4.02	2.125	2.869	n.s
		중도	4.54	2.030		
		진보	4.30	2.327		

사법기관(법원)	아버지	보수	4.64	2.542	1.618	n.s
		중도	4.96	2.465		
		진보	4.68	2.421		
	어머니	보수	5.17	2.514	.588	n.s
		중도	4.93	2.116		
		진보	4.77	4.376		
	나	보수	4.74	2.568	.419	n.s
		중도	4.96	2.092		
		진보	4.84	4.237		
중앙행정기관(정부)	아버지	보수	4.45	2.540	7.183**	진보<중도**
		중도	4.56	2.037		
		진보	3.95	2.246		
	어머니	보수	4.79	2.604	9.696***	진보<보수* 진보<중도***
		중도	4.55	2.058		
		진보	3.84	2.171		
	나	보수	4.30	2.499	5.470**	진보<중도**
		중도	4.58	2.027		
		진보	4.07	2.339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 법원 등)	아버지	보수	4.44	2.155	2.486	n.s
		중도	4.80	1.985		
		진보	4.52	2.121		
	어머니	보수	4.80	1.987	2.366	n.s
		중도	4.46	2.143		
		진보	4.76	2.013		
	나	보수	4.77	2.232	2.047	n.s
		중도	4.82	1.956		
		진보	4.52	2.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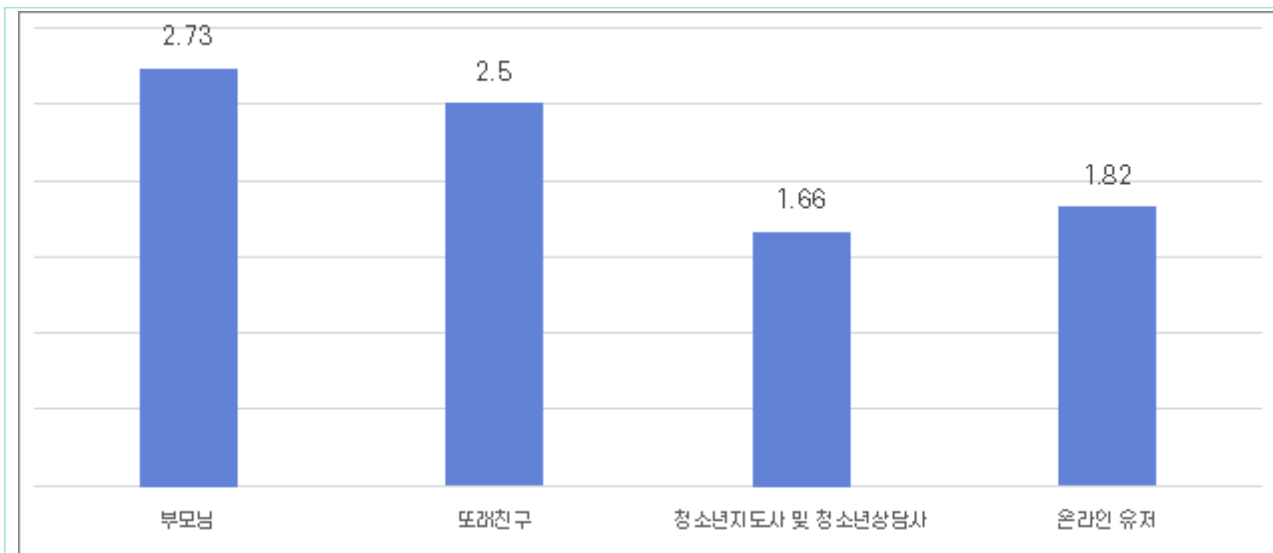
6 정치적 이슈(문제)와 관련한 대화

1 정치적 이슈(문제)와 관련한 대화 정도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대상에 따라 정치적 이슈(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하는가에 대해 ‘전혀하지 않는다’ 1점부터 ‘자주 한다’ 5점으로 확인하였다. 충청남도 청소년들은 부모님(M=2.73, SD=1.287)과 정치적 이슈에 대한 자주 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또래친구(M=2.50, SD=1.213), 온라인 유저(M=1.82, SD=1.065),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M=1.66, SD=.909)의 순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20> 정치적(이슈)와 관련한 대상별 대화 정도

내 용	M	(SD)
부모님	2.73	1.287
또래친구	2.50	1.213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1.66	.909
온라인 유저	1.82	1.065



[그림 3-4] 정치적(이슈)와 관련한 대상별 대화 정도

②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정치적 이슈(문제)와 관련한 대화 정도

대상에 따른 정치적 이슈(문제)와 관련한 대화 정도를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부모님과 대화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청소년은 ‘부모님과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화한다’는 응답이 2.85(SD=1.260)인 반면, 남자청소년은 2.59(SD=1.309)로 여자청소년이 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대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21> 성별에 따른 정치적(이슈)와 관련한 대상별 대화 정도

구분		M	(SD)	T
부모님	남자	2.59	1.309	-4.305***
	여자	2.85	1.260	
또래친구	남자	2.49	1.261	-.338
	여자	2.51	1.173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남자	1.67	.965	.915
	여자	1.63	.854	
온라인 유저	남자	1.84	1.105	.823
	여자	1.80	1.031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대상에 따른 정치적 이슈(문제)와 관련한 대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 또래친구(F=3.509, P<.01),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F=5.324, P<.000), 온라인 유저(F=2.383, P<.05)와의 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래친구와 정치적 이슈(문제)와 관련한 대화정도는 19세→20세→18세→17세→16세의 순으로 많았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20세→19세→17세→18세→16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유저와는 20세→19세→17세→18세→16세의 순이었다.

<표 3-22> 연령에 따른 정치적(이슈)와 관련한 대상별 대화 정도

구분		M	(SD)	F	Scheffe
부모님	16세	2.43	1.336	1.233	n.s
	17세	2.71	1.292		
	18세	2.73	1.282		
	19세	2.88	1.319		
	20세	2.40	1.517		

또래친구	16세	2.11	1.166	3.509**	16세<19세*
	17세	2.46	1.171		
	18세	2.49	1.239		
	19세	2.78	1.221		
	20세	2.60	1.342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16세	1.43	.728	5.324***	16세<19세*
	17세	1.66	.871		
	18세	1.61	.887		
	19세	1.90	1.112		
	20세	2.40	1.517		
온라인 유저	16세	1.66	1.077	2.383*	n.s
	17세	1.82	1.009		
	18세	1.80	1.065		
	19세	1.98	1.226		
	20세	2.80	1.643		

대상에 따른 정치적 이슈(문제)와 관련한 대화 정도를 응답자의 소속에 따라 확인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친구($T=-2.066$, $P<.05$),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T=-4.170$, $P<.000$), 온라인 유저($T=-2.250$, $P<.05$)와의 대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23> 소속에 따른 정치적(이슈)와 관련한 대상별 대화 정도

구분		M	(SD)	T
부모님	고등 재학	2.73	1.285	-1.589
	학교 안다님	3.75	.500	
또래친구	고등 재학	2.50	1.211	-2.066*
	학교 안다님	3.75	.500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고등 재학	1.63	.893	-4.170***
	학교 안다님	3.50	1.000	
온라인 유저	고등 재학	1.81	1.056	-2.250*
	학교 안다님	3.00	1.414	

거주지역에 따라 대상에 따른 정치적 이슈(문제)와 관련한 대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 또래친구 ($F=3.378$, $P<.05$),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F=6.082$, $P<.000$)와의 대화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친구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서해안권역→남부권역→북부권역→내륙권역으로 순이었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의 대화는 서해안권역→내륙권역→ 남부권역→북부권역의 순이었다.

<표 3-24> 거주지역에 따른 정치적(이슈)와 관련한 대상별 대화 정도

구분		M	(SD)	F	Scheffe
부모님	북부	2.77	1.293	.430	n.s
	서해안	2.71	1.299		
	내륙	2.70	1.234		
	남부	2.76	1.360		
또래친구	북부	2.51	1.218	3.378*	북부<서해안* 내륙<서해안*
	서해안	2.62	1.196		
	내륙	2.37	1.193		
	남부	2.55	1.246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북부	1.55	.845	6.082***	북부<서해안**
	서해안	1.81	1.045		
	내륙	1.67	.868		
	남부	1.64	.896		
온라인 유저	북부	1.77	1.032	1.073	n.s
	서해안	1.90	1.163		
	내륙	1.83	1.019		
	남부	1.82	1.092		

응답자의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라 대상에 따른 정치적 이슈(문제)와 관련한 대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 온라인 유저(F=3.593, P<.05)와의 대화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온라인 유저와는 주관적 가정형편이 상이라고 인식할 경우에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25>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정치적(이슈)와 관련한 대상별 대화 정도

구분		M	(SD)	F	Scheffe
부모님	상	2.69	1.422	1.913	n.s
	중	2.74	1.279		
	하	2.24	1.363		
또래친구	상	2.58	1.373	2.696	n.s
	중	2.51	1.204		
	하	1.96	1.241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상	1.85	1.203	2.321	n.s
	중	1.65	.888		
	하	1.68	1.030		
온라인 유저	상	2.08	1.277	3.593*	n.s
	중	1.82	1.055		
	하	1.56	.917		

응답자의 주관적 성적에 따라 대상에 따른 정치적 이슈(문제)와 관련한 대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 부모님(F=12.231, P<.001), 또래친구(F=16.118, P<.001),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F=8.862, P<.000), 온라인 유저(F=9.114, P<.001)와의 대화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26> 주관적 성적에 따른 정치적(이슈)와 관련한 대상별 대화 정도

구분		M	(SD)	F	Scheffe
부모님	상	3.16	1.471	12.231***	중<상** 중<상*** 하<중***
	중	2.75	1.252		
	하	2.25	1.522		
또래친구	상	3.11	1.245	16.118***	중<상** 중<상*** 하<중***
	중	2.51	1.202		
	하	2.09	1.216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상	2.00	1.314	8.862***	중<상** 중<상*** 하<중*
	중	1.66	.894		
	하	1.43	.764		
온라인 유저	상	2.27	1.474	9.114***	중<상** 중<상***
	중	1.83	1.050		
	하	1.60	.919		

아버지와, 어머니, 나의 정치성향에 따라 대상에 따른 정치적 이슈(문제)와 관련한 대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 아버지의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부모님(F=18.839, P<.001), 또래친구(F=9.639, P<.001), 온라인 유저(F=3.533, P<.05)와의 대화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어머니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부모님(F=22.192, P<.001), 또래친구(F=10.310, P<.001), 온라인 유저(F=5.001, P<.01)와의 대화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부모님(F=19.042, P<.001), 또래친구(F=13.228, P<.001), 온라인 유저(F=6.164, P<.01)와의 대화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나의 정치성향이 진보일수록 정치적 이슈(문제)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적(이슈)와 관련한 대상별 대화 정도

구분		M	(SD)	F	Scheffe	
부모님	아버지	보수	3.11	1.359	18.939***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2.66	1.250		
		진보	3.21	1.397		

	어머니	보수	3.04	1.334	22.192***	중도<진보***
		중도	2.68	1.253		
		진보	3.33	1.364		
	나	보수	3.15	1.412	19.042***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2.67	1.243		
		진보	3.21	1.383		
또래친구	아버지	보수	2.89	1.284	9.639***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2.46	1.179		
		진보	2.77	1.334		
	어머니	보수	2.74	1.359	10.310***	중도<진보***
		중도	2.47	1.181		
		진보	2.88	1.337		
	나	보수	2.61	1.255	13.228***	중도<진보***
		중도	2.45	1.177		
		진보	2.91	1.288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아버지	보수	1.53	.872	.788	n.s
		중도	1.66	.890		
		진보	1.66	1.003		
	어머니	보수	1.70	.976	.085	
		중도	1.67	.899		
		진보	1.64	.973		
	나	보수	1.62	.860	2.509	
		중도	1.64	.877		
		진보	1.79	1.072		
온라인 유저	아버지	보수	1.86	1.142	3.533*	중도<진보**
		중도	1.80	1.015		
		진보	2.01	1.290		
	어머니	보수	2.11	1.323	5.001**	중도<진보*
		중도	1.81	1.026		
		진보	2.03	1.291		
	나	보수	1.85	1.167	6.164**	중도<진보**
		중도	1.79	1.016		
		진보	2.08	1.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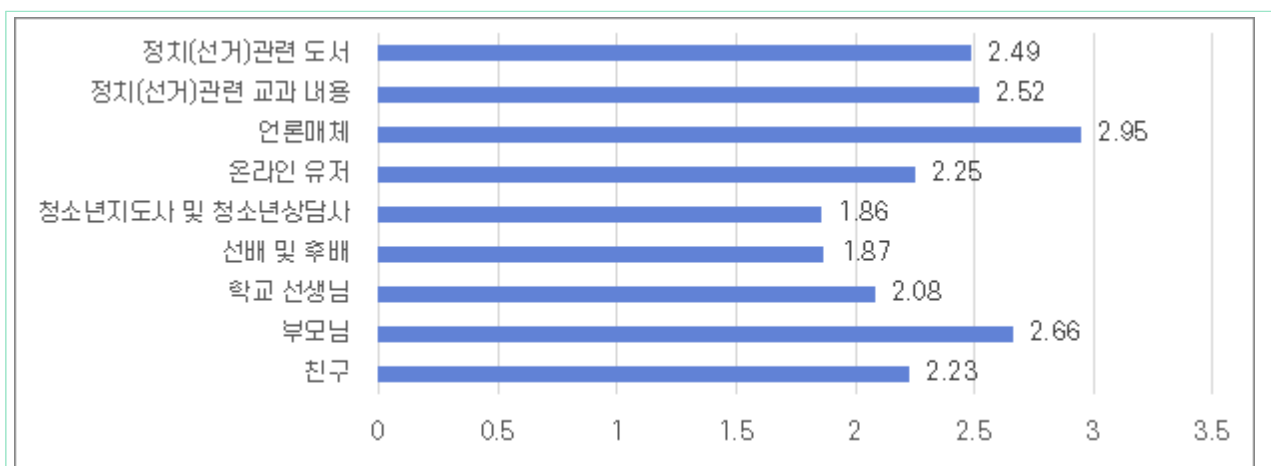
7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1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본 연구에서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추출하여 1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터 5점 ‘매우 영향을 미친다’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적 견해에 영향을 준 요인은 언론매체(M=2.95, SD=1.269)였고, 다음으로는 부모님(M=2.66, SD=1.244), 정치(선거)관련 교과 내용(M=2.52, SD=1.175), 정치(선거)관련 도서(M=2.49, SD=1.146) 등이었다. 반면,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M=1.86, SD=.944)와 선배 및 후배(M=1.87, SD=.916)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8>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내 용	M	(SD)
친구	2.23	1.043
부모님	2.66	1.244
학교 선생님	2.08	1.058
선배 및 후배	1.87	.916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1.86	.944
온라인 유저	2.25	1.171
언론매체	2.95	1.269
정치(선거)관련 교과 내용	2.52	1.175
정치(선거)관련 도서	2.49	1.146



[그림 3-5]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친구를 제외한 모든 요인의 영향력을 여자청소년이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 ($T=-6.173$, $P<.001$), 학교 선생님($T=-4.433$, $P<.000$), 온라인 유저($T=-4.564$, $P<.001$), 언론매체($T=-6.625$, $P<.001$), 정치(선거)관련 교과 내용($T=-5.092$, $P<.001$), 정치(선거)관련 도서($T=-5.923$, $P<.001$)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29> 성별에 따른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구분		M	(SD)	T
친구	남자	2.23	1.098	.214
	여자	2.22	.996	
부모님	남자	2.47	1.224	-6.173***
	여자	2.83	1.242	
학교 선생님	남자	1.96	1.013	-4.433***
	여자	2.18	1.088	
선배 및 후배	남자	1.84	.935	-.890
	여자	1.88	.899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남자	1.84	.975	-.694
	여자	1.88	.916	
온라인 유저	남자	2.11	1.157	-4.564***
	여자	2.37	1.178	
언론매체	남자	2.75	1.307	-6.625***
	여자	3.14	1.208	
정치(선거)관련 교과 내용	남자	2.37	1.178	-5.092***
	여자	2.66	1.158	
정치(선거)관련 도서	남자	2.32	1.145	-5.923***
	여자	2.64	1.132	

연령에 따라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각각의 대상에 대해 영향력을 적게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 ($F=2.899$, $P<.05$), 학교선생님($F=4.437$, $P<.05$),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F=3.582$, $P<.01$), 온라인 유저($F=3.406$, $P<.01$)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30> 연령에 따른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구분		M	(SD)	F	Scheffe
친구	16세	2.02	1.023	2.899*	n.s
	17세	2.24	1.010		
	18세	2.19	1.050		
	19세	2.46	1.102		
	20세	2.60	1.342		
부모님	16세	2.45	1.266	.864	n.s
	17세	2.68	1.219		
	18세	2.64	1.252		
	19세	2.79	1.276		
	20세	2.80	1.304		
학교 선생님	16세	1.86	.979	4.437*	18세<19세*
	17세	2.15	1.067		
	18세	2.00	1.038		
	19세	2.30	1.102		
	20세	2.40	1.517		
선배 및 후배	16세	1.72	.882	2.130	n.s
	17세	1.90	.909		
	18세	1.83	.910		
	19세	1.99	.960		
	20세	2.40	1.140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16세	1.70	.904	3.582**	16세<19세*
	17세	1.91	.943		
	18세	1.81	.921		
	19세	2.03	1.029		
	20세	2.60	1.140		
온라인 유저	16세	1.77	1.075	3.406**	n.s
	17세	2.30	1.145		
	18세	2.21	1.171		
	19세	2.40	1.258		
	20세	2.80	1.483		
언론매체	16세	2.57	1.371	1.484	n.s
	17세	2.96	1.271		
	18세	2.95	1.253		
	19세	3.08	1.315		
	20세	2.80	1.304		
정치(선거)관련 교과 내용	16세	2.16	1.140	2.373	n.s
	17세	2.60	1.177		
	18세	2.47	1.167		
	19세	2.61	1.176		
	20세	2.80	1.304		

정치(선거)관련 도서	16세	2.25	1.278	1.231	n.s
	17세	2.53	1.112		
	18세	2.46	1.150		
	19세	2.53	1.208		
	20세	3.00	1.225		

소속에 따라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T=-3.501$, $P<.001$)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31> 소속에 따른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구분		M	(SD)	T
친구	고등 재학	2.24	1.048	-.980
	학교 안다님	2.75	.957	
부모님	고등 재학	2.67	1.246	.274
	학교 안다님	2.50	1.000	
학교 선생님	고등 재학	2.07	1.060	-1.273
	학교 안다님	2.75	.957	
선배 및 후배	고등 재학	1.86	.912	-1.955
	학교 안다님	2.75	.957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고등 재학	1.85	.938	-3.501***
	학교 안다님	3.50	1.291	
온라인 유저	고등 재학	2.25	1.174	-1.698
	학교 안다님	3.25	1.708	
언론매체	고등 재학	2.97	1.267	-.051
	학교 안다님	3.00	1.414	
정치(선거)관련 교과 내용	고등 재학	2.53	1.172	-.806
	학교 안다님	3.00	1.414	
정치(선거)관련 도서	고등 재학	2.49	1.148	-.011
	학교 안다님	2.50	1.291	

거주지역에 따라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확인한 결과, 학교선생님($F=6.040$, $P<.001$), 선배 및 후배($F=3.525$, $P<.05$),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F=6.994$, $P<.001$), 온라인 유저($F=3.502$, $P<.05$)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북부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상별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력을 적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32> 거주지역에 따른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구분		M	(SD)	F	Scheffe
친구	북부	2.23	1.047	2.119	n.s
	서해안	2.34	1.082		
	내륙	2.16	.990		
	남부	2.23	1.075		
부모님	북부	2.64	1.231	.743	n.s
	서해안	2.73	1.224		
	내륙	2.61	1.233		
	남부	2.69	1.300		
학교 선생님	북부	1.92	.983	6.040***	북부<서해안* 북부<내륙*
	서해안	2.15	1.073		
	내륙	2.14	1.089		
	남부	2.16	1.092		
선배 및 후배	북부	1.78	.879	3.525*	북부<서해안*
	서해안	1.98	.941		
	내륙	1.89	.896		
	남부	1.87	.961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북부	1.73	.870	6.994***	북부<서해안**
	서해안	1.99	1.005		
	내륙	1.92	.952		
	남부	1.87	.961		
온라인 유저	북부	2.17	1.162	3.502*	북부<서해안*
	서해안	2.42	1.241		
	내륙	2.26	1.120		
	남부	2.23	1.186		
언론매체	북부	2.93	1.264	.896	n.s
	서해안	3.05	1.255		
	내륙	2.91	1.247		
	남부	2.96	1.313		
정치(선거)관련 교과 내용	북부	2.39	1.147	5.300*	북부<서해안*
	서해안	2.70	1.178		
	내륙	2.53	1.149		
	남부	2.54	1.222		
정치(선거)관련 도서	북부	2.36	1.130	5.303*	북부<서해안*
	서해안	2.66	1.151		
	내륙	2.53	1.107		
	남부	2.47	1.199		

응답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라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3-33>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구분		M	(SD)	F	Scheffe
친구	상	2.29	1.071	.592	n.s
	중	2.23	1.040		
	하	2.04	1.241		
부모님	상	2.68	1.299	2.822	n.s
	중	2.67	1.239		
	하	2.08	1.187		
학교 선생님	상	2.23	1.140	2.447	n.s
	중	2.08	1.055		
	하	1.72	.980		
선배 및 후배	상	1.97	1.046	.559	n.s
	중	1.87	.904		
	하	1.88	1.166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상	1.93	1.044	.309	n.s
	중	1.86	.934		
	하	1.96	1.241		
온라인 유저	상	2.17	1.161	.564	n.s
	중	2.26	1.170		
	하	2.44	1.417		
언론매체	상	2.89	1.267	2.272	n.s
	중	2.97	1.264		
	하	2.44	1.417		
정치(선거)관련 교과 내용	상	2.46	1.174	2.738	n.s
	중	2.54	1.172		
	하	2.00	1.118		
정치(선거)관련 도서	상	2.47	1.175	1.086	n.s
	중	2.50	1.141		
	하	2.16	1.248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주관적 성적에 따라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확인한 결과, 친구(F=9.345, P<.01), 부모님(F=18.316, P<.001), 학교선생님(F=3.555, P<.05), 온라인 유저(F=5.807, P<.01), 언론매체(F=19.134, P<.001), 정치(선거)관련 교과 내용(F=13.433, P<.001), 정치(선거)관련 도서(F=12.974, P<.05)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충청남도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유형에 대해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3-34> 주관적 성적에 따른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구분		M	(SD)	F	Scheffe
친구	상	2.44	1.142	9.345**	하<상** 하<중***
	중	2.25	1.035		
	하	1.85	.989		
부모님	상	2.85	1.382	18.316***	하<상*** 하<중***
	중	2.70	1.230		
	하	2.00	1.113		
학교 선생님	상	2.12	1.178	3.555*	하<중*
	중	2.10	1.057		
	하	1.82	1.002		
선배 및 후배	상	1.89	1.001	1.936	n.s
	중	1.88	.914		
	하	1.71	.893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상	1.89	1.067	1.540	n.s
	중	1.88	.940		
	하	1.72	.927		
온라인 유저	상	2.47	1.424	5.807**	하<중*
	중	2.27	1.163		
	하	1.93	1.070		
언론매체	상	3.12	1.303	19.134***	하<상*** 하<중***
	중	3.00	1.253		
	하	2.26	1.252		
정치(선거)관련 교과 내용	상	2.64	1.340	13.433***	하<상** 하<중***
	중	2.56	1.158		
	하	1.98	1.097		
정치(선거)관련 도서	상	2.70	1.300	12.794***	하<상*** 하<중***
	중	2.52	1.130		
	하	1.99	1.109		

아버지, 어머니, 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온라인 유저(F=3.064, P<.05), 언론매체(F=11.427, P<.001), 정치(선거)관련 교과 내용(F=4.249, P<.05), 정치(선거)관련 도서(F=7.269, P<.01)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어머니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온라인 유저(F=20.378, P<.001), 부모님(F=20.378, P<.001), 정치(선거)관련 도서(F=5.493, P<.01)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나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친구((F=1.778, P<.001), 부모님((F=7.585, P<.01)의 영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주목할 것은 나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라고 인식할수록 친구에게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것이다.

<표 3-35>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구분			M	(SD)	F	Scheffe
친구	아버지	보수	2.43	1.072	1.866	n.s
		중도	2.22	1.019		
		진보	2.31	1.143		
	어머니	보수	2.28	1.097	.149	n.s
		중도	2.24	1.031		
		진보	2.28	1.120		
	나	보수	2.11	.985	1.778***	n.s
		중도	2.23	1.017		
		진보	2.36	1.145		
부모님	아버지	보수	3.01	1.228	36.466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2.57	1.185		
		진보	3.32	1.391		
	어머니	보수	2.94	1.150	20.378***	중도<진보***
		중도	2.61	1.200		
		진보	3.21	1.417		
	나	보수	2.95	1.231	7.585**	중도<진보**
		중도	2.63	1.215		
		진보	2.95	1.346		
학교 선생님	아버지	보수	2.37	1.290	2.729	n.s
		중도	2.07	1.032		
		진보	2.11	1.136		
	어머니	보수	2.37	1.289	1.818	n.s
		중도	2.09	1.046		
		진보	2.04	1.101		
	나	보수	2.22	1.195	2.201	n.s
		중도	2.06	1.038		
		진보	2.21	1.147		
선배 및 후배	아버지	보수	1.97	.978	.981	n.s
		중도	1.88	.898		
		진보	1.81	1.012		
	어머니	보수	2.06	.965	2.269	n.s
		중도	1.89	.914		
		진보	1.77	.913		
	나	보수	1.75	.850	1.630	n.s
		중도	1.87	.904		
		진보	1.97	1.015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아버지	보수	1.85	.883	.298	n.s
		중도	1.88	.933		
		진보	1.83	1.041		

	어머니	보수	1.98	.944	.860	n.s
		중도	1.88	.942		
		진보	1.80	.960		
	나	보수	1.82	.940	.963	n.s
		중도	1.86	.919		
		진보	1.95	1.074		
온라인 유저	아버지	보수	2.50	1.322	3.064*	n.s
		중도	2.24	1.131		
		진보	2.39	1.357		
	어머니	보수	2.32	1.218	.692	n.s
		중도	2.25	1.152		
		진보	2.36	1.351		
	나	보수	2.26	1.168	1.635	n.s
		중도	2.24	1.144		
		진보	2.40	1.337		
언론매체	아버지	보수	3.33	1.256	11.427***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2.91	1.242		
		진보	3.30	1.303		
	어머니	보수	3.17	1.274	4.361*	n.s
		중도	2.94	1.251		
		진보	3.22	1.323		
	나	보수	3.15	1.447	2.259	n.s
		중도	2.95	1.240		
		진보	3.12	1.328		
정치(선거)관련 교과 내용	아버지	보수	2.85	1.206	4.249*	n.s
		중도	2.51	1.147		
		진보	2.67	1.285		
	어머니	보수	3.09	1.299	5.195**	중도<보수* 진보<보수**
		중도	2.53	1.155		
		진보	2.54	1.217		
	나	보수	2.59	1.383	.743	n.s
		중도	2.53	1.144		
		진보	2.63	1.272		
정치(선거)관련 도서	아버지	보수	2.79	1.107	7.269**	중도<진보**
		중도	2.47	1.119		
		진보	2.74	1.289		
	어머니	보수	2.80	1.088	5.493**	중도<보수*
		중도	2.48	1.130		
		진보	2.74	1.232		
	나	보수	2.48	1.219	1.581	n.s
		중도	2.49	1.119		
		진보	2.64	1.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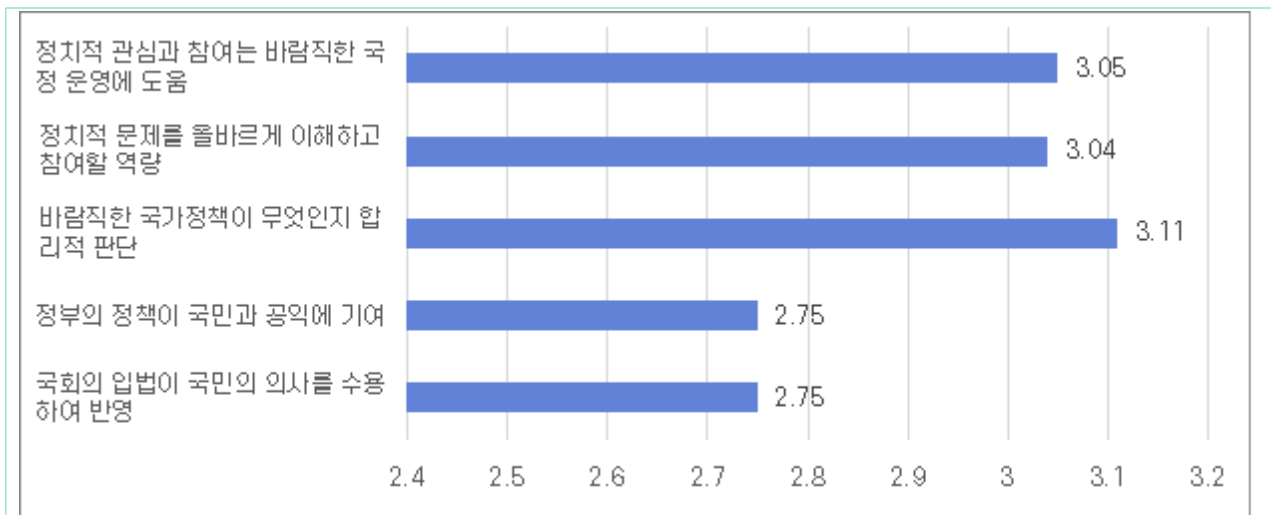
8 정치적 의견 반영

1 정치적 의견

충청남도 청소년에게 정치적 의견에 대해 확인한 결과, ‘나는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M=3.05, SD=1.083)’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나는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한다고 생각한다(M=2.75, SD=.979)’와 ‘나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M=2.75, SD=.956)’의 응답이 가장 적었다.

<표 3-36> 정치적 의견

내 용	M	(SD)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	2.75	.979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	2.75	.956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	3.11	.994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역량	3.04	1.022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 운영에 도움	3.05	1.083



[그림 3-6] 정치적 의견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정치적 의견

정치적 의견에 대한 응답을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다.

<표 3-37> 성별에 따른 정치적 의견

구분		M	(SD)	T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	남자	2.57	1.040	-7.392***
	여자	2.91	.897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	남자	2.58	1.011	-7.169***
	여자	2.90	.875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	남자	2.98	1.100	-4.868***
	여자	3.21	.878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역량	남자	2.88	1.088	-6.143***
	여자	3.18	.945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 운영에 도움	남자	2.87	1.164	-6.657***
	여자	3.21	.982	

정치적 의견에 대한 응답을 연령에 따라 확인한 결과, ‘나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F=3.936, P<.05)’와 ‘나는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역량이 있다(F=2.590,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38> 연령에 따른 정치적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	16세	2.43	1.169	1.969	n.s
	17세	2.79	.940		
	18세	2.74	.987		
	19세	2.80	1.030		
	20세	2.20	.837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	16세	2.23	1.008	3.936*	16세<17세* 16세<18세* 16세<19세*
	17세	2.79	.920		
	18세	2.74	.967		
	19세	2.79	.959		
	20세	2.40	1.342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	16세	3.05	1.200	.506	n.s
	17세	3.14	.975		
	18세	3.10	.990		
	19세	3.03	1.052		
	20세	3.20	.447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역량	16세	2.59	1.207	2.590*	n.s
	17세	3.07	.992		
	18세	3.04	1.023		
	19세	2.98	1.080		
	20세	3.40	.548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 운영에 도움	16세	2.73	1.318	1.163	n.s
	17세	3.09	1.074		
	18세	3.04	1.078		
	19세	3.05	1.097		
	20세	3.00	.707		

본 연구에서 정치적 의견에 대한 응답을 소속에 따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3-39> 소속에 따른 정치적 의견

구분		M	(SD)	T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	고등 재학	2.76	.980	1.037
	학교 안다님	2.25	.500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	고등 재학	2.75	.946	.533
	학교 안다님	2.50	1.291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	고등 재학	3.12	.987	.240
	학교 안다님	3.00	.816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역량	고등 재학	3.05	1.023	-.387
	학교 안다님	3.25	.500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 운영에 도움	고등 재학	3.06	1.079	-.351
	학교 안다님	3.25	.500	

정치적 의견에 대한 응답을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거주 지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3-40> 거주 지역에 따른 정치적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	북부	2.70	1.023	1.807	n.s
	서해안	2.79	.983		
	내륙	2.83	.926		
	남부	2.72	.978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	북부	2.71	.985	1.411	n.s
	서해안	2.80	.945		
	내륙	2.81	.930		
	남부	2.72	.936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	북부	3.08	1.034	1.132	n.s
	서해안	3.13	1.001		
	내륙	3.08	.925		
	남부	3.20	1.002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역량	북부	3.01	1.029	2.209	n.s
	서해안	3.05	1.015		
	내륙	3.02	.974		
	남부	3.18	1.065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 운영에 도움	북부	3.02	1.078	1.645	n.s
	서해안	3.17	1.076		
	내륙	3.03	1.064		
	남부	3.08	1.107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이 인식하는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라 정치적 의견에 대해 확인한 결과, ‘나는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한다고 생각한다(F=10.443, P<.001)’, ‘나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F=12.282, P<.001)’, ‘나는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F=17.261, P<.00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역량이 있다(F=7.193, P<.01)’, ‘나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F=6.937, P<.01)’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41>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정치적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	상	2.62	1.044	10.443***	하<상** 하<중***
	중	2.77	.965		
	하	1.92	1.077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	상	2.73	1.076	12.832***	하<상*** 하<중***
	중	2.77	.939		
	하	1.80	.913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	상	3.12	1.153	17.261***	하<상*** 하<중***
	중	3.12	.969		
	하	1.96	1.098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역량	상	3.08	1.127	7.193**	하<상** 하<중**
	중	3.05	1.005		
	하	2.28	1.275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 운영에 도움	상	2.98	1.101	6.937**	하<상* 하<중**
	중	3.07	1.070		
	하	2.28	1.339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이 인식하는 주관적 성적에 따라 정치적 의견에 대해 확인한 결과, ‘나는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한다고 생각한다(F=15.572, P<.001)’, ‘나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F=11.545, P<.001)’, ‘나는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F=24.264, P<.00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역량이 있다(F=21.332, P<.01)’, ‘나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F=25.114, P<.01)’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42> 주관적 성적에 따른 정치적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	상	2.43	1.061	15.572***	상<중** 하<중***
	중	2.80	.961		
	하	2.35	1.013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	상	2.58	1.034	11.545***	하<중***
	중	2.79	.936		
	하	2.37	1.024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	상	3.28	1.255	24.264***	하<상*** 하<중***
	중	3.14	.952		
	하	2.50	1.131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역량	상	3.14	1.242	21.332***	하<상*** 하<중***
	중	3.08	.985		
	하	2.45	1.153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 운영에 도움	상	3.22	1.306	25.114***	하<상*** 하<중***
	중	3.10	1.049		
	하	2.38	1.116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이 인식한 아버지, 어머니, 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치적 의견에 대해 확인한 결과, 아버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나는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F=5.217, P<.0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 할 역량이 있다(F=10.581, P<.001)', '나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F=7.919, P<.001)'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어머니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나는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F=3.931, P<.05)', '나는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역량이 있다(F=113.086, P<.001)', '나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F=5.160, P<.01)'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나는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역량이 있다(F=7.427, P<.01)', '나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F=3.693, P<.05)'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43>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적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	아버지	보수	2.85	1.078	.546	
		중도	2.76	.940		
		진보	2.82	1.096		
	어머니	보수	3.02	1.032	1.672	
		중도	2.76	.953		
		진보	2.76	1.062		
	나	보수	2.61	.936	.887	
		중도	2.77	.953		
		진보	2.77	1.046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	아버지	보수	2.92	1.025	1.901	
		중도	2.75	.912		
		진보	2.79	1.086		
	어머니	보수	2.91	.974	1.174	
		중도	2.77	.929		
		진보	2.69	1.039		
	나	보수	2.62	.986	1.508	
		중도	2.78	.913		
		진보	2.69	1.103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	아버지	보수	3.32	1.053	5.217**	
		중도	3.08	.958		
		진보	3.27	1.012		
	어머니	보수	3.30	1.041	3.931*	중도<진보*
		중도	3.09	.964		
		진보	3.29	1.029		

	나	보수	3.21	1.097	2.281	
		중도	3.10	.942		
		진보	3.24	1.138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역량	아버지	보수	3.44	1.052	10.581***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3.00	.981		
		진보	3.24	1.073		
	어머니	보수	3.45	1.059	13.086***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3.02	.988		
		진보	3.36	1.058		
	나	보수	3.10	1.136	7.427**	중도<진보**
		중도	3.02	.961		
		진보	3.31	1.202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 운영에 도움	아버지	보수	3.35	1.122	7.919***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3.02	1.059		
		진보	3.28	1.064		
	어머니	보수	3.34	1.128	5.160**	중도<진보***
		중도	3.04	1.058		
		진보	3.27	1.131		
	나	보수	3.13	1.284	3.693*	중도<진보*
		중도	3.03	1.031		
		진보	3.25	1.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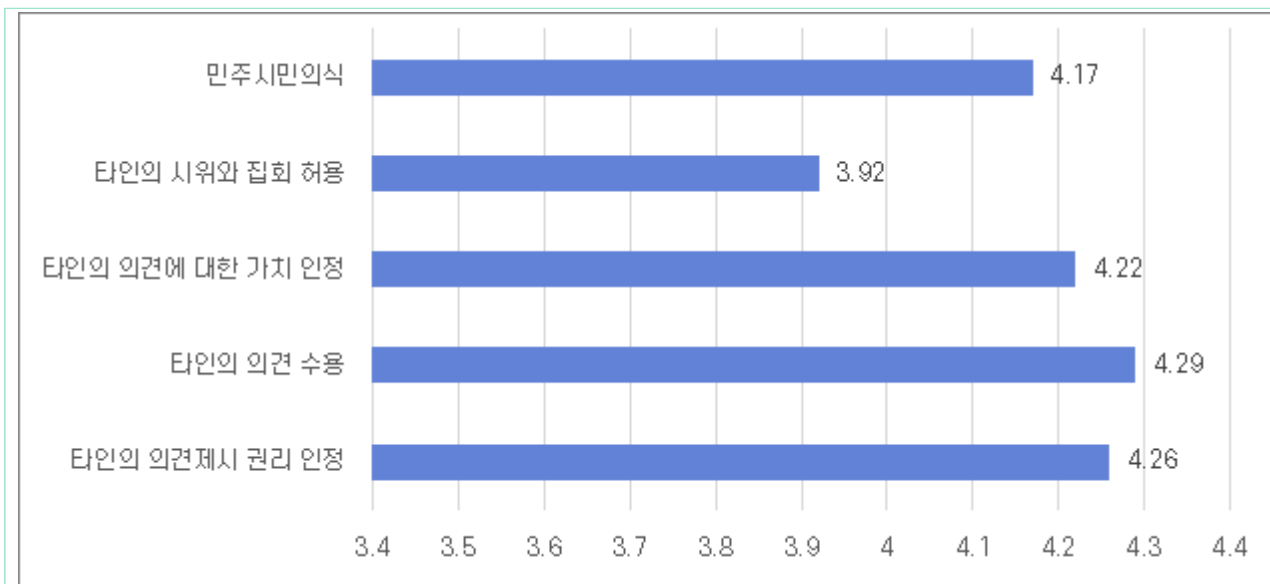
9 민주시민의식

1 민주시민의식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확인한 결과, 4.17(SD=.911)이었다. 민주시민의식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에 따라서는 타인의 의견 수용(M=4.29, SD=.944)이 가장 높았고, 타인의 의견제시 권리 인정(M=4.26, SD=.954), 타인의 의견에 대한 가치 인정(M=4.22, SD=.963), 타인의 시위와 집회 허용(M=3.92, SD=1.239)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표 3-44> 민주시민의식

내 용	M	(SD)
타인의 의견제시 권리 인정	4.26	.954
타인의 의견 수용	4.29	.944
타인의 의견에 대한 가치 인정	4.22	.963
타인의 시위와 집회 허용	3.92	1.239
민주시민의식	4.17	.911



[그림 3-7] 민주시민의식

② 응답자 특성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민주시민의식이 높게 나타났다($T=-10.005$, $P<.000$). 연령에 따라서는 17세가 가장 높았고, 18세→19세→16세→20세의 순이었다($F=.652$, N.S). 소속에 따른 차이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보다 높았고($T=1.026$, N.S), 거주권역에 따라서는 서해안권역→남부권역→내륙권역→북부권역의 순이었다($F=1.071$, N.S). 응답자가 인식한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라서는 가정형편이 중→상→하의 순으로 민주시민의식이 높게 나타났고($F=36.011$, $P<.001$), 주관적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중→상→하 순으로 민주시민의식이 높게 나타났다($F=18.847$, $P<.001$). 아버지와 어머니, 나의 정치성향에 따른 민주시민의식은 아버지의 정치성향이 진보→보수→중도일수록 민주시민의식이 높았고($F=8.375$, $P<.001$), 나의 정치성향이 진보→중도→보수 일수록 민주시민의식이 높았고($F=3.028$, $P<.05$). 어머니의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45> 응답자 특성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구분	M	(SD)	T/F	Scheffe
성별				
남자	3.95	1.045	-10.005***	
여자	4.37	.718		
연령				
16세	4.00	1.080	.652	
17세	4.19	.830		
18세	4.17	.947		
19세	4.16	.934		
20세	3.85	.223		
소속				
고등학교 재학 중	4.20	.881	1.026	
학교에 다니지 않음.	3.75	.735		
거주 지역(권역)				
북부	4.12	.936	1.071	
서해안	4.21	.839		
내륙	4.19	.896		
남부	4.21	.928		
주관적 가정형편 (경제적 수준)				
상	3.98	1.127	36.011***	상<중* 하<상*** 하<중***
중	4.20	.869		
하	2.73	1.332		

주관적 학업성적					
	상	4.05	1.049	18.847***	하<상** 하<중***
	중	4.21	.863		
	하	3.69	1.230		
정치적 성향					
아버지	보수	4.28	.730	8.375***	중도<보수***
	중도	4.14	.916		
	진보	4.41	.718		
어머니	보수	4.15	.791	2.581	
	중도	4.16	.902		
	진보	4.32	.796		
나	보수	4.05	.811	3.028*	
	중도	4.17	.896		
	진보	4.31	.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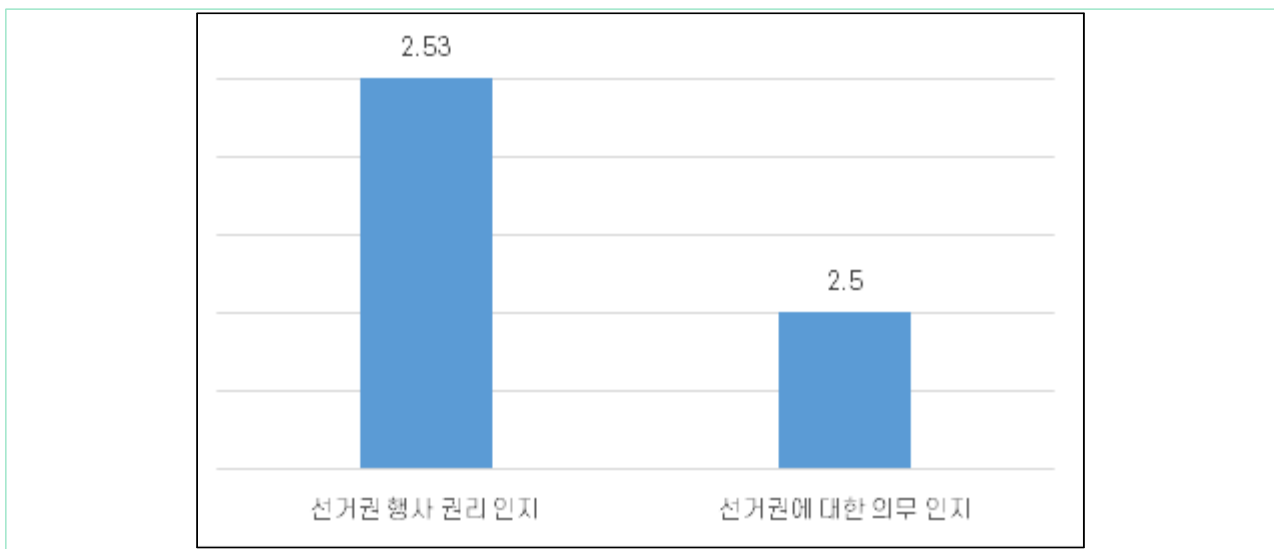
10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

①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들에게 선거권과 관련된 인식을 잘 알고 있다 1점 - 전혀 모른다 5점으로 확인한 결과, 선거권 행사에 대한 권리 인지는 2.53(SD=1.086)이었고, 선거권에 대한 의무(법 준수)에 대한 인지는 2.5(SD=1.085)였다.

<표 3-46>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

내 용	M	(SD)
선거권 행사 권리 인지	2.53	1.086
선거권에 대한 의무(법 준수 등) 인지	2.50	1.085



[그림 3-8]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

② 응답자 특성에 따른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확인한 결과,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하위 요인에 따라서는 선거권 행사에 대한 권리 인지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1.973, P<.05$).

<표 3-47> 성별에 따른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

구분		M	(SD)	T
선거권 행사 권리 인지	남자	2.58	1.118	1.973*
	여자	2.48	1.063	
선거권에 대한 의무(법 준수 등) 인지	남자	2.54	1.115	1.725
	여자	2.46	1.064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를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3-48> 연령에 따른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

구분		M	(SD)	F	Scheffe
선거권 행사 권리 인지	16세	2.64	1.080	.932	n.s
	17세	2.55	1.103		
	18세	2.53	1.074		
	19세	2.45	1.115		
	20세	1.80	.837		
선거권에 대한 의무(법 준수 등) 인지	16세	2.61	1.166	.408	n.s
	17세	2.49	1.085		
	18세	2.50	1.086		
	19세	2.48	1.078		
	20세	2.00	1.000		

선거권과 관련된 인식을 응답자의 소속에 따라 확인한 결과, 선거권 행사에 대한 권리 인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고등학교 다니고 청소년에 비해서 선거권을 갖게 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T=1.973, P<.05).

<표 3-49> 소속에 따른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

구분		M	(SD)	T
선거권 행사 권리 인지	고등 재학	2.58	1.118	1.973*
	학교 안다님	2.48	1.063	
선거권에 대한 의무(법 준수 등) 인지	고등 재학	2.54	1.115	1.725
	학교 안다님	2.46	1.064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를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3-50> 거주 지역에 따른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

구분		M	(SD)	F	Scheffe
선거권 행사 권리 인지	북부	2.53	1.046	.121	n.s
	서해안	2.54	1.078		
	내륙	2.54	1.126		
	남부	2.50	1.120		
선거권에 대한 의무(법 준수 등) 인지	북부	2.47	1.054	1.222	n.s
	서해안	2.49	1.056		
	내륙	2.58	1.142		
	남부	2.45	1.089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를 응답자가 인식한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3-51>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

구분		M	(SD)	F	Scheffe
선거권 행사 권리 인지	상	2.51	1.257	2.813	
	중	2.52	1.073		
	하	3.04	1.338		
선거권에 대한 의무(법 준수 등) 인지	상	2.54	1.281	3.328	중<하*
	중	2.48	1.068		
	하	3.04	1.338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를 응답자가 인식한 주관적 성적에 따라 확인한 결과, 선거권 행사 권리에 대한 인지(F=14.241, P<.001)와 선거권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인지(F=17.24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52> 주관적 성적에 따른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

구분		M	(SD)	F	Scheffe
선거권 행사 권리 인지	상	2.32	1.325	14.241***	상<하*** 중<하***
	중	2.50	1.059		
	하	3.04	1.189		
선거권에 대한 의무(법 준수 등) 인지	상	2.32	1.315	17.248***	상<하*** 중<하***
	중	2.47	1.051		
	하	3.06	1.243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를 응답자가 인식한 아버지, 어머니, 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머니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거권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인지(F=3.144, P<.05)가 차이가 있었다. 그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3-53> 정치성향에 따른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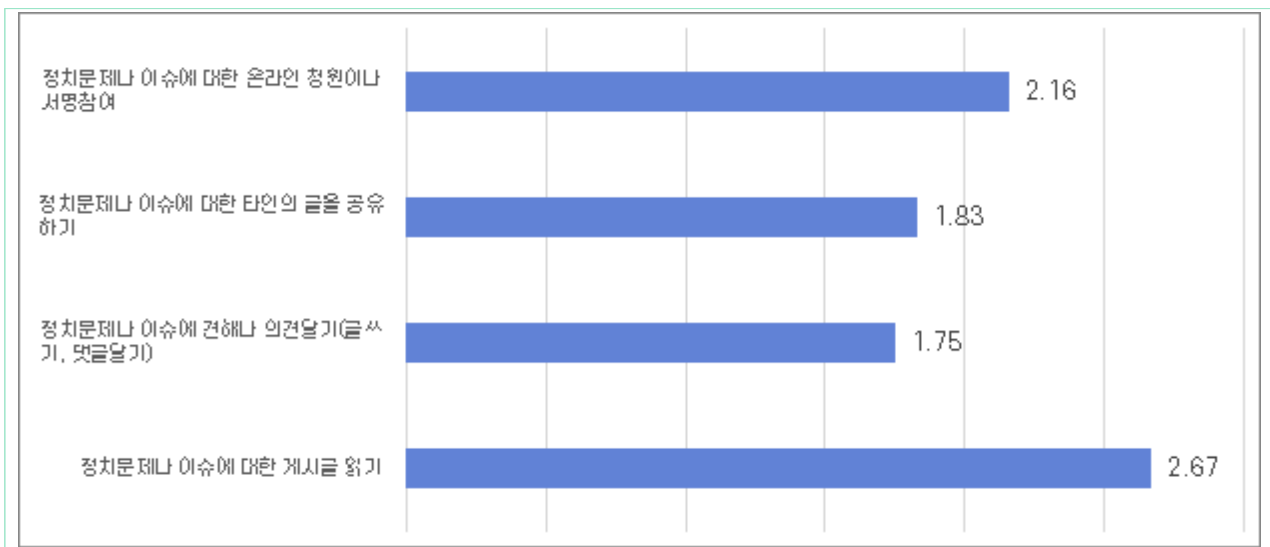
구분			M	(SD)	F	Scheffe
선거권 행사 권리 인지	아버지	보수	2.51	1.048	.135	
		중도	2.54	1.049		
		진보	2.49	1.266		
	어머니	보수	2.55	1.059	2.482	
		중도	2.55	1.053		
		진보	2.36	1.252		
	나	보수	2.30	1.160	1.912	
		중도	2.54	1.036		
		진보	2.46	1.299		
선거권에 대한 의무(법 준수 등) 인지	아버지	보수	2.33	.993	1.713	
		중도	2.51	1.048		
		진보	2.40	1.251		
	어머니	보수	2.40	1.077	3.144*	
		중도	2.52	1.051		
		진보	2.31	1.226		
	나	보수	2.23	1.155	2.982	
		중도	2.51	1.037		
		진보	2.39	1.263		

①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이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를 하였다’는 응답이 2.67(SD=1.266)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M=2.16, SD=1.273),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기(M=1.83, SD=1.069), 정치문제나 이슈에 견해나 의견달기(글쓰기, 댓글달기)(M=1.75, SD=.999)의 순이 확인되었다.

<표 3-54>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

내 용	M	(SD)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2.67	1.266
정치문제나 이슈에 견해나 의견달기(글쓰기, 댓글달기)	1.75	.999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기	1.83	1.069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	2.16	1.273



[그림 3-9]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

② 응답자 특성에 따른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T=-7.216, P<.000$),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기($T=-3.676, P<.000$),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T=-7.931,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55> 성별에 따른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

구분		M	(SD)	T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남자	2.44	1.247	-7.216***
	여자	2.87	1.256	
정치문제나 이슈에 견해나 의견달기(글쓰기, 댓글달기)	남자	1.78	1.035	.933
	여자	1.73	.970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기	남자	1.72	1.009	-3.676***
	여자	1.91	1.113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	남자	1.91	1.145	-7.931***
	여자	2.38	1.339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확인한 결과, 정치문제나 이슈에 견해나 의견달기(글쓰기, 댓글달기)($F=2.611, P<.05$),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기($F=3.657, P<.05$),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F=3.220,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56> 연령에 따른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

구분		M	(SD)	F	Scheffe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16세	2.39	1.351	1.151	n.s
	17세	2.68	1.281		
	18세	2.65	1.248		
	19세	2.78	1.300		
	20세	3.20	1.643		
정치문제나 이슈에 견해나 의견달기(글쓰기, 댓글달기)	16세	1.45	.820	2.611*	n.s
	17세	1.75	.979		
	18세	1.73	.983		
	19세	1.91	1.158		
	20세	2.40	1.140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기	16세	1.59	.996	3.657*	n.s
	17세	1.79	1.040		
	18세	1.82	1.055		
	19세	2.02	1.212		
	20세	3.00	1.414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	16세	1.98	1.389	3.220*	n.s
	17세	2.14	1.270		
	18세	2.12	1.250		
	19세	2.43	1.332		
	20세	3.20	1.643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응답자의 소속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T=-2.106$, $P<.05$),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기($T=-3.545$, $P<.000$),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T=-3.449$,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57> 소속에 따른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

구분		M	(SD)	T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고등 재학	2.66	1.270	-2.106*
	학교 안다님	4.00	.816	
정치문제나 이슈에 견해나 의견달기(글쓰기, 댓글달기)	고등 재학	1.73	.987	-1.043
	학교 안다님	2.25	1.258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기	고등 재학	1.81	1.069	-3.545***
	학교 안다님	4.00	.000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	고등 재학	2.14	1.267	-3.449*
	학교 안다님	4.67	.577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3-58> 거주 지역에 따른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

구분		M	(SD)	F	Scheffe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북부	2.61	1.268	1.158	n.s
	서해안	2.74	1.239		
	내륙	2.65	1.262		
	남부	2.74	1.308		

정치문제나 이슈에 견해나 의견달기(글쓰기, 댓글달기)	복부	1.69	.964	2.883*	n.s
	서해안	1.88	1.067		
	내륙	1.73	.977		
	남부	1.74	.982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기	복부	1.79	1.046	1.969	n.s
	서해안	1.94	1.141		
	내륙	1.80	1.033		
	남부	1.79	1.071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	복부	2.05	1.224	2.417	n.s
	서해안	2.27	1.294		
	내륙	2.17	1.281		
	남부	2.21	1.320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이 인식한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라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3-59>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

구분		M	(SD)	F	Scheffe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상	2.74	1.363	1.876	
	중	2.67	1.260		
	하	2.20	1.291		
정치문제나 이슈에 견해나 의견달기(글쓰기, 댓글달기)	상	1.89	1.094	1.192	
	중	1.75	.993		
	하	1.92	1.222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기	상	1.85	1.124	.191	
	중	1.83	1.067		
	하	1.96	1.268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	상	2.21	1.289	.370	
	중	2.16	1.275		
	하	1.96	1.233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이 인식한 주관적 성적에 따라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확인한 결과,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F=12.460$, $P<.001$), 정치문제나 이슈에 견해나 의견달기(글쓰기, 댓글달기)($F=5.926$, $P<.01$),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기($F=3.118$, $P<.05$),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F=6.511$, $P<.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충청남도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소셜미디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표 3-60> 주관적 성적에 따른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

구분		M	(SD)	F	Scheffe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상	3.14	1.338	12.460***	중<상* 하<상*** 하<중**
	중	2.68	1.258		
	하	2.22	1.203		
정치문제나 이슈에 견해나 의견달기(글쓰기, 댓글달기)	상	2.15	1.213	5.926**	중<상** 하<상*
	중	1.74	.992		
	하	1.73	.953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기	상	2.08	1.290	3.118*	하<상*
	중	1.83	1.065		
	하	1.68	1.002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	상	2.28	1.448	6.511**	하<상* 하<중**
	중	2.19	1.274		
	하	1.75	1.082		

응답자가 인식한 아버지, 어머니, 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F=9.756, P<.001$),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F=5.74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어머니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F=15.144, P<.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F=9.547, P<.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61> 정치성향에 따른 최근 한 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

구분		M	(SD)	F	Scheffe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아버지	보수	3.04	1.303	9.756***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2.62	1.236		
		진보	2.97	1.389		
	어머니	보수	2.96	1.268	15.144***	중도<진보**
		중도	2.62	1.241		
		진보	3.15	1.370		
	나	보수	2.72	1.439	6.887	중도<진보**
		중도	2.63	1.229		
		진보	2.98	1.358		
정치문제나 이슈에 견해나 의견달기(글쓰기, 댓글달기)	아버지	보수	1.79	1.170	.156	
		중도	1.75	.970		
		진보	1.79	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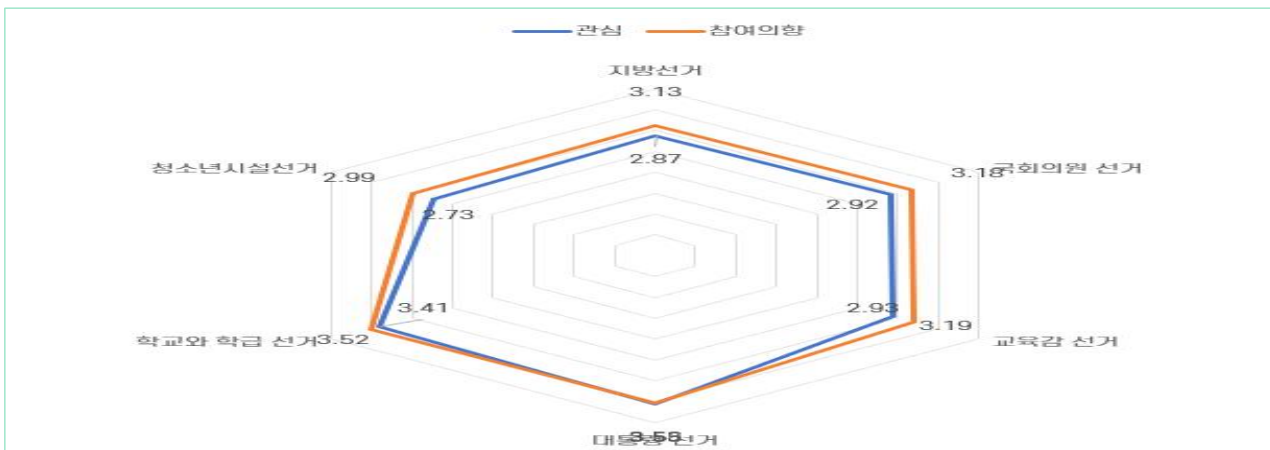
	어머니	보수	1.83	1.049	.684	
		중도	1.74	.977		
		진보	1.83	1.144		
	나	보수	1.77	1.023	5.837	중도<진보**
		중도	1.72	.954		
		진보	1.97	1.156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기	아버지	보수	1.69	.980	2.414	
		중도	1.82	1.044		
		진보	1.97	1.264		
	어머니	보수	1.81	.992	2.036	
		중도	1.82	1.045		
		진보	1.99	1.284		
	나	보수	1.89	1.185	10.080	중도<진보***
		중도	1.78	1.018		
		진보	2.14	1.267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	아버지	보수	2.15	1.261	5.744**	중도<진보**
		중도	2.13	1.243		
		진보	2.46	1.445		
	어머니	보수	2.28	1.228	15.469	중도<진보**
		중도	2.12	1.244		
		진보	2.55	1.450		
	나	보수	2.15	1.263	9.547***	중도<진보***
		중도	2.10	1.235		
		진보	2.63	1.412		

1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을 1점(전혀없다)~5점(매우 있다)으로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M=3.55, SD=1.341)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관심이 있는 선거는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M=3.41, SD=1.341), 교육감 선거(M=2.93, SD=1.268), 국회의원 선거(M=2.92, SD=1.247), 지방선거(광역시·도/시,군,구 단체장)(M=2.87, SD=1.214),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선거(M=2.73, SD=1.238)의 순이었다. 참여의향에 대해서는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M=3.52, SD=1.314), 교육감 선거(M=3.19, SD=1.330), 국회의원 선거(M=3.18, SD=1.329), 지방선거(M=3.13, SD=1.311),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선거(M=2.99, SD=1.28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2>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

관심		내 용	참여의향	
M	(SD)		M	(SD)
2.87	1.214	지방선거	3.13	1.311
2.92	1.247	국회의원 선거	3.18	1.329
2.93	1.268	교육감 선거	3.19	1.330
3.55	1.341	대통령 선거	3.53	1.387
3.41	1.313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	3.52	1.314
2.73	1.238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선거	2.99	1.286



[그림 3-10]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

②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들에게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을 확인한 결과를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모든 유형의 선거에 대한 관심{지방선거(T=-6.696, P<.001), 국회의원 선거(T=-5.528, P<.001), 교육감선거(T=-7.616, P<.001), 대통령선거(T=-5.936, P<.001),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T=-9.233, P<.001),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정치와 선거(T=-6.410, P<.001)}과 정치와 선거에 대한 참여의향{지방선거(T=-8.600, P<.001), 국회의원 선거(T=-7.844, P<.001), 교육감선거(T=-10.251, P<.001), 대통령선거(T=-7.045, P<.001),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T=-11.530, P<.001),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정치와 선거(T=-9.67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크게 나타났다.

<표 3-63> 성별에 따른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

구분	관심			구분	참여의향		
	M	(SD)	T		M	(SD)	T
남자	2.66	1.266	-6.696***	지방선거	2.85	1.342	-8.600***
여자	3.05	1.146			3.38	1.241	
남자	2.74	1.329	-5.528***	국회의원 선거	2.92	1.372	-7.844***
여자	3.07	1.161			3.41	1.255	
남자	2.68	1.304	-7.616***	교육감 선거	2.85	1.340	-10.251***
여자	3.15	1.206			3.48	1.257	
남자	3.35	1.459	-5.936***	대통령 선거	3.29	1.451	-7.045***
여자	3.73	1.214			3.75	1.300	
남자	3.10	1.383	-9.233***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	3.16	1.352	-11.530***
여자	3.68	1.194			3.86	1.192	
남자	2.53	1.253	-6.410***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선거	2.69	1.279	-9.676***
여자	2.91	1.201			3.27	1.235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을 확인한 결과, 지방선거(F=3.554, P<.05), 국회의원선거(F=3.491, P<.05),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정치와 선거(F=3.122, P<.05)에 대한 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치와 선거에 대한 참여의향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연령이 어릴수록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의향이 낮았다는 것이다.

<표 3-64> 연령에 따른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

구분	관심				구분	참여의향			
	M	(SD)	F	Scheffe		M	(SD)	F	Scheffe
16세	2.60	1.251	3.554*	n.s	지방선거	2.80	1.472	1.963	n.s
17세	2.87	1.169							
18세	2.82	1.228							
19세	3.14	1.263							
20세	4.00	1.732							
16세	2.50	1.384	3.491*	n.s	국회의원 선거	2.70	1.564	2.383	n.s
17세	2.90	1.210							
18세	2.89	1.254							
19세	3.17	1.280							
20세	4.00	1.732							
16세	2.52	1.348	2.734	n.s	교육감 선거	2.80	1.519	1.501	n.s
17세	2.92	1.254							
18세	2.91	1.277							
19세	3.14	1.235							
20세	4.00	1.732							
16세	3.17	1.497	1.187	n.s	대통령 선거	3.23	1.683	1.053	n.s
17세	3.54	1.325							
18세	3.56	1.351							
19세	3.65	1.312							
20세	4.00	1.732							
16세	3.05	1.529	1.214	n.s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	3.00	1.525	1.832	n.s
17세	3.46	1.286							
18세	3.39	1.325							
19세	3.43	1.300							
20세	4.00	1.732							
16세	2.48	1.348	3.122*	n.s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선거	2.66	1.413	1.369	n.s
17세	2.79	1.249							
18세	2.66	1.214							
19세	2.97	1.263							
20세	2.67	2.082							

청소년의 소속에 따라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정치와 선거(T=-3.195, P<.05)에 대한 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치와 선거에 대한 참여의향에서는 소속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65> 소속에 따른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

구분	관심			구분	참여의향		
	M	(SD)	T		M	(SD)	T
고등 재학	2.86	1.215	-1.619	지방선거	3.13	1.317	-1.181
학교 안다님	4.00	1.000			3.25	.957	
고등 재학	2.91	1.248	-1.507	국회의원 선거	3.18	1.333	-1.473
학교 안다님	4.00	1.000			3.50	1.000	
고등 재학	2.93	1.272	-1.455	교육감 선거	3.19	1.336	-1.840
학교 안다님	4.00	1.000			3.75	1.258	
고등 재학	3.56	1.343	-.137	대통령 선거	3.53	1.392	.765
학교 안다님	3.67	1.155			3.00	1.414	
고등 재학	3.42	1.315	-1.640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	3.54	1.319	.438
학교 안다님	4.67	.577			3.25	1.258	
고등 재학	2.72	1.236	-3.195*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선거	2.98	1.290	-1.574
학교 안다님	5.00	.000			4.00	.816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거주 지역에 따라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을 확인한 결과, 지방선거(F=3.865, P<.05), 교육감선거(F=3.028, P<.05), 대통령선거(F=2.667, P<.05),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F=3.476, P<.05),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정치와 선거(F=4.646, P<.05)에 대한 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치와 선거에 대한 참여의향에서는 지방선거(F=2.812, P<.05), 대통령선거(F=2.695, P<.05),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F=3.489, P<.05),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정치와 선거(F=3.286,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에서 북부권역과 내륙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서해안권역이나 남부권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66> 거주 지역에 따른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

구분	관심				구분	참여의향			
	M	(SD)	F	Scheffe		M	(SD)	F	Scheffe
북부	2.77	1.232	3.865*	북부<남부*	지방선거	3.03	1.330	2.812*	n.s
서해안	2.95	1.195				3.19	1.253		
내륙	2.84	1.180				3.10	1.299		
남부	3.03	1.245				3.28	1.349		
북부	2.87	1.274	1.674	n.s	국회의원 선거	3.12	1.350	1.112	n.s
서해안	2.98	1.221				3.22	1.256		
내륙	2.88	1.214				3.18	1.331		
남부	3.04	1.273				3.29	1.365		

복부	2.86	1.274	3.028*	복부<남부	교육감 선거	3.11	1.328	2.223	n.s
서해안	2.95	1.261				3.22	1.295		
내륙	2.91	1.232				3.17	1.333		
남부	3.13	1.309				3.34	1.359		
복부	3.53	1.400	2.667*	n.s	대통령 선거	3.49	1.417	2.695*	n.s
서해안	3.60	1.293				3.55	1.336		
내륙	3.46	1.301				3.44	1.392		
남부	3.73	1.340				3.71	1.383		
복부	3.28	1.345	3.476*	n.s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	3.39	1.354	3.489*	n.s
서해안	3.53	1.301				3.58	1.246		
내륙	3.46	1.272				3.61	1.273		
남부	3.50	1.317				3.62	1.349		
복부	2.58	1.217	4.646*	복부<서해안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선거	2.87	1.272	3.286*	n.s
서해안	2.86	1.233				3.09	1.241		
내륙	2.77	1.228				3.08	1.285		
남부	2.83	1.278				3.04	1.342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이 인식한 주관적 가정환경에 따라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을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F=3.066, P<.05), 교육감선거(F=3.099, P<.05), 대통령선거(F=9.141, P<.001),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F=8.498, P<.001),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정치와 선거(F=3.025, P<.05)에 대한 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치와 선거에 대한 참여의향에서는 지방선거(F=5.494, P<.01), 국회의원선거(F=7.141, P<.01), 교육감선거(F=5.973, P<.01), 대통령선거(F=9.778, P<.001),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F=15.295, P<.001),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정치와 선거(F=4.867, P<.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67> 주관적 가정환경에 따른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

구분	관심				구분	참여의향			
	M	(SD)	F	Scheffe		M	(SD)	F	Scheffe
상	2.80	1.271	2.535	n.s	지방선거	3.07	1.378	5.494**	하<중** 하<상*
중	2.88	1.211				3.14	1.302		
하	2.24	1.200				2.28	1.242		
상	2.89	1.326	3.066*	하<중*	국회의원 선거	3.14	1.434	7.141**	하<중** 하<상**
중	2.93	1.243				3.20	1.319		
하	2.18	1.237				2.20	1.118		
상	2.98	1.362	3.099*	하<중*	교육감 선거	3.20	1.411	5.973**	하<중** 하<상**
중	2.94	1.264				3.20	1.321		
하	2.18	1.131				2.28	1.242		

상	3.58	1.434		하<중*** 하<상***	대통령 선거	3.49	1.487		하<중*** 하<상***
중	3.57	1.333	9.141***			3.55	1.376	9.778***	
하	2.18	1.131				2.32	1.282		
상	3.38	1.406		하<중*** 하<상***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	3.41	1.433		하<중*** 하<상***
중	3.43	1.307	8.498***			3.55	1.299	15.295***	
하	2.12	1.054				2.12	1.013		
상	2.74	1.355		하<중*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선거	2.90	1.334		하<중*
중	2.74	1.233	3.025*			3.02	1.280	4.867**	
하	2.00	1.173				2.24	1.332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이 인식한 주관적 가정환경에 따라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을 확인한 결과, 지방선거(F=19.229, P<.001), 국회의원 선거(F=19.496, P<.001), 교육감선거(F=23.653, P<.001), 대통령선거(F=22.192, P<.001),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F=17.097, P<.001),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정치와 선거(F=5.228, P<.01)에 대한 관심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치와 선거에 대한 참여의향에서는 지방선거(F=25.539, P<.001), 국회의원선거(F=26.449, P<.001), 교육감선거(F=29.537, P<.001), 대통령선거(F=29.532, P<.001),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F=27.524, P<.001),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정치와 선거(F=14.819,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68> 주관적 성적에 따른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

구분	관심				구분	참여의향			
	M	(SD)	F			M	(SD)	F	
상	3.04	1.450			지방선거	3.33	1.395		하<중*** 하<상***
중	2.91	1.195	19.229***	하<중*** 하<상***		3.18	1.289	26.539***	하<중*** 하<상***
하	2.17	1.139				2.27	1.235		
상	3.21	1.462		하<중*** 하<상***	국회의원 선거	3.54	1.394		하<중*** 하<상***
중	2.95	1.228	19.496***			3.23	1.310	26.449***	하<중*** 하<상***
하	2.21	1.180				2.34	1.232		
상	3.24	1.467		하<중*** 하<상***	교육감 선거	3.49	1.425		하<중*** 하<상***
중	2.97	1.249	23.653***			3.24	1.312	29.537***	하<중*** 하<상***
하	2.14	1.155				2.28	1.182		
상	3.82	1.292		하<중*** 하<상***	대통령 선거	3.81	1.350		하<중*** 하<상***
중	3.60	1.320	22.192***			3.58	1.364	29.532***	하<중*** 하<상***
하	2.73	1.422				2.57	1.411		
상	3.72	1.314		하<중*** 하<상***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	3.57	1.442		하<중*** 하<상***
중	3.45	1.291	17.097***			3.58	1.279	27.524***	하<중*** 하<상***
하	2.72	1.451				2.64	1.412		
상	2.87	1.434		하<중** 하<상*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선거	2.96	1.369		하<중*** 하<상**
중	2.76	1.218	5.228**			3.05	1.265	14.819***	하<중*** 하<상**
하	2.36	1.348				2.36	1.332		

충청남도 청소년이 인식한 아버지, 어머니, 나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의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지방선거(F=7.417, P<.01), 국회의원 선거(F=16.923, P<.001), 교육감선거(F=9.128, P<.001), 대통령선거(F=15.830, P<.001),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F=4.517, P<.05)에 대한 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치와 선거에 대한 참여의향에서는 지방선거(F=15.456, P<.001), 국회의원선거(F=21.469, P<.001), 교육감선거(F=12.346, P<.001), 대통령선거(F=16.106, P<.001),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F=6.708, P<.01),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정치와 선거(F=5.173,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지방선거(F=7.039, P<.01), 국회의원 선거(F=16.974, P<.001), 교육감선거(F=10.374, P<.001), 대통령선거(F=12.626, P<.001)에 대한 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정치와 선거에 대한 참여의향에서는 지방선거(F=10.541, P<.001), 국회의원선거(F=16.194, P<.001), 교육감선거(F=9.038, P<.001), 대통령선거(F=12.683, P<.001),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F=3.56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나의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지방선거(F=3.651, P<.05), 국회의원 선거(F=15.960, P<.001), 교육감선거(F=8.198, P<.001), 대통령선거(F=10.530, P<.001),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F=4.454, P<.05),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정치와 선거(F=6.650, P<.01)에 대한 관심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정치와 선거에 대한 참여의향에서는 지방선거(F=7.002, P<.01), 국회의원선거(F=13.285, P<.001), 교육감선거(F=12.277, P<.001), 대통령선거(F=10.960, P<.001),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F=8.247, P<.001),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정치와 선거(F=7.491, P<.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69>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

구분	관심				구분	참여의향				
	M	(SD)	F			M	(SD)	F		
아버지	보수	3.09	1.134	7.417**	중도<진보**	지방선거	3.54	1.152	15.456***	중도<진보*
	중도	2.83	1.197				3.08	1.291		
	진보	3.17	1.278				3.56	1.303		
어머니	보수	3.20	1.069	7.039**	중도<진보**	지방선거	3.47	1.160	10.541***	중도<진보*
	중도	2.84	1.201				3.09	1.289		
	진보	3.16	1.299				3.54	1.383		
나	보수	2.95	1.359	3.651*		지방선거	3.18	1.467	7.002**	
	중도	2.85	1.187				3.10	1.283		
	진보	3.09	1.271				3.47	1.323		
아버지	보수	3.16	1.133	16.921***	중도<진보**	국회의원 선거	3.49	1.203	21.469***	중도<진보*
	중도	2.86	1.209				3.12	1.302		
	진보	3.39	1.372				3.75	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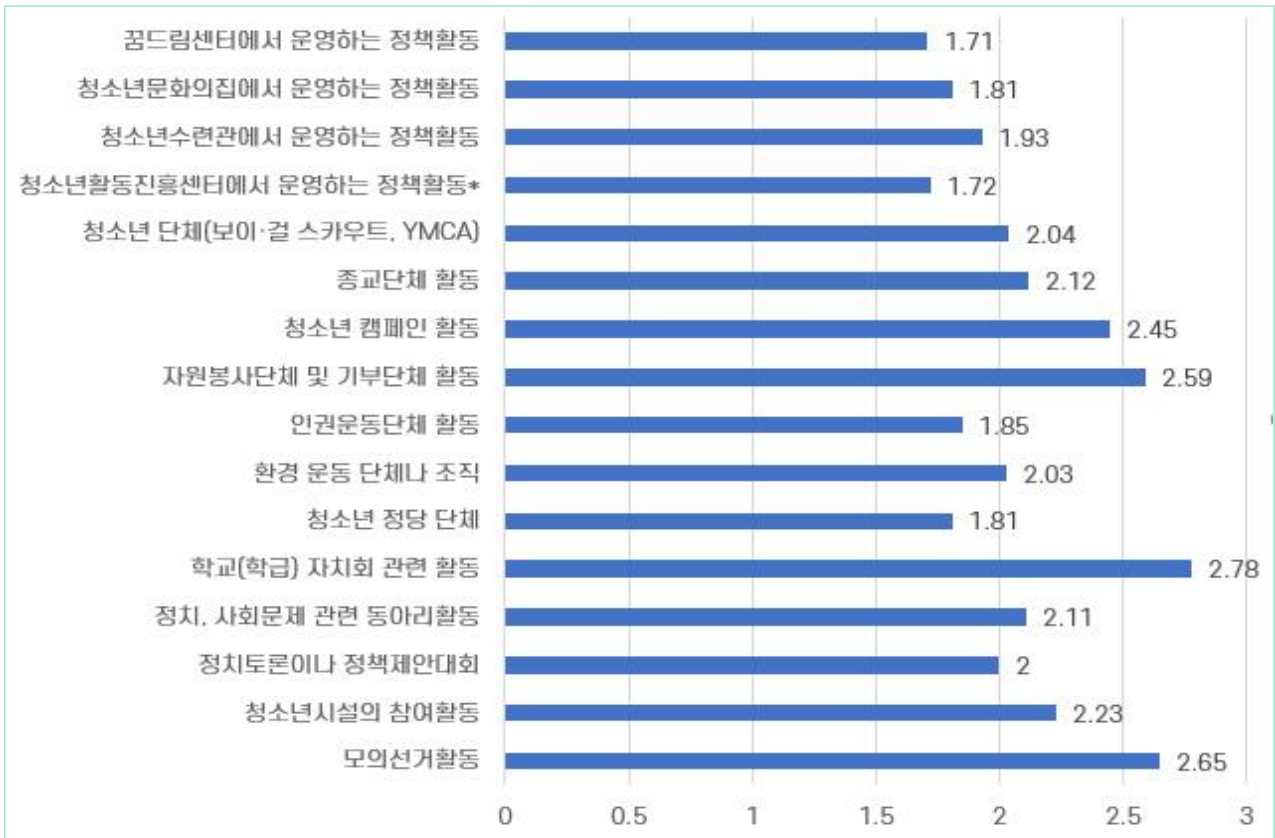
어머니	보수	3.27	1.188	16.974***	중도<진보**		3.40	1.232	16.194***	중도<진보*
	중도	2.87	1.216				3.14	1.304		
	진보	3.42	1.334				3.73	1.347		
나	보수	3.00	1.461	15.960***			3.25	1.492	13.285***	
	중도	2.86	1.199				3.14	1.294		
	진보	3.39	1.315				3.65	1.315		
아버지	보수	3.26	1.233	9.128***	중도<진보*		3.57	1.176	12.346***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2.90	1.238				3.15	1.307		
	진보	3.26	1.332				3.59	1.336		
어머니	보수	3.34	1.311	10.374***	중도<진보**	교육감 선거	3.38	1.114	9.038***	중도<진보*
	중도	2.90	1.239				3.16	1.307		
	진보	3.32	1.347				3.60	1.392		
나	보수	2.92	1.418	8.198***			3.03	1.426	12.277***	
	중도	2.91	1.230				3.16	1.299		
	진보	3.30	1.349				3.64	1.322		
아버지	보수	3.79	1.241	15.830***	중도<진보**		3.86	1.331	16.106***	중도<진보*
	중도	3.49	1.333				3.46	1.371		
	진보	4.05	1.266				4.02	1.287		
어머니	보수	3.88	1.179	12.626***	중도<진보**	대통령 선거	3.70	1.314	12.683***	중도<진보*
	중도	3.51	1.332				3.49	1.373		
	진보	4.02	1.322				4.04	1.328		
나	보수	3.75	1.469	10.530***			3.64	1.560	10.960***	
	중도	3.50	1.324				3.48	1.365		
	진보	3.95	1.259				3.96	1.300		
아버지	보수	3.59	1.272	4.517*	중도<진보**		3.75	1.181	6.708**	중도<진보*
	중도	3.38	1.302				3.49	1.300		
	진보	3.66	1.311				3.82	1.293		
어머니	보수	3.56	1.221	2.106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	3.65	1.140	3.561*	중도<진보*
	중도	3.40	1.300				3.51	1.301		
	진보	3.61	1.355				3.78	1.292		
나	보수	3.02	1.444	4.454*			3.21	1.416	8.247***	
	중도	3.43	1.294				3.51	1.288		
	진보	3.59	1.299				3.86	1.265		
아버지	보수	2.91	1.194	1.816			3.31	1.175	5.173**	중도<진보*
	중도	2.72	1.212				2.98	1.263		
	진보	2.87	1.354				3.23	1.358		
어머니	보수	2.98	1.336	.806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선거	3.30	1.113	1.945	
	중도	2.74	1.211				3.00	1.265		
	진보	2.78	1.391				3.13	1.400		
나	보수	2.25	1.323	6.650**			2.62	1.331	7.491**	
	중도	2.74	1.205				3.00	1.258		
	진보	2.91	1.345				3.29	1.331		

1 정치활동 참여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들에게 유형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경험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은 각각의 정치활동에 전혀없다 1점 - 매우 많다 5점으로 응답하였다.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고 응답한 정치활동은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M=2.78, SD=1.374)이었다. 다음으로는 모의선거활동(M=2.65, SD=1.356),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활동(M=2.59, SD=1.350), 청소년 캠페인 활동(M=2.45, SD=1.283), 청소년시설의 참여활동(M=2.23, SD=1.262), 종교단체 활동(M=2.12, SD=1.296), 정치, 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M=2.11, SD=1.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활동은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M=1.71, SD=1.000),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M=1.72, SD=1.004), 청소년 정당 단체(M=1.81, SD=1.015),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M=1.81, SD=1.067) 등 이었다.

<표 3-70> 정치활동 참여경험

내 용	M	(SD)
모의선거활동	2.65	1.356
청소년시설의 참여활동	2.23	1.262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	2.00	1.341
정치, 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	2.11	1.209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	2.78	1.374
청소년 정당 단체	1.81	1.015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2.03	1.144
인권운동단체 활동	1.85	1.035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활동	2.59	1.350
청소년 캠페인 활동	2.45	1.283
종교단체 활동	2.12	1.296
청소년 단체(보이·걸 스카우트, YMCA)	2.04	1.302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1.72	1.004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1.93	1.144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1.81	1.067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1.71	1.000



[그림 3-11] 정치활동 참여경험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경험

유형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경험을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모의선거활동($T=-1.436$, $P<.001$), 청소년 시설의 참여활동($T=-3.535$, $P<.001$), 정치, 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T=-4.545$, $P<.001$),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T=-10.484$, $P<.001$),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T=-3.320$, $P<.05$),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활동($T=-8.496$, $P<.001$), 청소년 캠페인 활동($T=-7.789$, $P<.001$), 청소년 단체(보이·걸 스카우트, YMCA)($T=-4.14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71> 성별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경험

구분		M	(SD)	T
모의선거활동	남자	2.51	1.320	-1.436***
	여자	2.79	1.377	
청소년시설의 참여활동*	남자	2.11	1.201	-3.535***
	여자	2.32	1.311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	남자	1.95	1.494	-1.667
	여자	2.05	1.199	
정치, 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	남자	1.97	1.126	-4.545***
	여자	2.23	1.268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	남자	2.42	1.297	-10.484***
	여자	3.09	1.375	
청소년 정당 단체	남자	1.82	1.034	.636
	여자	1.79	1.004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남자	1.93	1.100	-3.320*
	여자	2.11	1.179	
인권운동단체 활동	남자	1.81	1.016	-1.520
	여자	1.88	1.052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활동	남자	2.30	1.252	-8.496***
	여자	2.84	1.390	
청소년 캠페인 활동	남자	2.20	1.193	-7.789***
	여자	2.67	1.326	
종교단체 활동	남자	2.06	1.252	-1.633
	여자	2.16	1.334	
청소년 단체(보이·걸 스카우트, YMCA)	남자	1.91	1.202	-4.147***
	여자	2.16	1.380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남자	1.71	.975	-.124
	여자	1.71	1.030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남자	1.92	1.123	-.091
	여자	1.93	1.162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남자	1.77	1.030	-1.270
	여자	1.83	1.097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남자	1.74	1.035	1.413
	여자	1.67	.966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연령에 따라 유형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경험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 시설의 참여활동($F=2.400$, $P<.05$),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F=5.752$, $P<.001$), 정치, 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F=2.940$, $P<.05$), 청소년 정당 단체($F=4.308$, $P<.01$), 인권운동단체 활동($F=3.803$, $P<.01$), 청소년 단체(보이·걸 스카우트, YMCA)($F=2.540$, $P<.05$),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F=5.446$, $P<.001$),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F=5.425$, $P<.001$),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F=4.891$,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주목할 점은 충청남도의 청소년 관련 시설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20세와 19세가 많았다는 것이다.

<표 3-72> 연령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경험

구분		M	(SD)	F	Scheffe
모의선거활동	16세	2.48	1.422	.632	
	17세	2.63	1.309		
	18세	2.67	1.393		
	19세	2.77	1.282		
	20세	3.00	1.581		
청소년시설의 참여활동*	16세	2.05	1.238	2.400*	
	17세	2.21	1.220		
	18세	2.19	1.280		
	19세	2.49	1.301		
	20세	2.60	1.517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	16세	1.57	1.043	5.752***	
	17세	1.90	1.056		
	18세	2.02	1.502		
	19세	2.37	1.339		
	20세	2.80	1.483		
정치, 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	16세	1.68	1.073	2.940*	
	17세	2.06	1.165		
	18세	2.12	1.217		
	19세	2.30	1.304		
	20세	2.60	1.140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	16세	2.55	1.438	.677	
	17세	2.74	1.376		
	18세	2.82	1.381		
	19세	2.79	1.340		
	20세	3.00	1.225		
청소년 정당 단체	16세	1.50	.849	4.308**	
	17세	1.80	.998		
	18세	1.78	.996		
	19세	2.06	1.179		
	20세	2.40	1.140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16세	1.80	1.047	2.163	
	17세	2.01	1.134		
	18세	2.02	1.139		
	19세	2.18	1.197		
	20세	3.00	1.581		
인권운동단체 활동	16세	1.70	.989	3.803**	
	17세	1.81	.985		
	18세	1.83	1.040		
	19세	2.08	1.141		
	20세	2.80	1.304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활동	16세	2.39	1.368	.815	
	17세	2.56	1.351		
	18세	2.58	1.353		
	19세	2.73	1.331		
	20세	2.80	1.304		
청소년 캠페인 활동	16세	2.60	1.417	1.362	
	17세	2.39	1.283		
	18세	2.45	1.279		
	19세	2.63	1.285		
	20세	2.40	1.140		
종교단체 활동	16세	1.89	1.385	1.464	
	17세	2.09	1.277		
	18세	2.11	1.298		
	19세	2.27	1.329		
	20세	3.00	1.633		
청소년 단체(보이·걸 스카우트, YMCA)	16세	1.70	1.173	2.540*	
	17세	1.95	1.292		
	18세	2.09	1.314		
	19세	2.21	1.319		
	20세	2.40	1.342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16세	1.34	.713	5.446***	
	17세	1.70	.984		
	18세	1.69	.995		
	19세	1.97	1.136		
	20세	2.60	1.140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	16세	1.81	1.139	2.347	
	17세	1.95	1.152		
	18세	1.88	1.122		
	19세	2.11	1.185		
	20세	2.80	1.304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	16세	1.34	.713	5.425***	
	17세	1.73	.998		
	18세	1.83	1.099		
	19세	2.02	1.139		
	20세	2.60	1.140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	16세	1.34	.745	4.891**	
	17세	1.70	1.004		
	18세	1.68	.981		
	19세	1.93	1.090		
	20세	2.60	1.140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소속에 따라 유형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경험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시설의 참여활동(T=-2.438, P<.05),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T=-2.255, P<.05), 환경운동 단체나 조직(T=-3.050, P<.05), 인권운동단체 활동(T=-3.264, P<.05), 종교단체 활동(T=-2.554, P<.05),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T=-2.624, P<.05),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T=-2.27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73> 소속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경험

구분		M	(SD)	T
모의선거활동	고등 재학	2.65	1.364	-1.615
	학교 안다님	3.75	1.258	
청소년시설의 참여활동	고등 재학	2.20	1.269	-2.438*
	학교 안다님	3.75	.500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	고등 재학	1.98	1.350	-2.255*
	학교 안다님	3.50	1.291	
정치, 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	고등 재학	2.08	1.203	-2.352
	학교 안다님	3.50	.577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	고등 재학	2.78	1.380	-.323
	학교 안다님	3.00	.816	
청소년 정당 단체	고등 재학	1.78	1.009	-1.922
	학교 안다님	2.75	.957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고등 재학	2.00	1.144	-3.050*
	학교 안다님	3.75	1.258	
인권운동단체 활동	고등 재학	1.82	1.027	-3.264*
	학교 안다님	3.50	.577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활동	고등 재학	2.58	1.356	-1.356
	학교 안다님	3.50	.577	
청소년 캠페인 활동	고등 재학	2.44	1.283	-1.264
	학교 안다님	3.25	.957	
종교단체 활동	고등 재학	2.09	1.296	-2.554*
	학교 안다님	3.75	.957	
청소년 단체(보이·걸 스카우트, YMCA)	고등 재학	2.03	1.305	-.340
	학교 안다님	2.25	1.258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고등 재학	1.69	.997	-2.624*
	학교 안다님	3.00	.816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	고등 재학	1.90	1.139	-1.925
	학교 안다님	3.00	1.155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	고등 재학	1.79	1.067	-2.274*
	학교 안다님	3.00	.816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	고등 재학	1.68	.980	-3.710***
	학교 안다님	3.50	1.291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유형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경험을 확인한 결과, 모의선거활동(F=8.749, P<.001), 청소년시설의 참여활동(F=8.561, P<.001), 청소년 정당 단체(F=5.045, P<.01),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F=5.100, P<.01), 인권운동단체 활동(F=6.153, P<.001), 청소년 캠페인 활동(F=6.174, P<.001), 종교단체 활동(F=7.358, P<.001),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F=6.587, P<.001),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F=10.040, P<.001),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F=5.313, P<.01),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F=4.764,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목할 것은 북부권역이 청소년들이 다른 권역에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정치활동 참여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표 3-74> 거주지역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경험

구분		M	(SD)	F	Scheffe
모의선거활동	북부	2.54	1.340	8.749***	북부<서해안*** 내륙<서해안** 남부<서해안**
	서해안	2.97	1.338		
	내륙	2.61	1.335		
	남부	2.60	1.383		
청소년시설의 참여활동	북부	2.07	1.191	8.561***	북부<서해안*** 남부<서해안** 북부<내륙*
	서해안	2.44	1.308		
	내륙	2.32	1.285		
	남부	2.12	1.258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	북부	1.96	1.121	.573	n.s
	서해안	2.08	1.166		
	내륙	1.99	1.741		
	남부	2.01	1.259		
정치, 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	북부	2.03	1.166	1.400	n.s
	서해안	2.16	1.197		
	내륙	2.16	1.221		
	남부	2.12	1.259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	북부	2.74	1.329	2.363	n.s
	서해안	2.85	1.384		
	내륙	2.88	1.403		
	남부	2.64	1.407		
청소년 정당 단체	북부	1.68	.921	5.045**	북부<서해안** 북부<내륙*
	서해안	1.92	1.055		
	내륙	1.88	1.038		
	남부	1.79	1.069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북부	1.91	1.056	5.100**	북부<서해안* 북부<내륙*
	서해안	2.14	1.177		
	내륙	2.14	1.184		
	남부	1.96	1.183		

인권운동단체 활동	북부	1.72	.939	6.153***	북부<서해안** 북부<내륙**
	서해안	1.96	1.058		
	내륙	1.95	1.087		
	남부	1.81	1.071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활동	북부	2.48	1.315	2.227	-
	서해안	2.69	1.336		
	내륙	2.64	1.361		
	남부	2.59	1.416		
청소년 캠페인 활동	북부	2.28	1.190	6.174***	북부<서해안** 북부<내륙*
	서해안	2.60	1.328		
	내륙	2.54	1.310		
	남부	2.45	1.327		
종교단체 활동	북부	1.91	1.193	7.358***	북부<서해안** 북부<내륙**
	서해안	2.22	1.313		
	내륙	2.25	1.340		
	남부	2.13	1.358		
청소년 단체(보이·걸 스카우트, YMCA)	북부	2.06	1.370	1.644	
	서해안	1.99	1.233		
	내륙	2.14	1.316		
	남부	1.94	1.246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북부	1.58	.886	6.587***	북부<서해안** 북부<내륙**
	서해안	1.83	1.074		
	내륙	1.81	1.035		
	남부	1.68	1.052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	북부	1.76	.999	10.040***	북부<서해안*** 북부<내륙***
	서해안	2.09	1.220		
	내륙	2.07	1.198		
	남부	1.84	1.157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	북부	1.71	.998	5.313**	북부<내륙**
	서해안	1.83	1.057		
	내륙	1.95	1.143		
	남부	1.72	1.038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	북부	1.61	.937	4.764**	북부<서해안* 북부<내륙*
	서해안	1.81	1.059		
	내륙	1.79	1.025		
	남부	1.63	.965		

응답자가 인식한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라 정치활동 참여경험을 확인한 결과, 모의선거활동 ($F=4.272$, $P<.05$),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F=4.317$, $P<.05$),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F=4.752$, $P<.01$), 종교단체 활동($F=3.375$, $P<.05$),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F=5.337$,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75>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경험

구분		M	(SD)	F	Scheffe
모의선거활동	상	2.54	1.360	4.272*	하<중*
	중	2.68	1.356		
	하	1.92	1.152		
청소년시설의 참여활동	상	2.20	1.262	.437	
	중	2.23	1.264		
	하	2.00	1.155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	상	2.08	1.176	.274	
	중	2.00	1.358		
	하	1.88	1.054		
정치, 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	상	2.09	1.249	.674	
	중	2.12	1.211		
	하	1.84	.987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	상	2.89	1.450	4.317*	하<상* 하<중*
	중	2.78	1.373		
	하	2.00	1.080		
청소년 정당 단체	상	2.02	1.151	2.259	
	중	1.79	1.007		
	하	1.80	.913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상	2.32	1.277	4.752**	하<상*
	중	2.02	1.136		
	하	1.64	.860		
인권운동단체 활동	상	2.14	1.211	4.036	하<상*
	중	1.83	1.022		
	하	1.76	.879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활동	상	2.59	1.389	2.706	
	중	2.59	1.349		
	하	1.96	1.172		
청소년 캠페인 활동	상	2.61	1.268	2.067	
	중	2.45	1.287		
	하	2.04	1.136		
종교단체 활동	상	2.33	1.303	3.375*	하<상*
	중	2.11	1.297		
	하	1.60	.866		
청소년 단체(보이·걸 스카우트, YMCA)	상	2.20	1.358	1.649	
	중	2.04	1.306		
	하	1.68	.852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상	1.85	1.101	.936	
	중	1.71	1.000		
	하	1.72	.936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상	2.18	1.290	2.524	
	중	1.92	1.136		
	하	1.80	1.000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상	1.98	1.133	1.406	
	중	1.79	1.063		
	하	1.76	.926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상	2.02	1.161	5.337**	중<상**
	중	1.69	.983		
	하	1.84	1.248		

응답자가 인식한 주관적 성적에 따라 정치활동 참여경험을 확인한 결과, 모의선거활동(F=14.166, P<.001),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F=3.624, P<.05), 정치, 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F=4.507, P<.05),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F=14.375, P<.001), 인권운동단체 활동,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활동, 청소년 캠페인 활동, 종교단체 활동(F=3.375, P<.05), 청소년 단체(보이·걸 스카우트, YMCA)(F=6.744, P<.01),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F=4.939, P<.01),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F=8.153, P<.001),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F=3.034,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76> 주관적 성적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경험

구분		M	(SD)	F	Scheffe
모의선거활동	상	3.09	1.482	14.166***	중<상* 하<상*** 하<중***
	중	2.69	1.352		
	하	2.10	1.121		
청소년시설의 참여활동	상	2.30	1.279	1.770	
	중	2.24	1.272		
	하	2.02	1.089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	상	2.38	1.300	3.624*	하<상*
	중	2.00	1.361		
	하	1.85	1.075		
정치, 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	상	2.49	1.377	4.507*	중<상* 하<상*
	중	2.11	1.206		
	하	1.96	1.100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	상	2.99	1.429	14.375***	
	중	2.82	1.376		
	하	2.13	1.133		
청소년 정당 단체	상	2.03	1.182	2.140	
	중	1.80	1.006		
	하	1.73	.975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상	2.20	1.314	2.714	
	중	2.04	1.138		
	하	1.82	1.079		
인권운동단체 활동	상	2.11	1.211	3.669*	
	중	1.85	1.028		
	하	1.69	.955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활동	상	2.74	1.434	10.512***	하<상** 하<중***
	중	2.62	1.346		
	하	2.04	1.224		
청소년 캠페인 활동	상	2.65	1.297	10.395***	하<상** 하<중***
	중	2.48	1.284		
	하	1.94	1.144		
종교단체 활동	상	2.26	1.283	2.579	하<상** 하<중**
	중	2.13	1.307		
	하	1.87	1.061		
청소년 단체(보이·걸 스카우트, YMCA)	상	2.26	1.314	6.744**	하<상* 하<중*
	중	2.07	1.323		
	하	1.64	.955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상	2.03	1.236	4.939**	하<상*** 하<중**
	중	1.71	1.000		
	하	1.56	.855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상	2.35	1.308	8.153***	
	중	1.93	1.146		
	하	1.66	.902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상	2.07	1.231	3.034*	
	중	1.80	1.060		
	하	1.68	1.002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상	1.96	1.187	2.824	
	중	1.70	.992		
	하	1.62	.957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인식한 아버지, 어머니, 나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치활동 참여경험을 확인한 결과, 먼저, 아버지의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정치성향은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F=5.310,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나의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F=3.943, P<.05), 정치, 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 (F=3.131, P<.01),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F=3.771, P<.01), 청소년 정당 단체(F=5.193, P<.01),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F=6.805, P<.01), 인권운동단체 활동(F=3.593, P<.05),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활동(F=7.091, P<.01), 청소년 캠페인 활동(F=9.585, P<.001),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F=4.624,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77>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경험

구분			M	(SD)	F	Scheffe
모의선거활동	아버지	보수	2.58	1.317	.657	
		중도	2.66	1.349		
		진보	2.76	1.377		
	어머니	보수	2.57	1.298	.469	
		중도	2.67	1.352		
		진보	2.76	1.403		
	나	보수	2.33	1.300	2.314	
		중도	2.67	1.339		
		진보	2.75	1.465		
청소년시설의 참여활동	아버지	보수	2.21	1.286	1.195	
		중도	2.21	1.235		
		진보	2.36	1.424		
	어머니	보수	2.43	1.331	1.928	
		중도	2.21	1.238		
		진보	2.38	1.449		
	나	보수	2.08	1.242	.752	
		중도	2.22	1.242		
		진보	2.30	1.366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	아버지	보수	2.11	1.262	1.548	
		중도	1.99	1.367		
		진보	2.16	1.269		
	어머니	보수	2.17	1.204	5.310**	
		중도	1.97	1.355		
		진보	2.31	1.331		
	나	보수	1.80	1.062	3.943*	중도<진보*
		중도	1.98	1.357		
		진보	2.24	1.317		
정치, 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	아버지	보수	2.29	1.294	1.809	
		중도	2.10	1.181		
		진보	2.23	1.333		
	어머니	보수	2.06	1.150	2.729	
		중도	2.11	1.192		
		진보	2.33	1.387		
	나	보수	2.02	1.396	3.131*	
		중도	2.10	1.169		
		진보	2.32	1.405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	아버지	보수	2.89	1.273	.852	
		중도	2.77	1.367		
		진보	2.88	1.411		

	어머니	보수	2.66	1.203	1.035	
		중도	2.78	1.368		
		진보	2.92	1.440		
	나	보수	2.44	1.385	3.771*	보수<진보*
		중도	2.77	1.355		
		진보	2.97	1.470		
청소년 정당 단체	아버지	보수	1.78	1.038	.318	
		중도	1.82	1.007		
		진보	1.76	1.012		
	어머니	보수	1.70	.931	.755	
		중도	1.82	1.019		
		진보	1.75	1.016		
	나	보수	1.47	.724	5.193**	보수<진보**
		중도	1.80	.991		
		진보	1.94	1.160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아버지	보수	1.99	1.107	.064	
		중도	2.03	1.129		
		진보	2.04	1.260		
	어머니	보수	2.13	1.262	.145	
		중도	2.04	1.142		
		진보	2.03	1.188		
	나	보수	1.59	.844	6.805**	
		중도	2.03	1.120		
		진보	2.20	1.351		
인권운동단체 활동	아버지	보수	1.81	1.057	.076	
		중도	1.85	1.024		
		진보	1.85	1.098		
	어머니	보수	1.89	1.088	.156	
		중도	1.86	1.032		
		진보	1.82	1.098		
	나	보수	1.54	.976	3.593*	
		중도	1.85	1.005		
		진보	1.94	1.193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활동	아버지	보수	2.72	1.406	.737	
		중도	2.58	1.330		
		진보	2.67	1.445		
	어머니	보수	2.51	1.317	.222	
		중도	2.60	1.337		
		진보	2.65	1.474		
	나	보수	2.10	1.300	7.091**	보수<진보** 보수<중도*
		중도	2.58	1.325		
		진보	2.82	1.496		

청소년 캠페인 활동	아버지	보수	2.46	1.299	.329	
		중도	2.43	1.274		
		진보	2.63	1.343		
	어머니	보수	2.43	1.331	.175	
		중도	2.46	1.288		
		진보	2.51	1.289		
	나	보수	1.90	1.044	9.585***	보수<진보*** 보수<중도** 중도<진보*
		중도	2.44	1.270		
		진보	2.71	1.398		
종교단체 활동	아버지	보수	2.04	1.259	.303	
		중도	2.13	1.287		
		진보	2.07	1.355		
	어머니	보수	2.17	1.324	2.090	
		중도	2.14	1.297		
		진보	1.93	1.285		
	나	보수	1.79	1.226	2.334	
		중도	2.13	1.284		
		진보	2.06	1.367		
청소년 단체(보이·걸 스카우트, YMCA)	아버지	보수	2.04	1.347	2.105	
		중도	2.03	1.263		
		진보	2.23	1.561		
	어머니	보수	1.96	1.215	.178	
		중도	2.05	1.299		
		진보	2.09	1.410		
	나	보수	1.70	1.160	2.691	
		중도	2.05	1.290		
		진보	2.15	1.423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아버지	보수	1.76	1.094	.537	
		중도	1.73	1.002		
		진보	1.65	.998		
	어머니	보수	1.74	1.010	1.178	
		중도	1.73	1.006		
		진보	1.61	1.006		
	나	보수	1.46	.959	2.610	
		중도	1.71	.974		
		진보	1.79	1.167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아버지	보수	1.85	1.167	.200	
		중도	1.93	1.133		
		진보	1.92	1.215		
	어머니	보수	2.00	1.216	1.565	
		중도	1.95	1.140		
		진보	1.79	1.174		

	나	보수	1.79	1.226	1.251	
		중도	1.92	1.109		
		진보	2.03	1.338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아버지	보수	1.71	1.054	.432	
		중도	1.81	1.057		
		진보	1.76	1.076		
	어머니	보수	1.81	1.096	.145	
		중도	1.81	1.059		
		진보	1.76	1.108		
나	보수	1.64	1.141	1.454		
	중도	1.79	1.030			
	진보	1.89	1.221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아버지	보수	1.61	.972	.350	
		중도	1.71	.986		
		진보	1.69	1.038		
	어머니	보수	1.72	1.117	.833	
		중도	1.72	.995		
		진보	1.62	.994		
	나	보수	1.38	.820	4.624*	보수<진보* 보수<중도*
		중도	1.70	.964		
		진보	1.82	1.220		

1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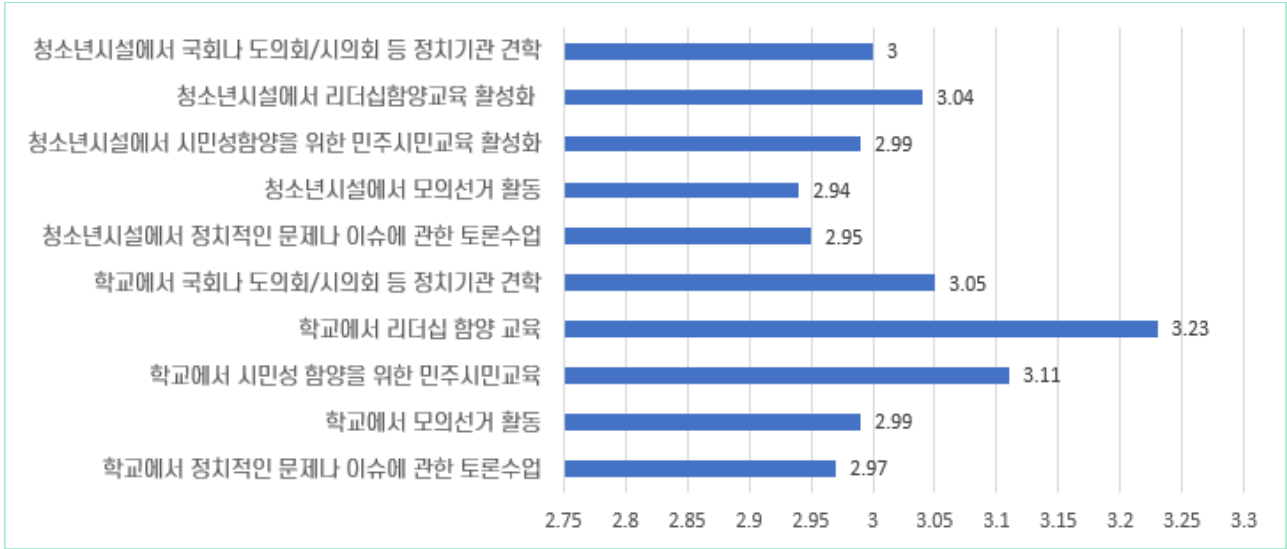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본 설문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의 정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필요하다’ 5점으로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M=3.23, SD=1.14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M=3.11, SD=1.157),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M=3.05, SD=1.173),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M=3.23, SD=1.145),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M=3.00, SD=1.151),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M=2.93, SD=1.117)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학교나 청소년시설에서의 모의선거활동이나 정치적 문제나 이슈에 대한 토론수업에 대한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참여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투입(input) 과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국민과 대의기관을 연계하고, 선출직 대표자와 민주적 대의제도에 대한 평가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 책임성의 기본원리를 구현한다(Almond and Verba 1965; Verba and Nie 1972).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높이는 정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78>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내 용	M	(SD)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2.97	1.155
학교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2.99	1.124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3.11	1.157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	3.23	1.145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3.05	1.173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2.95	1.157
청소년시설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2.94	1.199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2.99	1.117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	3.04	1.125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3.00	1.151



[그림 3-12]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T=-9.115, P<.001$), 학교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T=-10.233, P<.001$),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T=-11.572, P<.001$),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T=-11.258, P<.001$),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T=-11.272, P<.001$),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T=-10.122, P<.001$), 청소년시설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T=-10.555, P<.001$),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T=-11.653, P<.001$),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 함양교육 활성화($T=-10.818, P<.001$),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T=-11.849,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79> 성별에 따른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T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남자	2.71	1.167	-9.115***
	여자	3.19	1.096	
학교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남자	2.71	1.140	-10.233***
	여자	3.24	1.051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남자	2.79	1.163	-11.572***
	여자	3.40	1.072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	남자	2.91	1.174	-11.258***
	여자	3.50	1.045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남자	2.73	1.176	-11.272***
	여자	3.33	1.095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남자	2.67	1.166	-10.122***
	여자	3.21	1.090	
청소년시설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남자	2.62	1.102	-10.555***
	여자	3.21	1.218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남자	2.67	1.128	-11.653***
	여자	3.27	1.032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	남자	2.75	1.127	-10.818***
	여자	3.30	1.059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남자	2.67	1.149	-11.849***
	여자	3.29	1.073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F=2.521, P<.05$),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F=3.237, P<.05$),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F=3.690, P<.05$),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F=4.100, P<.01$),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F=2.970,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80> 연령에 따른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16세	2.55	1.210	2.521*	n.s
	17세	2.99	1.133		
	18세	2.94	1.160		
	19세	3.09	1.186		
	20세	3.60	.548		
학교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16세	2.70	1.193	1.385	n.s
	17세	3.00	1.079		
	18세	2.98	1.138		
	19세	3.13	1.180		
	20세	2.80	1.483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16세	2.68	1.196	3.237*	n.s
	17세	3.08	1.130		
	18세	3.11	1.153		
	19세	3.33	1.228		
	20세	2.80	1.095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	16세	2.89	1.205	1.615	n.s
	17세	3.24	1.124		
	18세	3.21	1.149		
	19세	3.36	1.177		
	20세	3.00	1.225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16세	2.70	1.212	1.494	n.s
	17세	3.09	1.152		
	18세	3.02	1.183		
	19세	3.13	1.168		
	20세	2.80	1.483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16세	2.66	1.311	1.896	n.s
	17세	2.97	1.129		
	18세	2.92	1.162		
	19세	3.13	1.183		
	20세	3.00	1.414		
청소년시설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16세	2.57	1.108	2.261	n.s
	17세	2.96	1.093		
	18세	2.91	1.268		
	19세	3.10	1.188		
	20세	2.40	1.342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16세	2.45	1.044	3.690**	n.s
	17세	3.01	1.064		
	18세	2.97	1.136		
	19세	3.16	1.197		
	20세	2.80	1.095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	16세	2.45	1.130	4.100**	n.s
	17세	3.08	1.086		
	18세	3.02	1.127		
	19세	3.20	1.200		
	20세	3.00	1.581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16세	2.45	1.170	2.970*	n.s
	17세	3.04	1.113		
	18세	2.99	1.166		
	19세	3.08	1.162		
	20세	3.20	1.483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소속에 따라 확인한 결과,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T=-2.171$, $P<.05$)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81> 소속에 따른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T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고등 재학	2.97	1.157	-480
	학교 안다님	3.25	.957	
학교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고등 재학	3.00	1.122	-896
	학교 안다님	3.50	1.291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등 재학	3.12	1.155	-227
	학교 안다님	3.25	.500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	고등 재학	3.23	1.140	-1.348
	학교 안다님	4.00	.000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고등 재학	3.05	1.170	-1.616
	학교 안다님	4.00	1.414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고등 재학	2.95	1.158	-1.802
	학교 안다님	4.00	1.155	
청소년시설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고등 재학	2.94	1.202	-515
	학교 안다님	3.25	1.708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등 재학	2.99	1.115	-473
	학교 안다님	3.25	.957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	고등 재학	3.05	1.114	-1.257
	학교 안다님	3.75	1.258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고등 재학	3.01	1.145	-2.171*
	학교 안다님	4.25	.957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F=3.307, P<.05$), 학교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F=3.605, P<.05$),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F=3.215, P<.05$),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F=4.205, P<.05$),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F=5.274, P<.05$),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F=4.192, P<.05$), 청소년시설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F=5.020, P<.05$),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F=25.142, P<.05$),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F=5.079, P<.05$),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F=5.196, P<.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82> 거주 지역에 따른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북부	2.85	1.171	3.307*	n.s
	서해안	3.01	1.131		
	내륙	3.03	1.126		
	남부	3.05	1.163		

학교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북부	2.88	1.123	3.605*	n.s
	서해안	3.07	1.112		
	내륙	3.07	1.089		
	남부	3.05	1.152		
	북부	3.00	1.174	3.215*	n.s
	서해안	3.14	1.150		
내륙	3.20	1.102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남부	3.19	1.169		
	북부	3.10	1.147	4.205**	n.s
	서해안	3.24	1.116		
내륙	3.33	1.118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	남부	3.31	1.169		
	북부	2.91	1.180	5.274**	n.s
	서해안	3.09	1.173		
내륙	3.18	1.125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남부	3.09	1.188		
	북부	2.82	1.177	4.192**	n.s
	서해안	3.01	1.133		
내륙	3.05	1.123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남부	3.01	1.177		
	북부	2.80	1.354	5.020**	n.s
	서해안	2.99	1.112		
내륙	3.07	1.073			
청소년시설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남부	2.99	1.147		
	북부	2.87	1.146	5.142**	북부<내륙**
	서해안	2.97	1.105		
내륙	3.13	1.055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남부	3.07	1.130		
	북부	2.90	1.115	5.079**	북부<내륙**
	서해안	3.07	1.108		
내륙	3.15	1.093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	남부	3.12	1.165		
	북부	2.87	1.181	5.196**	북부<내륙**
	서해안	3.08	1.148		
내륙	3.13	1.103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남부	3.01	1.130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F=4.575$, $P<.05$), 학교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F=7.143$, $P<.01$),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F=6.788$, $P<.01$),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F=9.959$, $P<.001$),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F=6.286$, $P<.01$),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F=5.165$, $P<.01$), 청소년시설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F=4.664$, $P<.05$),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F=7.831$, $P<.001$),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F=7.675$, $P<.001$),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F=6.991$, $P<.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83>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상	2.97	1.244	4.575*	하<상* 하<중*
	중	2.98	1.141		
	하	2.28	1.208		
학교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상	2.87	1.193	7.143**	하<상* 하<중*
	중	3.01	1.113		
	하	2.20	1.155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상	2.98	1.306	6.788**	하<상* 하<중*
	중	3.13	1.138		
	하	2.32	1.215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	상	3.17	1.311	9.959***	하<상** 하<중***
	중	3.24	1.124		
	하	2.21	1.103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상	2.88	1.267	6.286**	하<상* 하<중**
	중	3.07	1.157		
	하	2.32	1.314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상	2.96	1.228	5.165**	하<상* 하<중**
	중	2.97	1.147		
	하	2.21	1.103		
청소년시설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상	2.85	1.265	4.664*	하<중*
	중	2.95	1.192		
	하	2.24	1.091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상	2.97	1.218	7.831***	하<상** 하<중***
	중	3.00	1.103		
	하	2.12	1.013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	상	2.94	1.328	7.675***	하<상* 하<중**
	중	3.06	1.105		
	하	2.20	1.080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상	3.00	1.314	6.991**	하<상** 하<중**
	중	3.02	1.132		
	하	2.16	1.179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이 인식한 주관적 성적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F=21.842, P<.001), 학교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F=23.240, P<.001),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F=26.988, P<.001),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F=23.898, P<.001),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F=21.903, P<.001),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F=18.457, P<.001), 청소년시설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F=16.783, P<.001),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F=25.857, P<.001),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F=20.081, P<.001),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F=20.276,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84> 주관적 성적에 따른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상	3.22	1.417	21.842***	하<상*** 하<중***
	중	3.01	1.124		
	하	2.31	1.138		
학교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상	3.25	1.341	23.240***	하<상*** 하<중***
	중	3.03	1.098		
	하	2.33	1.078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상	3.49	1.387	26.988***	하<상*** 하<중***
	중	3.15	1.123		
	하	2.40	1.127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	상	3.56	1.374	23.898***	하<상*** 하<중***
	중	3.26	1.103		
	하	2.56	1.260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상	3.18	1.437	21.903***	하<상*** 하<중***
	중	3.09	1.140		
	하	2.36	1.176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상	3.32	1.412	18.457***	하<상*** 하<중***
	중	2.98	1.130		
	하	2.38	1.136		
청소년시설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상	3.22	1.357	16.783***	하<상*** 하<중***
	중	2.97	1.182		
	하	2.35	1.116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상	3.47	1.326	25.857***	하<상*** 하<중***
	중	3.01	1.087		
	하	2.37	1.075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	상	3.51	1.367	20.081***	중<상** 하<상*** 하<중***
	중	3.06	1.087		
	하	2.51	1.214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상	3.27	1.368	20.276***	하<상*** 하<중***
	중	3.04	1.121		
	하	2.38	1.147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이 인식한 아버지, 어머니, 나의 정치적 성향 따라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확인한 결과, 먼저, 아버지의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F=14.524, P<.001),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F=12.490, P<.001),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F=11.216, P<.001),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F=7.653, P<.001),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F=12.881, P<.001),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F=6.919, P<.01),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F=4.471, P<.05),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F=4.800,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F=18.771, P<.001), 학교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F=3.175, P<.05),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F=10.586, P<.001),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F=7.605, P<.01),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 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F=5.986, P<.01),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F=14.430, P<.001),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F=6.763, P<.01),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F=3.249, P<.05),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F=4.635,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F=8.160, P<.001), 학교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F=3.092, P<.05),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F=6.708, P<.01),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F=7.076, P<.01),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F=6.736, P<.01),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F=7.313, P<.01), 청소년시설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F=3.102, P<.05),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F=5.426, P<.01),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F=3.667, P<.05),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F=4.293,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85>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아버지	보수	3.29	1.192	14.524***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2.91	1.116		
		진보	3.33	1.263		
	어머니	보수	3.43	.994	18.771***	중도<보수* 중도<진보***
		중도	2.92	1.120		
		진보	3.42	1.289		
	나	보수	3.07	1.195	8.160***	중도<진보***
		중도	2.93	1.121		
		진보	3.27	1.236		

학교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아버지	보수	3.15	1.070	2.721	
		중도	2.98	1.100		
		진보	3.16	1.217		
	어머니	보수	3.15	1.021	3.175*	
		중도	2.99	1.106		
		진보	3.21	1.210		
	나	보수	2.89	1.112	3.092*	
		중도	2.99	1.097		
		진보	3.18	1.218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아버지	보수	3.39	1.145	12.490***	중도<진보***
		중도	3.07	1.123		
		진보	3.47	1.235		
	어머니	보수	3.47	1.139	10.586***	중도<진보***
		중도	3.09	1.129		
		진보	3.46	1.217		
	나	보수	3.00	1.211	6.708**	중도<진보**
		중도	3.09	1.131		
		진보	3.40	1.192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	아버지	보수	3.53	.949	11.216***	중도<진보***
		중도	3.19	1.115		
		진보	3.54	1.215		
	어머니	보수	3.60	1.035	7.605**	중도<진보**
		중도	3.20	1.117		
		진보	3.49	1.205		
	나	보수	3.34	1.153	7.076**	중도<진보**
		중도	3.20	1.115		
		진보	3.51	1.194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아버지	보수	3.31	1.158	7.653***	중도<진보**
		중도	3.02	1.134		
		진보	3.32	1.289		
	어머니	보수	3.40	1.136	5.986**	중도<진보*
		중도	3.04	1.138		
		진보	3.30	1.319		
	나	보수	3.00	1.183	6.736**	중도<진보**
		중도	3.03	1.134		
		진보	3.35	1.282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활성화	아버지	보수	3.25	1.160	12.881***	중도<진보***
		중도	2.91	1.119		
		진보	3.31	1.255		
	어머니	보수	3.28	1.097	14.430***	중도<진보***
		중도	2.93	1.121		
		진보	3.39	1.281		

	나	보수	2.98	1.310	7.313**	중도<진보**
		중도	2.93	1.122		
		진보	3.27	1.232		
청소년시설에서 모의선거 활동 활성화	아버지	보수	3.03	1.048	2.856	
		중도	2.93	1.194		
		진보	3.14	1.217		
	어머니	보수	2.91	1.158	1.882	
		중도	2.95	1.189		
		진보	3.13	1.242		
나	보수	2.72	1.067	3.102*		
	중도	2.94	1.193			
	진보	3.12	1.224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아버지	보수	3.15	1.159	6.919**	
		중도	2.97	1.080		
		진보	3.26	1.205		
	어머니	보수	3.13	1.135	6.763**	중도<진보**
		중도	2.98	1.088		
		진보	3.30	1.206		
	나	보수	2.77	1.160	5.426**	보수<진보* 중도<진보**
		중도	2.99	1.085		
		진보	3.22	1.204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	아버지	보수	3.07	1.066	4.471*	중도<진보**
		중도	3.03	1.087		
		진보	3.28	1.233		
	어머니	보수	3.17	1.167	3.249*	중도<진보*
		중도	3.04	1.090		
		진보	3.26	1.241		
	나	보수	2.95	1.175	3.667*	중도<진보*
		중도	3.03	1.087		
		진보	3.25	1.222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아버지	보수	3.17	1.138	4.800**	중도<진보*
		중도	2.98	1.111		
		진보	3.23	1.273		
	어머니	보수	3.32	1.235	4.635*	중도<진보*
		중도	2.99	1.117		
		진보	3.22	1.273		
	나	보수	2.85	1.195	4.293*	중도<진보*
		중도	3.00	1.110		
		진보	3.23	1.291		

1 정치효능감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을 1점 매우 그렇다 - 5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정치효능감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충청남도 청소년들은 2.98점(SD=.751)으로 확인되어 비교적 높은 정치효능감을 보이고 있었다.

<표 3-86> 정치효능감

내 용	M	(SD)
정치효능감	2.98	.751

<표 3-87> 구성 요인에 따른 정치효능감

내 용	M	(SD)
복잡한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	2.89	1.058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참견하지 않아야 한다.	3.42	1.028
정치인은 따로 있으므로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3.56	1.083
정치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3.02	1.061
투표를 하든 안하든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3.34	1.136
정치는 나 같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3.20	1.096
무엇을 바라는지 정치인들은 신경쓰지 않는다.	2.70	1.097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 되든지 정치활동은 다 똑같다.	3.07	1.159
정치인들은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2.71	1.062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유권자의 표에만 관심을 갖는다.	2.63	1.443
정치인들은 선거 당선 후에는 시민들의 바람을 빨리 잊어버린다.	2.55	1.054
투표는 내가 정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69	1.121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정치효능감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성별 (T=-4.212, P<.001)과 거주권역(F=3.221, P<.05), 주관적 학업성적(F=8.263, P<.001)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 외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88>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정치효능감

구분		M	(SD)	T/F	Scheffe
성별					
	남자	2.90	.804	-4.212***	
	여자	3.05	.699		
연령					
	16세	3.13	.913	.850	
	17세	2.98	.717		
	18세	2.97	.765		
	19세	2.96	.765		
	20세	3.38	.798		
소속					
	고등학교 재학 중	2.97	.748	-.722	
	학교에 다니지 않음.	3.25	.824		
거주 지역(권역)					
	북부	2.95	.763	3.221*	
	서해안	3.07	.742		
	내륙	2.99	.712		
	남부	2.90	.773		
주관적 가정형편 (경제적 수준)					
	상	3.01	.906	.182	
	중	2.97	.732		
	하	2.92	1.205		
주관적 학업성적					
	상	3.08	.922	8.263***	하<상** 하<중**
	중	2.99	.715		
	하	2.70	1.009		
정치적 성향					
아버지	보수	3.03	.603	2.136	
	중도	2.97	.737		
	진보	3.08	.757		
어머니	보수	3.05	.672	2.346	
	중도	2.97	.734		
	진보	3.09	.779		
나	보수	2.87	.802	1.756	
	중도	2.98	.724		
	진보	3.06	.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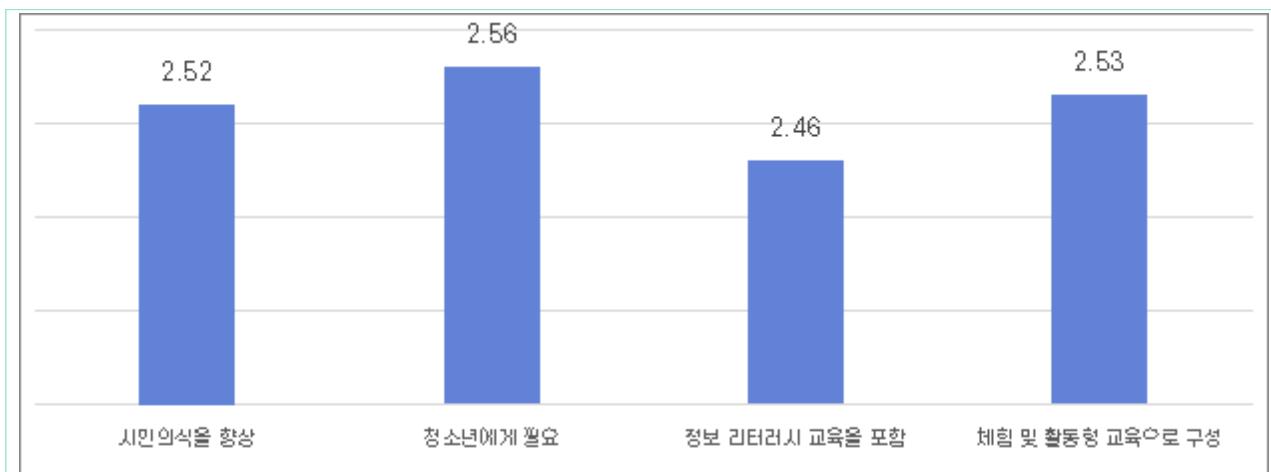
16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의견

1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의견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에게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의견을 1점 매우 그렇다 -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확인한 결과,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에게 필요하다는 응답은 2.44 (SD=.949)로 민주시민교육이 청소년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시민 교육은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며(M=2.48, SD=.914), 체험 및 활동형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M=2.47, SD=.969) 인식하고 있었다.

<표 3-89>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

내 용	M	(SD)
시민의식을 향상	2.48	.914
청소년에게 필요	2.44	.949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	2.54	.947
체험 및 활동형 교육으로 구성	2.47	.969



[그림 3-13]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식을 향상시킨다(T=7.259, P<.001),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에게 필요하다(T=8.754, P<.001),

민주시민교육을 정보리터러시 교유에 포함해야 한다(T=8.041, P<.001), 민주시민교육은 체험 및 활동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T=8.829,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90>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T
시민의식을 향상	남자	2.64	.950	7.259***
	여자	2.33	.856	
청소년에게 필요	남자	2.64	.970	8.754***
	여자	2.26	.892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	남자	2.73	.972	8.041***
	여자	2.37	.897	
체험 및 활동형 교육으로 구성	남자	2.68	.999	8.829***
	여자	2.28	.902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확인한 결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는 의견(F=2.493,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91> 연령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시민의식을 향상	16세	2.77	1.008	2.254	
	17세	2.42	.889		
	18세	2.50	.902		
	19세	2.41	1.006		
	20세	2.80	1.483		
청소년에게 필요	16세	2.64	1.080	2.493*	
	17세	2.42	.919		
	18세	2.46	.945		
	19세	2.29	1.024		
	20세	3.20	1.095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	16세	2.68	1.029	1.784	
	17세	2.52	.905		
	18세	2.56	.955		
	19세	2.39	1.016		
	20세	3.00	1.414		
체험 및 활동형 교육으로 구성	16세	2.73	1.065	1.841	
	17세	2.43	.944		
	18세	2.50	.966		
	19세	2.37	1.002		
	20세	2.80	1.483		

응답자의 소속에 따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의 확인한 결과, 민주시민교육은 체험 및 활동형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T=1.993$,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92> 소속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T
시민의식을 향상	고등 재학	2.47	.910	1.033
	학교 안다님	2.00	.816	
청소년에게 필요	고등 재학	2.43	.945	.907
	학교 안다님	2.00	.816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	고등 재학	2.53	.945	1.121
	학교 안다님	2.00	1.155	
체험 및 활동형 교육으로 구성	고등 재학	2.46	.965	1.993*
	학교 안다님	1.50	.577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민주시민교육을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F=2.994$,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93> 거주지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시민의식을 향상	북부	2.53	.926	1.771	
	서해안	2.45	.924		
	내륙	2.46	.902		
	남부	2.38	.875		
청소년에게 필요	북부	2.50	.976	2.552	
	서해안	2.43	.951		
	내륙	2.42	.920		
	남부	2.33	.918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	북부	2.62	.979	2.994*	
	서해안	2.52	.933		
	내륙	2.49	.907		
	남부	2.45	.936		
체험 및 활동형 교육으로 구성	북부	2.54	1.008	1.747	
	서해안	2.43	.959		
	내륙	2.42	.927		
	남부	2.43	.933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의견을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이 인식한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라 확인한 결과,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식을 향상시킨다($F=6.319$, $P<.01$),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에게 필요하다($F=4.025$, $P<.05$), 민주시민교육을 정보리터러시 교유에 포함해야 한다($F=3.451$, $P<.05$), 민주시민교육은 체험 및 활동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F=4.506$, $P<.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94>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시민의식을 향상	상	2.50	.984	6.319**	상<하* 중<하*
	중	2.47	.901		
	하	3.12	1.301		
청소년에게 필요	상	2.50	1.016	4.025*	중<하*
	중	2.43	.940		
	하	2.96	1.306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	상	2.67	1.053	3.451*	
	중	2.53	.936		
	하	2.96	1.274		
체험 및 활동형 교육으로 구성	상	2.52	1.046	4.506*	중<하*
	중	2.46	.959		
	하	3.04	1.241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의 주관적 성적 인식에 따라 확인한 결과,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식을 향상시킨다(F=13.285, P<.001),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에게 필요하다(F=9.147, P<.001), 민주시민교육을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F=8.663, P<.001), 민주시민교육은 체험 및 활동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F=7.355, P<.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95> 주관적 성적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시민의식을 향상	상	2.11	.915	13.285***	상<중** 상<하*** 중<하**
	중	2.47	.892		
	하	2.80	1.045		
청소년에게 필요	상	2.14	1.011	9.147***	상<중* 상<하*** 중<하**
	중	2.43	.932		
	하	2.73	1.020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	상	2.28	1.027	8.663***	상<하*** 중<하**
	중	2.53	.932		
	하	2.84	.996		
체험 및 활동형 교육으로 구성	상	2.15	1.043	7.355**	상<중* 상<하** 중<하*
	중	2.47	.948		
	하	2.70	1.085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이 인식한 아버지, 어머니, 나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먼저 아버지의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식을

향상시킨다(F=8.306, P<.001),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에게 필요하다(F=9.457, P<.001), 민주시민교육을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F=7.988, P<.001), 민주시민교육은 체험 및 활동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F=7.330, P<.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에게 필요하다(F=3.855, P<.05), 민주시민교육은 체험 및 활동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F=3.309,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나의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식을 향상시킨다(F=4.403, P<.05),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에게 필요하다(F=5.778, P<.01), 민주시민교육은 체험 및 활동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F=4.17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96> 정치성향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시민의식을 향상	아버지	보수	2.57	1.072	8.306***	진보<보수* 진보<중도***
		중도	2.50	.867		
		진보	2.23	.991		
	어머니	보수	2.30	.976	2.737	
		중도	2.48	.881		
		진보	2.35	1.018		
	나	보수	2.74	.929	4.403*	진보<보수*
		중도	2.47	.866		
		진보	2.36	1.070		
청소년에게 필요	아버지	보수	2.50	1.021	9.457***	진보<보수* 진보<중도***
		중도	2.47	.916		
		진보	2.16	1.000		
	어머니	보수	2.28	1.057	3.855*	진보<중도*
		중도	2.45	.915		
		진보	2.26	1.078		
	나	보수	2.70	.972	5.778**	진보<보수**
		중도	2.45	.908		
		진보	2.27	1.083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	아버지	보수	2.57	.990	7.988***	진보<중도*** 진보<중도*
		중도	2.57	.910		
		진보	2.29	.984		
	어머니	보수	2.47	1.060	1.623	
		중도	2.54	.914		
		진보	2.41	1.037		
	나	보수	2.69	.958	2.062	
		중도	2.54	.906		
		진보	2.44	1.078		
체험 및 활동형 교육으로 구성	아버지	보수	2.50	1.035	7.330**	진보<중도**
		중도	2.50	.939		
		진보	2.22	.951		
	어머니	보수	2.23	1.026	3.309*	
		중도	2.48	.935		
		진보	2.33	1.037		
	나	보수	2.78	1.027	4.172*	진보<보수* 중도<보수*
		중도	2.46	.925		
		진보	2.38	1.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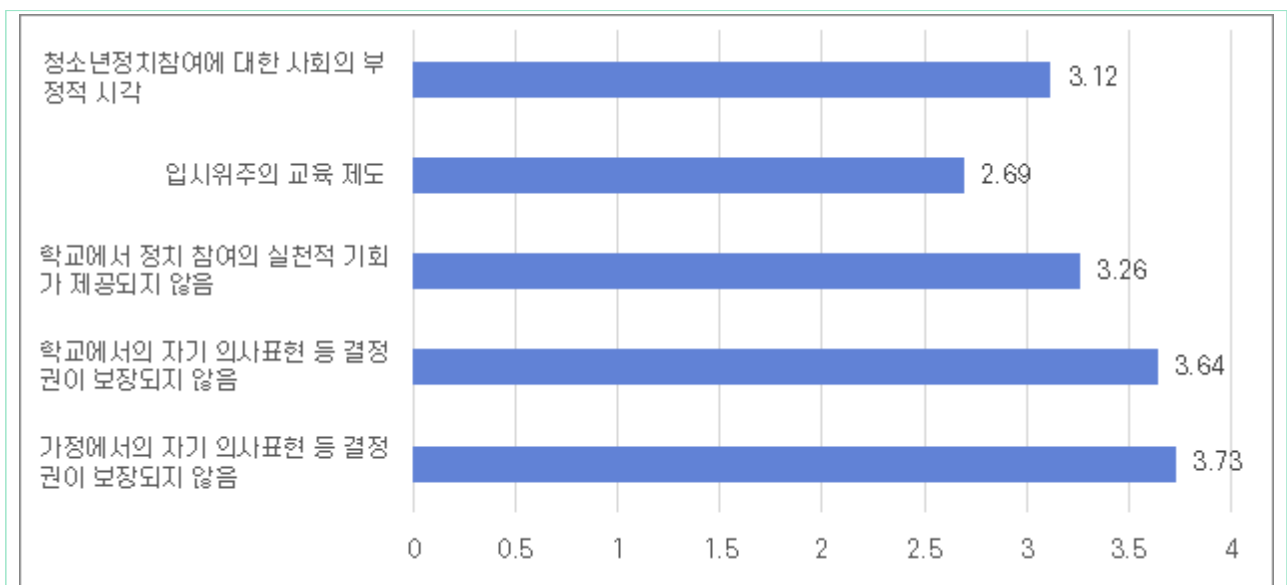
17 정치참여 저해 요인

①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에게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매우 그렇다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M=2.69, SD=1.166)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M=3.12, SD=1.046), 학교에서 정치 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M=3.26, SD=1.291),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M=3.64, SD=1.601),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M=3.73, SD=1.07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7>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

내 용	M	(SD)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3.73	1.079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3.64	1.601
학교에서 정치 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3.26	1.291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2.69	1.166
청소년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3.12	1.046



[그림 3-15]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

②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T=-4.439$, $P<.001$),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T=-3.434$, $P<.01$),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T=-4.755$, $P<.001$),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T=-2.146$,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3-98>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T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남자	3.61	1.104	-4.439***
	여자	3.84	1.044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남자	3.50	1.087	-3.434**
	여자	3.76	1.946	
학교에서 정치 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남자	3.27	1.496	.369
	여자	3.25	1.083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남자	2.83	1.142	4.755***
	여자	2.57	1.174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남자	3.06	1.082	-2.146*
	여자	3.17	1.009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99> 연령에 따른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16세	3.70	1.173	.293	
	17세	3.74	1.056		
	18세	3.74	1.079		
	19세	3.65	1.142		
	20세	3.60	1.517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16세	3.70	1.133	.163	
	17세	3.62	1.024		
	18세	3.67	1.970		
	19세	3.59	1.149		
	20세	3.80	1.095		

학교에서 정치 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16세	3.64	1.163	1.201	
	17세	3.26	1.056		
	18세	3.23	1.456		
	19세	3.31	1.127		
	20세	3.60	1.140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16세	3.00	1.239	.980	
	17세	2.72	1.110		
	18세	2.66	1.192		
	19세	2.70	1.212		
	20세	2.80	.837		
청소년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16세	3.50	1.151	1.603	
	17세	3.12	1.010		
	18세	3.11	1.055		
	19세	3.10	1.075		
	20세	3.40	1.140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소속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100> 소속에 따른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T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고등 재학	3.75	1.072	1.856
	학교 안다님	2.75	1.500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고등 재학	3.66	1.630	-.116
	학교 안다님	3.75	1.258	
학교에서 정치 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고등 재학	3.26	1.302	-.374
	학교 안다님	3.50	1.291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고등 재학	2.68	1.167	-.264
	학교 안다님	3.75	.957	
청소년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고등 재학	3.11	1.042	-.264
	학교 안다님	3.25	1.708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101> 거주지역에 따른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북부	3.76	1.084	.320	

보장되지 않음	서해안	3.69	1.106		
	내륙	3.74	1.080		
	남부	3.73	1.046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북부	3.62	1.049	1.591	
	서해안	3.64	1.062		
	내륙	3.77	2.578		
학교에서 정치 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남부	3.53	1.059	2.518	
	북부	3.15	1.077		
	서해안	3.31	1.097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내륙	3.35	1.060	1.759	
	남부	3.24	1.960		
	북부	2.63	1.200		
청소년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서해안	2.69	1.178	.983	
	내륙	2.79	1.121		
	남부	2.66	1.148		
	북부	3.08	1.067		
	서해안	3.14	1.072		
	내륙	3.17	.999		
	남부	3.07	1.040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이 인식한 가정형편에 따른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은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F=3.848, P<.05$),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F=3.430, P<.05$), 입시위주의 교육제도($F=3.199,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102> 주관적 가정환경에 따른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상	3.66	1.186	3.848*	
	중	3.74	1.065		
	하	3.16	1.344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상	3.48	1.179	3.430*	
	중	3.66	1.629		
	하	2.88	1.394		
학교에서 정치 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상	3.19	1.173	.274	
	중	3.26	1.299		
	하	3.12	1.364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상	2.79	1.196	3.199*	
	중	2.68	1.161		
	하	3.24	1.300		
청소년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상	3.09	1.161	.499	
	중	3.11	1.035		
	하	3.32	1.314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이 인식한 성적에 따른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은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F=8.206, P<.001$),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F=5.281, P<.01$), 학교에서 정치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F=5.568,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103> 주관적 성적에 따른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상	3.57	1.251	8.206***	하<중**
	중	3.76	1.055		
	하	3.36	1.220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상	3.42	1.194	5.281**	하<중*
	중	3.68	1.646		
	하	3.21	1.156		
학교에서 정치 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상	2.86	1.231	5.568**	상<중*
	중	3.28	1.302		
	하	3.03	1.132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상	2.51	1.357	1.150	
	중	2.70	1.155		
	하	2.77	1.160		
청소년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상	2.95	1.279	1.592	
	중	3.13	1.026		
	하	3.02	1.121		

청소년이 인식한 아버지, 어머니, 나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은 아버지는 학교에서 정치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F=4.220, P<.05$),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F=5.570,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F=6.240,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F=3.815,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104>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

구분		M	(SD)	F	Scheffe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아버지	보수	3.78	1.064	.393
		중도	3.72	1.049	
		진보	3.78	1.204	
	어머니	보수	3.87	1.076	2.058
		중도	3.71	1.060	
		진보	3.87	1.148	

	나	보수	3.80	1.077	1.006	
		중도	3.71	1.049		
		진보	3.82	1.198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아버지	보수	3.63	1.041	.098	
		중도	3.64	1.697		
		진보	3.59	1.188		
	어머니	보수	3.62	1.074	.094	
		중도	3.64	1.682		
		진보	3.69	1.122		
	나	보수	3.48	1.120	.385	
		중도	3.66	1.682		
		진보	3.64	1.216		
학교에서 정치 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아버지	보수	2.89	1.157	4.220*	보수<중도*
		중도	3.28	1.305		
		진보	3.12	1.222		
	어머니	보수	3.21	1.141	2.369	
		중도	3.27	1.312		
		진보	3.05	1.191		
	나	보수	3.23	1.101	1.053	
		중도	3.28	1.302		
		진보	3.14	1.267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아버지	보수	2.43	1.564	5.570**	진보<중도*
		중도	2.72	1.103		
		진보	2.48	1.280		
	어머니	보수	2.62	1.278	6.240**	진보<중도**
		중도	2.72	1.131		
		진보	2.40	1.274		
	나	보수	2.70	1.183	2.573	
		중도	2.71	1.126		
		진보	2.51	1.322		
청소년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아버지	보수	3.00	1.088	.912	
		중도	3.12	1.000		
		진보	3.04	1.200		
	어머니	보수	3.13	1.191	.554	
		중도	3.11	1.012		
		진보	3.03	1.192		
	나	보수	3.31	1.104	3.815*	
		중도	3.13	.996		
		진보	2.95	1.214		

18 요인 간 상관관계

1 정치의식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과 정치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 정치 이슈에 대한 대화정도, 정치견해 영향을 준 요인, 정치적 의견, 민주시민의식, 선거권에 대한 의견, 최근 한달 간 참여한 소셜활동,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 정치와 선거에 대한 참여의향, 정치활동경험, 정치활동활성화, 정치효능감은 모두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05> 정치의식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

	현안 관심	정치이슈 관심	국가권력 신뢰	정치이슈 대화	정치 견해영향	정치적 의견	민주 시민의식	선거권	소셜 활동	정치 선거관심	정치선거 참여의향	정치 활동경험	정치활동 활성화	정치 효능감
현안관심	1													
정치이슈관심	.755**	1												
국가권력신뢰	.075**	.141**	1											
정치이슈대화	.512**	.560**	.124**	1										
정치견해영향	.416**	.527**	.194**	.591**	1									
정치적의견	.433**	.504**	.385**	.377**	.440**	1								
민주시민의식	.284**	.374**	.169**	.106**	.182**	.403**	1							
선거권	-.221**	-.193**	-.035	-.088**	-.067**	-.152**	-.154**	1						
소셜활동	.381**	.424**	.091**	.556**	.437**	.304**	.052*	-.064**	1					
정치선거관심	.507**	.572**	.186**	.437**	.437**	.442**	.295**	-.205**	.393**	1				
정치선거참여의향	.424**	.494**	.202**	.318**	.355**	.456**	.368**	-.197**	.303**	.717**	1			
정치활동경험	.227**	.341**	.186**	.419**	.406**	.264**	.060*	-.035	.480**	.346**	.302**	1		
정치활동활성화	.440**	.542**	.211**	.392**	.436**	.499**	.400**	-.180**	.356**	.485**	.516**	.430**	1	
정치효능감	.286**	.316**	.212**	.266**	.218**	.347**	.197**	-.061*	.264**	.314**	.302**	.223**	.297**	1

제 4 장

정책 제언

①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법·제도적 기반 강화 차원의 ‘조례’ 제정

충청남도는 15건의 지방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등 청소년의 인권·권리 보장을 위한 세분화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제정된 충청남도의 청소년 관련 조례들은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각 영역별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 관한 사항들을 총괄하는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기금, 기관(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단체(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 대상 등 일부의 내용만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역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충청남도 및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사항들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조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영역의 논의와 보완이 요구된다.

서울, 대전, 광주 등의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청소년기본법’에 대응하는 ‘청소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기본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소년기본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을 토대로 시장의 책임, 지원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의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시행 2021. 7. 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97호, 2021. 7. 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청소년기본법과 동일)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기본법과 유사)

제5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청소년기본법과 유사)

제6조(시장의 책임)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8조(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청소년의 날)

제10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1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12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청소년기본조례에서는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청소년단체 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등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정책·사업의 추진과 청소년육성전담기구 및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시행 2021. 11. 3.] [광주광역시조례 제5808호, 2021. 1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소년기본법과 동일)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이 조례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노동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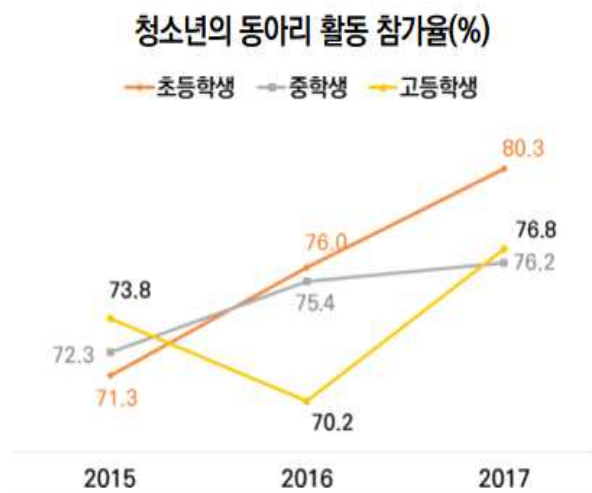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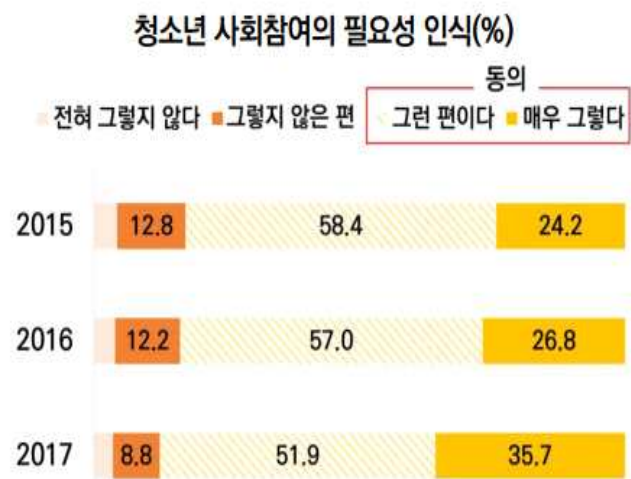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세부 조례별로 분절적으로 마련된 다양한 조례들을 총괄할 수 있는 청소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충청남도 전역에서 추진되는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해야 한다. 특히, 충청남도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활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의 참여가 청소년 주도의 일상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충청남도 청소년의 사회참여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 변화

Gearson & Brown(2003)은 ‘참여는 민주시민성 교육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는 민주시민성을 위한 단순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초가 되는 원리이다.’ 라고 주장하였다(유명철, 2007). 청소년이 다양한 영역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입시체제 아래 청소년은 시간적 여유가 없고, 부모와 교사도 청소년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사회나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단순한 스펙 쌓기나 일부 학생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사회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청소년들도 성적하락이나 진로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등학생이 되면 참여활동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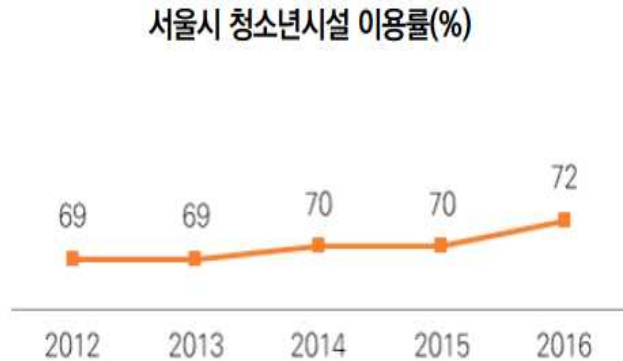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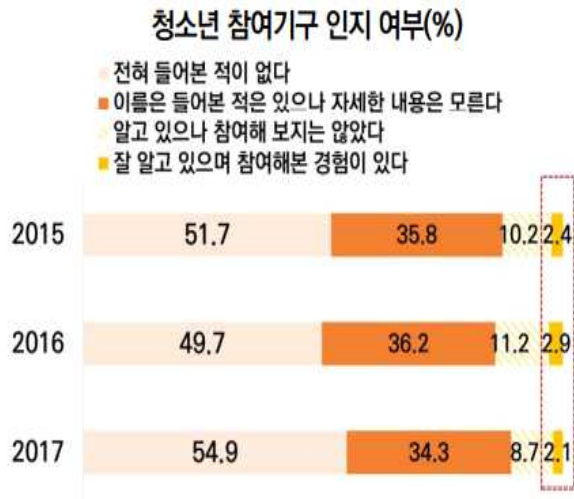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청소년 참여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청소년의 사회참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청소년의 사회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초(4~6학년)·중·고등학생 대상
출처: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통계」

자료출처: 서울시(2019). 서울시 청소년참여 실태와 청소년참여 활성화 전략: 서울연구원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들이 참여기구와 참여의 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초(4~6학년)·중·고등학생 대상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내부자료(2017.1)

자료출처: 서울시(2019). 서울시 청소년참여 실태와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전략: 서울연구원

필연적으로 누구나 인생단계에서 한 번씩 거쳐 가는 청소년기를 경험한다. 청소년기는 의존적인 아동기에서 자립적인 성인으로의 전환기로 아동기와 성인기의 특징을 함께 지니는 이중적 성격을 나타낸다(이영호, 2007).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정은 가정이나 공동체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지위로 권리주체가 아닌 보호의 객체로서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부여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보호의 객체로서 청소년의 지위를 강조하는 것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청소년을 공동체로부터 유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의 지위뿐만 아니라 인격적 충족을 위한 학습과 참여의 주체로서의 능동적인 지위 역시 부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제도나 작업환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CT기술이 발달하고 온라인 환경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성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스스로의 요구를 당당히 주장하고 있다.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충청남도의 도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¹⁾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고 응답한 정치활동은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이었다. 다음으로는 모의선거활동,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활동, 청소년 캠페인 활동, 청소년시설의 참여활동, 종교단체 활동, 정치, 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활동은 학교밖청소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 청소년 정당 단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 등이었다.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교육 현장과 청소년활동 현장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청소년시기에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적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돕는다. 청소년 시기에 정치참여 활동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은 성장의 과정에서 학습을 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청소년이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해외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청소년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청소년의 정치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협업한 모의선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치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일찍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며, 정당가입과 관련 산하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정치활동을 습득한다. 미국은 학교에서 투표참여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모의투표를 운영하고,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투표참여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의 기관들은 청소년의 정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럽 또한 선거참여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매체를 개발하거나 교사 및 교육자들을 위한 연수를 제공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선진국에 비해 학교에서

1) 김남호(2022). 청소년의 정치성향이 정치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치시민교육 및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는데 매우 부족하다(이창호, 2017). 또한 청소년활동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으로 잠정 휴관 및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하는 등(김남호, 2021) 프로그램의 축소 분위기에서 청소년 대상의 정치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 해외 사례를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정치참여활동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정치 교육 혹은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 활성화,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 활성화,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활성화,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앞으로 충청남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참여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투입(input) 과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국민과 대의기관을 연계하고, 선출직 대표자와 민주적 대의제도에 대한 평가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 책임성의 기본원리를 구현한다(Almond and Verba 1965; Verba and Nie 1972).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높이는 정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와 청소년활동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청소년활동기관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는 정치에 관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기관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청소년 대상으로 보급해야 한다. 이런 체계가 구축된다면 청소년들은 정치의식 향상과 정치참여활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된다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치참여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림 4] 청소년참여 정책의 방향(중요성·적절성)

자료출처: 서울시(2019). 서울시 청소년참여 실태와 청소년참여 활성화 전략: 서울연구원

4 청소년의 일상적 참여 보장

현대 사회는 기능적 체계 분화 양식을 그 중심축으로 하는데 이 기능적 분화양식이 지금까지 인류에게서 발견된 가장 고도의 분화 기제이다(천선영, 2002).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자본주의의 기틀인 분업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현대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 권위, 합리, 논리 등은 고도로 발전했지만 국가계획에서 그것이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cott, 1998).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정책과정이나 계획수립에 있어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압축성장을 겪은 한국사회에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개발 혹은 개발에 목적을 두어 발전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유효한 수단을 선택하는 행위합리성(장춘익, 2013)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도시계획은 전문가에 위임한 영역이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삶의 질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양한 의견이 사회구성원에서 나오고

이를 반영하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즉,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지식과 관습이 전문가의 지식과 더해질 때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 참여는 특정 청소년의 일부 기구 참여에 제한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참여, 주도적 참여 지향, 일반 청소년의 참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료출처: 서울시(2019). 서울시 청소년참여 실태와 청소년참여 활성화 전략: 서울연구원

5 청소년활동현장의 역할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청소년기관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연계하여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협의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 정치참여를 지원하고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협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청소년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청소년전문가들에 대한 청소년 참여와 관련된 연수를 통해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실제 청소년관련 기관 종사자들도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가 있으므로 청소년 참여에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가치교육도 청소년 활동기관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시 처음 참여기구를 접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 참여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책임감을 심어주도록 한다. 처음 청소년 참여기구를 접한 청소년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렵고 지루하여 재미없는 활동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다양한 토의토론기법과 정책 발굴 교육을 통해 흥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교육방식은 단순한 강의식이 아닌 토론이나 청소년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이 직접 정치참여와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참여 포럼, 100인 토론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동아리를 통해 청소년 정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기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예산을 확대하고 활동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청소년의 직·간접적인 활동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① 연구위원: 노자은(군포시사회적기치혁신센터 센터장)

1. 들어가며

2021년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 데 이어 2022년 1월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청소년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청소년을 보호하고 규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확장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매우 중요한 책무이다. 청소년이 살아가는 주요 맥락인 지역사회는 청소년 참여의 장으로 기능해야 하고, 청소년 참여의 실질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운영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 경향을 인지하고, 여태까지의 청소년 참여 관련 정책 사업이 이러한 변화 경향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정치참여,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청소년 참여는 1998년부터 시행된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면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최창욱, 전명기, 2013). 이로 인해 청소년 현장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참여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청소년 참여는 공적인 의사결정에 청소년이 자신의 이해나 관심을 반영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 현장의 기본적인자 필수적인 사업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 효과로 내적 효능감 경험, 자기주도성과 같은 청소년 개인 측면의 잠재역량 발달은 물론, 공동체성 제고, 시민의식 형성 및 증진과 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청소년 참여의 유형은 어떠한 주로 무엇에 관여하는가, 또는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념화된다. 참여 맥락(범위)과 참여 방식에 따른 유형 중 가장 포괄적인 개념은 ‘청소년 사회참여’라 할 수 있는데,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공동체와 관련된 사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맥락(범위)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청소년 참여를 포함한다. 청소년 사회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에 관련되는 의사결정과정을 비롯한 모든 사회과정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행위(허인숙, 이정현, 2004)로, 집회 및 시위 참여부터 봉사활동과 같은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청소년 사회참여가 국가의 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직접적 행동(예. 집회 및 시위 참여, 정당 가입, 투표권 행사)으로 나타날 때 청소년 정치참여로 범주화할 수 있다.

모상현 등(202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정치인들의 노력과 그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을 때 정치를 통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은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 증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확립, 타인과의 소통 역량 증진 등의 방식으로 이들의 정치적 성장과 정치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이슈와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은 주로 SNS, 포털 사이트 등의 온라인 매체라고 응답하였고,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주요 대화 상대는 가족이며, 실제 청소년 본인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부모님으로 꼽는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사회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은 좀 더 청소년의 일상적 삶과 연결되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청소년 현장은 청소년 정치참여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3. 기존 ‘청소년 정책참여’, 그 한계

현재 현장에서는 청소년이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들에 대하여 보통 ‘청소년 정치참여’보다는 ‘청소년 정책참여’로 지칭한다. 청소년 정책참여는 주로 관련법이나 조례에서 명시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해 청소년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의 형태로 참여활동을 운영한다.

관련법에서 명시하는 청소년 정책참여기구는 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기본법 제5조),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가 있다. 이외에 경기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구성·운영하는 청소년교육의회가 있다.

<표> 청소년 참여기구별 목적 및 기능, 법적 근거

참여기구명	내 용
청소년 특별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국가·지방자치단체·수련시설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 추진 - 청소년의 리더십 및 민주시민의식 등 다양한 역량 함양 ○ 기능 :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범정부적 정책과제를 정부부처에 제안하여 정책화 ○ 법적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청소년 참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국가·지방자치단체·수련시설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 추진 - 청소년의 리더십 및 민주시민의식 등 다양한 역량 함양 ○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권리·인권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제안 ○ 법적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청소년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상동 ○ 기능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여 수련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법적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교육의회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교육정책 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을 경기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 -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 지역 청소년(만 10세 이상 18세 이하)이 권리의 주체로서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사회참여를 실천 ○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학생의회)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

이처럼 청소년 현장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적 제도에 근간하여 여러 유형으로 조직된 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기구 제도가 청소년 참여의식을 높이고, 정치적 임파워먼트(empowerment)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중요한 기능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체계나 권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정치참여로 연결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 지자체 내에서도 참여기구별 운영 주체,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행정 부서가 다름으로 인한 한계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참여기구 간 상호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참여기구 간 역할 및 참여대상자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 참여기구 담당자 간 청소년 참여에 대한 이해 수준의 차이로 인해 참여자들의 동기, 임파워먼트, 효능감 등 참여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게 된다(이윤주 외, 2022). 최근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사례²⁾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법적 제도에 근간한 청소년 정치참여는 추진체계의 형식성으로 인해 피상적 활동에 그치기 쉽다. 예를 들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규정상 1년이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최대 2회까지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나 이로 인해 매해 신규위원으로 구성되는 참여기구들은 모집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매해 유사한 내용과 수준의 정책을 발굴하는 등 참여 활동의 깊이를 더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전민경, 노자은, 2018).

청소년 참여기구의 실질적 권한 수준이 낮은 현실 또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자치단체장과,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기관장 등과 필수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이 간담회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과 진지한 논의나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전민경, 노자은,

2) 광주시는 2021년부터 시, 시의회,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운영 중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청소년교육의회를 통합 구성하여 '광주청소년교육의회'를 운영하고 있다(한국정경신문, 2021.10.25.).

2018). 청소년 참여기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 또한 자치기구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한계로 작용한다(이윤주 외, 2022).

무엇보다 참여기구들은 청소년 정책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참여기구가 제안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 감독 권한이 없는 청소년 참여는 활동 결과의 실효성을 낮추며, ‘변화가능성’에 대한 청소년 참여자들의 기대나 의지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전민경, 노자은, 2018). 정치참여는 참여자의 효능감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는 참여 청소년의 효능감을 저해하는 부정적 경험으로 남게 되어 지속적 정치참여로 연결되기 어려워진다.

4. 지역사회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현장에서 청소년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적 제도에 근간한 청소년 참여 사업 위주로만 운영했을 때 가지는 한계를 인지하고, 청소년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안에 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한 정책참여가 실질적 정치참여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구 활동으로 도출된 정책 제안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정치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련 현장에서의 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하도록 돕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는 ‘정치참여’에 대한 청소년 현장 종사자들의 개방적 태도가 중요하다. 정치참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제로 기존 청소년 참여가 지닌 한계를 해소하는 것, 즉 청소년이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을 확장하고 청소년의 일상적 참여와 연결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모상현 · 최용환 · 남미자 · 정건희(2021). 「형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윤주 · 진병주 · 노자은 · 신영규 · 정필운 · 김명정(2022).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 참여
추진체계 개발」. 경기도·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전민경 · 노자은(2018). 「경기도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활성화 연구」. 수원 :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창욱 · 전명기(2013). 「형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정경신문(2021.10.25.) 경기 광주시, 2021년 광주청소년교육의회 '정책제안 발표 및
공감토론회' 개최. <http://kpenews.com/View.aspx?No=2089285>
- 허인숙 · 이정현(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2, 443-472.

② 연구위원: 최인선(천안시청소년수련관 관장)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와 정치의식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기초역량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청소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자원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 논리적, 타당성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와 청소년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정치참여를 위한 기초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중요하기에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기초역량교육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사회, 과학기술, 기초소양 함양을 키운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에서 소속에 따른 결과 이외에서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 수업,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의미하는 것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주요방향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기관리, 지식정보, 창의적 사고, 공동체, 의사소통, 심리적 감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문사회, 과학기술 기초소양 함양 등을 통해 문·이과를 통합하고 인문학적 지식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이 융합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여 토론, 협력 학습 프로젝트 등의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 평가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2015교육개정의 내용 중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기초소양 함양은 인문학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고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문학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 제공과 이를 통해 진로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치적 참여 활동의 기초역량을 배울 수 있기에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초소양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에 청소년시설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시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토론대회를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의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의 토론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는 장을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하여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교육이 융합되어 청소년이 주권자로서 기초역량의 배움은 더불어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

정치참여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학교 임원 수련시설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활동 경험 있는 청소년들이 많으며, 주도적인 청소년들이다.

연구결과의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결과에서 학교에서 청소년의 리더십 함양교육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의미는 주권자로서 주도적인 자세를 배우고자 하는 것과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데 청소년의 주도성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주도적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주도적인 자세를 갖추는데 리더십이 필요하다. 주도성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리더의 자세와 문제해결력을 배우면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준다.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언론매체가 가장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주권자로서 정치적 견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리더십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경험은 리더십 향상에 도움을 주고 주도적인 삶과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까지 영향을 준다. 더 나아가 정치적 성장과 정치적 역량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리더십은 타고난 것이 아닌 교육으로 리더십 자세를 갖출 수 있기에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 교육이 중요하다.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에 청소년이 정치 참여 주도적인 자세를 갖추는데 리더십 교육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이 능동적인 정치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초초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수 없이 많은 정보 속에서 거짓 정보와 진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판단력이 길러질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경험이 자원이 되어 자신의 진로를 탐색,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진로성장을 갖는데 리더십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퍼실리테이션 통한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배워야 한다.

정치참여 저해 요인으로 학교에서 정치참여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의사표현 등의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퍼실리테이션을 제안하는 바이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조직 내에서 소통하고 정책 의견 제시 및 수렴하는 것은 학교 임원 또는 청소년참여기구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이외 경험 기회는 많지 않다. 또한 임원 및 청소년시설의 참여활동의 경험에서도 청소년들이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렴하여 통찰하는 과정 또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그리고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중립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청소년들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습득하여 리더로서 또는 주권의 주체자로서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 교육은 필요하다.

그룹은 단순히 개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개인 혼자 행동할 때와 그 무엇이 있으며,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거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그룹 내는 목적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타인과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촉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타인을 의식하다 주의가 분산되고 흥분이 되면 잘하던 일도 그르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억제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 시기에 사회적 억제 경험 보다는 사회적 촉진 경험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그룹 내 상호 교환을 통한 공동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긍정적 경험을 갖는 것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및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서는 그룹 내 각기 분담된 역할과 지위를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하며, 공통 규범, 가치관, 행동양식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 이는 개인과 그룹 내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환이 이루어지기에 그룹은 유지되며, 그룹 내 상호작용과 대인관계가 상존 하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 할 뿐만 아니라 보상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조직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을 통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치참여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넷째, 의사소통 교육이다.

정치참여 저해요인에 대한 의견 중 ‘가정과 학교에서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자신의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함양시켜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의사소통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것이다. 즉 일정한 뜻의 내용을 언어, 시청각 자료를 통해 다양한 소리, 문자, 기호, 신체언어를 매개로 전달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의미로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고 주고받으며, 사람들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고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

의사소통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탐색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조직의 3대 핵심요소 중 가장 중요하며, 의사소통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진실된 마음으로 듣는 자세, 기다림,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의사소통능력 함양은 다음과 같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① 조직구성원의 통제기능을 한다.

정치참여는 개인과 개인이 모여 집단이 형성되므로 개인의 성향을 이해하고 서로 상호작용으로 참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과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② 동기유발 촉진기능을 한다.

이는 조직에서 동기유발을 촉진하고,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는지 스스로 동기화 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개선방향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동기부여로서 촉매제 역할을 한다.

③ 사회적 욕구 충족 기능을 한다.

감정을 표출하고 서로 교류하며, 조직 내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한다. 이는 집단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효율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

④ 정보전달기능을 한다.

정보전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조직의 의사소통망을 형성하기에 전달체계가 구축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달 체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정보를 공유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도록 영향력을 준다.

⑤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

의사소통을 통한 리더의 영향력 발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의사소통능력 역량을 향상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의사소통능력은 개인의 성향을 이해하고 서로 상호작용으로 조직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청소년자치기구 활동에서 조직구성원들을 동기화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미디어의 발달로 미디어를 통해 수 없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통한다. 연구결과에서도 확인 된 바와 같이 청소년이 최근 한달 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를 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서명과 서명 참여 정치문제에 타인의 글을 공유하는 등의 미디어 활동을 한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처럼 미디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미디어는 청소년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에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 찾기, 검색어 생성 등의 활용 능력이 높은 반면, 미디어 정보를 조직적, 체계적,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낮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미디어를 접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를 분석,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이 필요하기에 미디어 리터러시는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다. 청소년들의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공적인 이슈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도적인 시민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여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더불어 미디어를 통한 참여적 소통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 등의 정치참여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 제안 등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의 시민성 발달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정치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미디어 리터러시의 능력이 영향을 주므로 중요하다.

2.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정치 자치기구 및 동아리를 운영한다.

만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이 생기면서 청소년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권자로서 행동의 주체가 되었다. 청소년은 행동의 주체로서 청소년들은 부족한 정치경험과 모의 투표하기 등의 청소년시설의 정치 관련 프로그램 경험의 청소년은 소수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시설에서 참여기구 이외의 청소년 자치기구 또는 동아리를 별도로 운영한다면 청소년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사회적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책 제안 등의 행동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된다.

정치경험이 부족하고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모의 투표하기 참여 또한 청소년시설 청소년의 참여기구 또는 자치기구 청소년들의 참여할 기회가 높다. 그러므로 정치적 주제 또한 청소년 관련, 생물·동물분야, 환경, 교육, 문화예술체육에 높은 관심이 있다는 결과와

성적이 높은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이 높다는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청소년 시설은 성적과는 무관하게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정치참여 및 모의투표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은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서 사회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참여활동은 학교 봉사점수를 위한 수동적 참여로 능동적 참여가 부족하다.

3. 세대간의 공감을 위한 정치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부모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대화를 하는 높은 대상이며, 청소년의 정치적 견해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가정에서부터 정치적 관점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들은 청소년을 미성숙하다는 인식이 대체적으로 많다. 즉 청소년은 성인들이 보호해야 할 보호대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에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두발자유화운동 이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청소년들은 보호받는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관심을 갖고 하나씩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자율적 판단과 결정은 중요하다. 이에 학습과 참여의 주체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찾고 본인의 정치성향이 어떠한지 이해하는 것 또한 주권 주체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정치적 견해를 찾는데 세대 간의 정치적 공감 프로그램 및 교육을 통해 정치를 좀 더 이해하고 정치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세대 간의 소통 및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또한 세대 간을 이해하고 정치적 역사를 이해하면서 정치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정치적 성장 및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자치회에 참석하여 청소년이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며 청소년도 한 주권자로서 지역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경험과 활동을 통해 세대 간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시설에서 연령별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자로서 다양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4. 정치효능감 향상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정치적 견해 형성 및 정치적 태도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정치적 견해 및 태도는 성인에 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의 능력을 향상 시켜주는 것은 중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정치 견해 및 태도는 꾸준히 유지되고 개인의 가치관 또한 사회적 정책에 접목되어 가치관 형성과 행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기의 정치참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리고 자기결정권과 의사표현의 기회를 갖고 참여하므로 중요하다.

정치효능감은 청소년이 정치 관련하여 사회변화 가능한 정책과 방향성이 동반되어 청소년 정책이 올바른 사회변화로 이끌 수 있다고 자신을 믿는 것은 정치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정치효능감은 주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권자로서 청소년시기에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원이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 제안 등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는 것은 정책의 변화에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들은 정치 경험의 부족과 낮은 성취감으로 정치효능감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또한 낮기에 자기효능감이 높일 수 있다면 이는 정치효능감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정치효능감 향상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학교교육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주도적인 정치활동 참여를 극대화하고 청소년이 자신과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되는 과정을 스스로 터득하는 것 또한 정치효능감을 향상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변화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민주적인 합의 방법, 소수의견의 존중 등의 주권자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며, 선택한 활동에 책임감을 갖고 삶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는 주도적인 주인의식 형성과 정치적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확대하는데 청소년은 거주지의 주권자이자 주민이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청소년이 가입을 하여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역 정책 제안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또한 만족감과 동시에 정치효능감을 향상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치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공공정책의 형성, 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 관여하거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사회 혹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나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학교급별 정치 관련한 동아리 활동 및 자치기구를 형성하는 것이다. 학교급별 정치를 주제로 한 동아리의 활동은 청소년시설에서 전문가들의 교육과 각 학교 동아리들의 토론 대회, 인문학 강좌 등의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논의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제안 등의 경험을 통해서도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은 향상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정치효능감 이외에도 개인적 성취감을 갖게 하여 청소년의 정치 견해 형성과 온라인의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태도 참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5.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이 필요하다.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청소년이 정치참여 교육에 참여하는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는 가장 적절할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는 초등과정의 교과내용에서 선거의 내용을 배우면서 주권자로서의 기초적 내용을 배우기 때문이다.

지역적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지도자의 역량 또한 다르므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제언하는 바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통한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형성 된 정치적 견해는 성인까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가치관 및 행동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청소년시설 및 학교에서 청소년 정치교육 매뉴얼이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또한 청소년시설 및 학교에서 실시하게 될 민주시민교육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 시 청소년 시기에 맞추어야 할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고 학급별 정치 관련 개념의 이해정도를 토대로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정치 교육의 경험의 부족하므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정치 및 정책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대상자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9세부터 24세까지 이용가능한 시설이다. 이용가능 대상자는 곧 초등학생 시기로부터 대학생 까지 포함한다.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 관심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또한 청소년의 정치 및 정책참여는 청소년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치 및 정책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과정이므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대상의 정치참여 기회 및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통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지역적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교육이 체계화 하는데 첫 걸음이 되어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정치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6. 청소년지도자의 정치적, 다양한 역량교육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응답자의 주관적 성적에 따라 대상에 따른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대화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또래친구, 청소년전문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른 정치적 대화는 또래 친구 다음으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지도자)와의 대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는 결과를 통해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견해 형성 및 정치 이외에도 영향력을 주는 전문가임이 확인 되었다 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정치가 어려운 것이 아닌 청소년인 본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는 각 분야의 정책과 방향성을 이해하는 역량과 청소년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을 교육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정치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이 가정 이외의 청소년지도자들을 통해 정치적 견문을 형성하고 자신의 삶의 정보를 배울 수 있기에 청소년지도자들은 리더십을 형성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로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은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교육을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셀프리더십 역량 강화이다.

청소년들이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먼저 청소년지도자는 리더십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양한 리더십 중 무엇보다 청소년지도자는 과업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기주도적인 태도와 자기동기부여를 위한 즉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다. 이는 셀프리더십으로 학습으로 가능하며,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인 셀프리더십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지도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에게 셀프리더십을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조직사회가 점점 개인화, 급변하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조직문화에서도 수평적 조직 및 네트워크 조직형태로 변화하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시설의 지도자들과 서로 원활한 소통과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아는 것이 곧 청소년들에게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다.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은 동기부여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핵심은 일에 열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해 주고 공감대가 형성 되도록 하기에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로 조직문화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보다는 조직의 결정에 긍정적으로 잘 따라준다. 연구결과에서도 확인 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정치적 견해 및 정치문제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자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정치적 견해를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험적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지도자 스스로 객관적인 태도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퍼실리테이션 교육이다.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청소년지도자로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견해 형성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 총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리더로서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퍼실리테이션을 적용하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존재할 때는 토론의 결과가 조직 발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 다양한 의견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이끌어 내고 토론 과정을 통해 결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 효과적이다.

셋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른 대안을 찾고 싶은 경우 효과적이다. 이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지도 시 필요하다.

넷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다섯째, 팀 전체가 적극적인 참여로 토론하기를 희망하며, 토론의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 효과적이다.

여섯째, 중립적인 자세로 체계적, 전문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할 때 유용하다.

일곱 번째, 중요한 문제에 대한 목적, 절차 방법과 결과물이 불명확하여 명확하게 설계 할 때 유용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퍼실리테이션은 조직문화에서 수평적 참여형으로, 개방적으로 조직문화의 회의문화 개선, 경직된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문화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조직문화에서 필요하다. 퍼실리테이션은 적극적 참여로 조직을 활성화 하여 다수가 참여하기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형성된다. 또한 효과적 회의 진행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함께 결정하여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 지속적인 회의를 통한 과정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청소년은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고 국민으로 가져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정히 내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은 정치참여에 올바른 정치 가치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책임 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지도자는 연구결과에 확인 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정치 관련한 글을 읽는 것이 많은 것으로 미디어를 통해 얻게 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비판적,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능력을 청소년들의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먼저 갖추어야 하기에 청소년지도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2021년 교육부에서 초,중,고등 학생들의 모든 교과와 연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방침을 발표 하였으나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자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 청소년들에게 낮은 신뢰성 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치참여 및 사회참여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지도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온라인 매체로 정치참여를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 질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상대의 의견 존중하는 자세를 배움으로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다.

의사소통능력 향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과의 소통이다. 먼저 적극적 경청과 공감이다. 효과적인 질문이다. 이유는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질문은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고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질문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다. 개방형 질문은 사고를 확장시키는 질문이므로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생각을 들을 수 있기에 도움이 된다. 가장 유의해야 할 질문은 가치편향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고를 폐쇄하는 질문을 하거나 책임 추구형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각을 닫히게 한다면 청소년들의 정치견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낮추고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청소년시설에서 정치경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의견 결과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청소년에게 필요함을 인식함과 동시에 시민의식을 향상 시키고 체험 및 활동형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학교 임원, 청소년시설의 참여기구 활동의 소극적인 경험이므로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기초 교육이 중요하며 다양한 경험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 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 정책집행의 이행에서 예산 사용과 예산 결산, 예산 결정등의 내용 등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시, 군구의 실시하는 정책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전문인력 등을 통한 선거관련의 기초지식을 배운다.

넷째, 청소년 거주지의 청소년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지역 구성원의 공동체로서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통해 정치경험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정치경험과 교육이 함께 운영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관련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청소년 시설에서 활동 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청소년 관심 주제부터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의 정치 관련 교육은 사회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으나 그 수준은 청소년의 정치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학교 현장에서 배운 지식을 기초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시험을 보기 위한 용어 개념 이해 정도로 일방적인 교육 형태가 아니므로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 후 PBL 교육 방법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일 될 것이라 여겨진다.

③ 연구위원: 한상국 (법무부 주무계장)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

I. 들어가는 마당

정치라는 명제는 우리가 속한 사회가 조직되고 운영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이는 너무나 방대한 ‘거대 담론’이라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난해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것을 청소년 시각에서, 그것도 제도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단하는 것은 어쩌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시도가 될 수도 있기에 무척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및 구상이 중첩되어 갈수록 구체화되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주제를 접근하게 되었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는 명제를 놓고 여러 가지를 구상하며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지를 생각해 보았다. 필자의 경험 또한 일천하며 제한된 경험을 갖고 있을 뿐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부서를 구분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차원에서의 접근보다 청소년들에게 작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 실현 가능한 것을 우선으로 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필자의 중고등학교 시절 ‘정치참여’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으며, 어떻게 체감되었는지를 생각하여 보았다. 지금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언론매체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대부분 9시 뉴스 또는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을 조금씩 보며, 그리고 궁금한 것은 부모님께 질문하여 해결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떠할까.

비교적 어린 시기부터 다양한 영재과정 학습을 시작하며, 중학교 입학 무렵부터 특목고 과학고 진학을 위한 공부에 몰두하는 가운데 개인의 여가 시간마저 충분치 않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연 ‘정치참여’라는 명제는 어떻게 체감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과 인연을 맺으며 활동

중에 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뉴스미디어를 통해 간혹 정치적으로 큰 사건 - 이를테면 ‘대통령 탄핵’ 과 같은 - 이 등장하는 정도에만 청소년들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곤 하였다. 이들의 질문에 나름대로 대답을 해 준 뒤 그들에게 정치 또는 정치제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질문하곤 했는데 상당수가 거의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정치에는 관심 전혀 없고, 정치는 학생 일이 아닌 어른 일이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만을 듣기에 은연중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구요, 평소 자주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와 정치제도에 대한 인식이 모두 들어있는 것 같다. 그렇다. 이들은 이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장 자신이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그리고 수시전형에 위한 내신 성적 관리에 있어 정치란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며 모른다 하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치열한 입시 과정을 마무리할 무렵 그들은 성인 과정에 입문하면서 선거권을 부여받게 되지만, 아직 정치 및 선거에 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 누구를 어떻게 선택하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과정을 거치며, 결국 주변(특히 가족, 부모님) 의견을 따라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난 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다소 과장이 섞여 있을지 모르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악순환 극복을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II. 펼치는 마당

1. 학교 교과과정 중 정치교육 필요

필자는 우선 투표권 인식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정치관련 교육시간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 저학년부터 사회과목 수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조금 성장한 뒤에는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정치구조 등에 대한 교육량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초등~고등학교 과정까지 거치면서 헌법, 투표권, 정치제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도 한 번씩은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과서 내 언급된 사항을 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것을 토대로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기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저 한 번 정도 들어본 정도의 가치만을 지닌다. 필자가 제안하는 정치교육은 ‘사회에 대한 시각을 넓히며 주변 정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당수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보호자의 보호 아래 성장하기에 은연중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대부분 부모의 정치적 시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상 및 정보를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하여 접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 편향적이며 특정 논리에만 치우친 내용이 포함된 정보 또한 여과 없이 그대로 접근이 가능하여, 이를 건전한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자칫 극단성을 내포하게 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우선,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상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이 있는데, 현지 이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비중을 조금 늘려 정치관련 수업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자 사건을 배제한 정치 사회 이슈 다루기 등과 같은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다수 청소년들은 정치 관련 이슈를 뉴스 및 가정,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만 듣게 되는 바, 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의 궁극적 목적은 다양한 정치관련 정보를 합리적 논거에 따라 수용하고, 타인 주장 또한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도록 함에 있다.

청소년들이 적절한 기준 없이 자신만의 생각으로 정치관련 가치관을 정립하고 타인

의견을 수용할 건전한 비판 의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협소한 시각을 그대로 갖게 될 것이며, 이후 성인으로서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고정관념에 따라 누군가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보다 타인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최근 10여년 간의 다양한 정치적 이슈를 접하면서, 어쩌면 최근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가장 큰 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나와 생각이 다른, 내 편이 아니면 수용하기보다 무조건 배척하며 누군가에 대하여 훌륭히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정치를 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정치에 있어 비평은 필요하며, 때로는 적절한 비판 또한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자신 또는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의 잘못은 무조건 덮으려 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흠결은 절대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든 공격하며, 그것이 정치를 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정치와 관련된 균형 잡힌 시선과 건전 비평의식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2. 무관심 극복을 위한 참여형 수업의 확대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라는 거대한 명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하여 필자는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극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나와 전혀 상관없으며 몰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여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책장 속에 꽂혀있는 수십년 된 낡은 책자가 아닌 살아 움직이며 역동하는 촉매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필자는 예전 EBS 다큐멘터리에서 인천 소재 한 여고 학생들이 학교 앞 출입로가 비교적 협소함에도 인근 주택 차량들이 출입로 양쪽으로 상시 주차되어 있고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놀이자 학생들 스스로가 이를 관할 경찰서 및 구청 등에 신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 주소지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에게 이를 알려 결국 출입로 확대 조치라는 최종 결과를 얻어낸 것을 시청한 적이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청소년들 또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 행동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즉 무관심하면 결국 내가 손해라는 인식이 있을 때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정치 및 정치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그것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것이란 생각을 심어 주는 것. 이것이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앞서 필자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의식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나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PPT, 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 대다수인 바, 정치교육을 단순히 이론 형태로 접근할 경우 쉽게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으며, 간혹 지역에 따라 정치인 또는 정치관여자와의 만남 등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곤 하나 이 또한 집중력 확보에 한계를 보일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감 선거’ 관련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선거 체계에서는 4년마다 시도지사, 시장, 구 의회 의원 등 기초광역단체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이 때 교육감 선거 또한 동시에 이루어진다.

교육감은 현행 학교 체계에 있어 가장 정점에 위치한 직제이며, 교육감이 어떤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임에도 청소년들은 이에 대하여 뚜렷한 체감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4년마다 실시되는 선거 시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이것이 정리되어 하나의 유인물로 인쇄되어 각 가정에 배포된다. 하지만 대다수는 선거 결과 확정 이후 무의미한 존재로 폐기처분 되면서 잊혀지게 된다.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공약들이 - 당선자 낙선자를 불문하고, 실제 선거에 사용된 각종 유인물을 수업 재료로 활용하여 - 어떤 뜻이고, 이것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공약사항이 있는지를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청소년에게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가령 선거공약 중 ‘방과후 수업 및 특별활동 기회 제공 확대’라는 것이 있을 경우 이를 통해 자신이 학원 수강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때, 비로소 학생들은 선거 및 정치활동이 나와 연관됨을 인식할 것이며, 더욱 나아가 어떤 정책이 자신들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한 뒤 의견을 활발히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과정이 활성화된다면 청소년들의 반응을 취합하여 이를 정치제도권에 전달하기까지 이룬다면 더욱 가치를 지닐 것이며,

생활기록부 상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이를 명기, 해당 학생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상으로 투표권 부여하고, 투표에 참여토록 하는 수업을 제안한다.

필자는 종종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교회장 선거 관련 움직임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기성세대 이상으로 적극적인 움직임과 다른 교우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다양한 공약, 그리고 열정적인 의견 발표에 감탄했던 경험이 있다. 이들에게는 꼭 내가 당선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었으며 주변에서 도와주는 학생 또한 이에 공감하여 활동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초등학교 학생이라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아직 부족한 상태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초등학교 수업시간 중 일부를 정치관련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개편하여 - 중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과정처럼 - 실제 사용하였던 유인물과 투표용지 등(반드시 교육감 선거 내용일 필요는 없다)을 그대로 활용한 체험 학습이 필요하다. 여기에 담임교사를 통하여 공약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아니면 이행되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피드백 받는다면 이들은 점차 정치행위가 내 삶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초등학교 시기 학생들은 사고가 유연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수용함에 있어 저항이 적은 시기이기에, 조기 정치 참여 학습은 그만큼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메타 버스³⁾’ 형태의 정치참여 기회 제공

코로나19 발생 이후 적극적인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몇몇 대학교에서 메타 버스 형태로 신입생에 대한 학교 소개를 하고,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한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나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생성하고, 이 캐릭터를 학교 강의실을 그대로 구현한 곳에 입장토록 한 뒤, 담당 교수 인솔에 따라 학교 구석구석을

3)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겨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 경제적 활동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공간을 지칭함

안내받는 메타 버스는 대면접촉이 불가능한 시기 새로운 정보에 목마른 신입생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함에 있어 학교가 소재한 시(市)의회, 또는 교육청 등을 메타 버스 형태로 구현한 뒤, 이곳에 학생들이 참여토록 하고 실제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청소년들에게 가장 합리적 의견을 도출토록 하여 이들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사안을 채택하여 현직 시 의원, 국회의원 등에게 제출되도록 구현된다면, 이런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흥미와 새로운 의견까지 포함되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기성 정치인에게는 철저히 청소년 관점에서 제시된 피드백을 받으면서 ‘우리 행동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는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주의환기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조금 확대하여 생각하건데 실제 현직 정치인(또는 가능할 경우 교육감)들을 패널로 참여시켜 학교 관련 의견 또는 공약사항을 언급토록 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견을 남기는 ‘인터넷 방송’ 형태의 수업 또한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반대 형태로도 가능한데, 청소년 패널이 정치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형태 또한 가능하며 이것이야말로 청소년들에게 이론이 아닌 진정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각종 온라인 기기 사용에 익숙하며 이를 통한 정보 교환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바, 메타 버스를 기반한 수업 참여는 그들의 흥미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내가 주체되어 이끌어 나가는 성취감 또한 누릴 수 있는 좋은 매개체라 생각되기에, 제도적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3.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연계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상대편을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이 진정한 정치이며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경험을 통해 체득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경험이 수반되어야 가능 할 것이다.

필자가 예전 근무하였던 청소년 꿈 키움센터(비행예방센터)에는 모의법정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이를 활용한 모의재판 수업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관내 각 학교에서 이를 수시로 활용한 참여형 교육이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중학교 과정에서 주로 시행되는 ‘학교 밖

수업'에 있어 각급 학교는 외부에서 시행 가능한 기관 섭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 큰 차이 없는 과정을 수행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관내 청소년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치 참여 수업을 실시토록 하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공간에 현행 국회 및 시 의회와 동일하게 구현된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구 현안 등을 토의하고, 논증하며 이를 표결에 부치는 작업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치참여에 대한 흥미 및 동기를 유발토록 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과직제과정 수정 및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동기 유발을 위해 학교장 명의 등 포상을 수여, 이를 생활기록부 등에 반영토록 하는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4. 수행평가 인센티브 확대

전 문단에서 필자는 적절한 동기 유발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를 매개로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자세로 언론보기' 과제를 교과과정 중 실습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3개 이상의 언론매체를 성향을 감안하여 선정, 이를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요즘 이슈를 작성토록 하며, 간혹 기억에 남는 사건사고를 에세이로 작성토록 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수행평가 부과점수 등에 가산토록 하여 이것이 생활기록부에 반영된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는 한 청소년이 한 학기에 걸쳐 'cine21'이라는 잡지를 통한 '영화 속 정치에 대하여 분석하기'라는 과정을 담임교사와 함께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겨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한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이처럼 균형잡힌 시각으로 주변 정보를 비판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은 창조의 힘을 제공,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는 힘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III. 맺는 마당

지금까지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로 제도적 관점에서 생각하여 이를 제시하여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제도적일 수도 있으나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며 학업을 수행하는 일선 학교를 배경으로 제시된 것으로, 무엇보다 필자는 이러한 거대한 담론을

논단하기에 아직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 및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부족함을 인식하였기에 선행적으로 정치가 그들과 격리된 것이 아닌 살아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체감(體感)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판단, 이를 우선시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보았다. 정치 무관심의 극복과 체험을 통한 실천 동기 부여라는 명제는 앞으로도 유효하며, 이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실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시행착오와 교정이 따름을 필자 또한 잘 인식하고 있다. 이 글에 대한 비평 및 의견, 비난 또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움직임으로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고심한 창작물이 쌓여 하나의 훌륭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미천한 필자의 제안이 이를 위한 작은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희망을 마무리로 갈음하고자 한다.

4 연구위원: 박지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

1.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과 관련한 법제도 현황

(1) 국제협약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

1)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아동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1989년에 채택되었고 1991년 한국에서도 비준하였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 미만의 아동을 소극적인 대상에 두지 않고 권리의 적극적인 주체로 인정하며, 둘째,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각 국가, 사회, 가정은 아동의 신체적·인격적 발달과 성장을 위해 요청되는 보호와 배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것이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 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것만으로는 이행을 보장받기 어렵다. Lundy(2007)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를 바탕으로 아동참여 촉진을 위한 참여모델을 공간(Space), 목소리(Voice), 청자(Audience), 영향력(Influence)의 네 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제안하면서 협약 제12조가 온전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협약의 다른 조항과도 연계하여 이해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Lundy, 2007; 이윤주, 2018:546 재인용) 이에 따르면 제2조(차별 금지), 제3조(최선의 이익), 제5조(지도의 권리),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9조(학대로부터 보호) 등이 언급되지만, 이외에도 제4조(권리실현조치), 제14조(사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 제15조(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17조(정보 접근), 제28조(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 제29조(아동교육의 목표), 제42조(알릴 의무) 등에서도 제12조와 상호연관이 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 조문에서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직·간접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청소년)의 인권은 헌법과 함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이 보장하여야 함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 없이 그리고 어떠한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의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을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 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2)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 교육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그리고 국내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교육은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개인, 사회의 영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세계시민으로 이어지는 확장적 계기와 연계될 수 있다. 나아가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한 정치문제 이슈 및 미디어 리터러시와 세계시민의식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인류에게 유래 없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은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과 사회 변화를 위해 요구되는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된다. 이는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이행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후, 2005년 UN의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계획이 수립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계획으로 이어지면서 2015년 ESD 국제실천프로그램(2015-2019)으로 실행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이어지면서 최근 유네스코는 2020년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로드맵’을 발간하였고, 2021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2021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사업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같은 지역과 세계를 잇는 지속가능성의 의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이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된 바 있고, 정부에서도 2018년에 지속가능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 수립되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주요 주제 중 하나로 포함됨에 따라 통합사회 과목의 대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삶이 선정되었고(교육부, 2015) 환경교육 및 사회과 과목과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주제가 다양한 교과에 반영되고 있으며, 세계평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교육부·외교부의 협력 아래 촉구되고 있다. 이 기획 하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정치적 참여의 지속적인 확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단순히 시민사회·지역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와 인류에 대한 윤리적 규범과 글로벌 시민의식, 미래사회 인류의 삶을 위한 정치적 책임 의식에의 함양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주요 과제로는 아래와 같은 정책적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문지영·양채원, 2022). 첫째, 초·중·고 학교급별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등 교육과정개발 지원, 둘째, 지속가능발전 교육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연수 등 교육가 역량 강화, 셋째, 지속가능발전 교육·세계시민교육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및 개발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활동 추진, 넷째,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학습 과정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모니터링 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및 공공부문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그것이다.

(2) 국내 법령 현황

1) 청소년 정치참여와 헌법

국내의 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은 헌법의 규정과 원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헌법이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음선필, 2021). 청소년은 인간이자 국민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며, 당연히 인격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누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헌법소원사건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 역시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기본권의 주체이면서도 신체적·인격적 발달시기에 따른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청소년의 양면적인 특성에 맞는 법과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보호받을 권리와 참여할 권리의 양 측면이 모두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음선필, 2021).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양자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보호를 강조하다보면 참여에 불필요한 개입을 야기하여 참여할 권리를 억제할 수 있고, 반대로 참여를 촉진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보호의 실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근거한 청소년 정책의 구현을 비롯하여 관련 제도와 시설의 마련이 필수적이다(음선필, 2021). 여기에서 청소년 정책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을 헌법 제34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접적인 근거로써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에 대한 제34조 제4항을 비롯하여,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제34조 제2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제34조 제3항), 신체장애자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제34조 제5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 및 의무교육(제31조 제2항) 등이 언급된다.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청소년 정치참여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 기본이념에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장기적·종합적 청소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청소년의 참여보장,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민주·복지·통일 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이 중시됨을 언급되고 있다. 관련하여 이 법에서는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등의 각 정의도 내리고 있다. 이 중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하고,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하며,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 보호,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단체에 대한 정의를 동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제4조 제1항에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이 우선 적용하여 해석됨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다른 법률에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순위를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한 까닭은 서로 유효한 법률 간에 상이한 규정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은 동조 제2항에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에 다시 확인되며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입법지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한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조에는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고(제1항),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제2항)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제3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내용은 제5조의 2에서 다시 강조되는데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2항)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5조의 2 제3항)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나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 |
|--|
|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
|--|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하며(제8조 제4항), 청소년기본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제8조의 2 제1항). 이와 함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8조의 2 제3항)

3) 청소년 정치참여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기본법 제47조를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제1항),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2항)고 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것이 바로 청소년 활동진흥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에서는 제7조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을 두는 한편, 각각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다. 이때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은 ‘청소년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청소년 활동에 청소년의 정치참여 진흥 활동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한 부분이 없기에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 참여가 문언 그대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활동 등의 제반 범위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부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연계된 청소년 활동으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제7조 2항 9호에 따라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업은 활동진흥원과 연계 협력할 수 있고(제7조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7조 제4항).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교류활동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시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형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남·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①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충청남도 조례

가. 충청남도 청소년 의회 관련 조례

충청남도 청소년 의회 관련 조례에는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산시 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가 있다. 각각 청소년 의회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특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청소년 기본법과의 연계성

아산시와 보령시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기본법과의 법규범적 연계성을

언급함에 따라 청소년 의회 관련 프로그램의 법·제도적 지위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여타의 청소년 관련 정치 참여 프로그램과도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아동 및 청소년의 범위 설정

정의 규정에서 청소년 의회 관련 조례에서 아동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만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범위를 만 18세까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만19세까지로 볼 것인지도 각 조례마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대상에서 학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성별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장려할만 하다.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가능한 더 높은 연령에 더 많은, 그리고 균형있는 청소년의 범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모집과 선출의 방안

청소년 의회에 대해서는 모집이나 선출의 두 가지 양상을 찾아 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혼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진다. 특히 모집을 통한 청소년 정치참여로서의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을 외부에 위탁하고, 추후 선출을 통하여 실제의 청소년 관련 사안을 다루어보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업무의 위탁 및 충청남도 지역 내 청소년 진흥기관 활성화

홍성군, 아산시, 공주시 조례의 경우, 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비롯하여 지역 내 청소년 진흥 기관에서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을 비롯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다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나. 충청남도 민주시민 관련 조례

	홍성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령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산시 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 지원 조례
제1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에 따라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 에 따라 아산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에 따라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기본법 에 따라 보령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청소년들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 및 토론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만 19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법 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2.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어린이·청소년들이 보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p>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p> <p>3. “소수자”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빈곤,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들이 천안시의회에서 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를 말한다.</p> <p>3. “어린이·청소년의원”이란,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원으로서 선정된 학생들을 말한다.</p>	<p>2.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어린이·청소년 중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선발된 대표들로 구성된, 아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p>	<p>이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p> <p>3. “소수자”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빈곤,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p>	<p>2. “의회체험활동”이란 서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를 장소로 하여 이뤄지는 각종 체험을 말한다.</p>
제3조	<p>제3조 (기능) 청소년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p> <p>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 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p> <p>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p>	<p>제3조 (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활동</p> <p>2. 본회의 회의 진행 및 입법 제안 등 의정 체험 활동</p> <p>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p>	<p>제3조 (운영계획 등)</p> <p>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아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관련된 사항</p> <p>2.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p> <p>3.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p>	<p>제3조(기능) 청소년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p> <p>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 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p> <p>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p>	<p>제3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시의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p> <p>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의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p> <p>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p>	<p>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지원대상은 제2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서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p>

제4조	제4조 (의원정수)청소년의회 의원(이하“의원”으로 한다)의 수는 30명 이내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기간) 의회 운영은 연 2회 개최하되,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한다.	제4조(의원정수 및 구성) ① 의회 의원 수는 60명 내외로 한다. ② 의회의 구성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연령대의 비율이 동등하도록 하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으로 한다.(개정 2022.8.16.)	제4조(의원정수) 청소년의회 의원(이하“의원”으로 한다)의 수는 30명 이내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정수 및 구성) ① 의회 의원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② 의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연령대의 비율로 균형 있게 구성하되, 초등학생의 경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5~6학년으로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서산시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모집대상, 신청 방법 및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선출방법)① 의원은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또는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청소년 가운데 소수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1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5조(모집 및 공고) 의회 의원 수는 25명 이내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모집방법) ① 의회의 의원은 공개 모집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에 응한 어린이·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적정인원을 선정한다. 단, 장애, 다문화 등 특수 계층의 경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추천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선출방법) ① 의원은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또는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청소년 가운데 소수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1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5조(모집방법) ① 의회의 의원은 공개 모집 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에 응한 어린이·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적정인원을 선정한다. 다만, 장애, 다문화 등 특수 계층의 경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천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식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준비 및 운영기간 중 의정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p>제6조(의원임기·사퇴)</p> <p>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개원과 동시에 시작한다.</p> <p>② 의원은 학업, 건강, 주소 이전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p> <p>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사퇴사유가 있음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가 불성실한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④ 임기 중 의원 3분의 1이상이 결원되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의회 의장단 구성)</p> <p>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p> <p>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p> <p>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p> <p>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p> <p>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기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p>제6조(의원 임기·사퇴)</p> <p>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개원과 동시에 시작한다.</p> <p>② 의원은 학업, 건강, 주소 이전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p> <p>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사퇴사유가 있음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가 불성실한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④ 임기 중 의원 3분의 1이상이 결원되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임기 및 사퇴)</p> <p>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제6조(협력체계)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 체험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p>
-----	---	---	---	--	--	---

<p>제7조</p>	<p>제7조 (의장단구성) 청소년의회의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 7 조 (상 임 위 원 회) ① 의회는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4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10명 이내로 배정하되 각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단,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된다. 그리고 2순위 득표자가 간사로 선정된다. 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이사, 전학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의장단 구성) 청소년의회의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남·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	---	--	--	---	--	--

<p>제8조</p>	<p>제8조(의장의 직무)</p> <p>①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p> <p>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을 대행한다.</p>	<p>제8조(회의)</p> <p>① 회의는 정기회의로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초등, 중등별로 나누어 각각 개최한다.</p> <p>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회의 장소는 천안시 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안시의회 회의장 등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p>	<p>제8조(의장단 구성)</p> <p>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남·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p> <p>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p> <p>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p>	<p>제8조(의장의 직무)</p> <p>①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p> <p>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을 대행한다.</p>	<p>제 8 조 (상 임 위 원 회)</p> <p>① 회의는 교육문화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아동 권리위원회 등의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p> <p>② 상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의원을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p> <p>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p> <p>④ 상임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선출한다.</p> <p>⑤ 간사는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p>	
------------	--	--	--	--	---	--

<p>제9조</p>	<p>제9조(상임위원회)</p> <p>① 청소년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 인권·안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p> <p>② 상임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은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p> <p>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p> <p>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p> <p>⑤ 회의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9조(임기)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위촉장을 받는 즉시 시작되고,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p>	<p>제 9 조 (상 임 위 원 회)</p> <p>① 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p> <p>② 상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의원을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연령을 고려하며, 각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의원은 하나의 과제별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p> <p>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p> <p>④ 상임위원회는 초·중·고 연령대별 간사를 각 1명씩 두며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간사 중 1명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상임위원회별로 서기를 1명씩 두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p>	<p>제 9 조 (상 임 위 원 회)</p> <p>① 청소년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 인권·안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p> <p>② 상임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은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p> <p>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p> <p>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p> <p>⑤ 회의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9조(회의)</p> <p>① 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한다.</p> <p>②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p> <p>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p>	
------------	--	---	--	---	--	--

제10조	<p>제10조(특별위원회) 청소년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10조(지원) 의장은 의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촉장 수여 및 배지 등 지급 2. 의회 운영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0조(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아산시 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며 아산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p>제 10 조(특별위원회) 청소년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10조(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령 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	---	--	--	---	---	--

제11조	<p>제11조(회의)</p> <p>① 청소년의회의 정기 회의는 연 2회 공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p> <p>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p>	제11조(포상) 의장은 의회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시장은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2조	제12조(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견참고) 시장은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참고한다.	제12조(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2조(지원) 시장은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배지 등 지급
2.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의원증, 배지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활동 비용
3.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	제13조(업무의 위탁) 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견반영) 시장은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2.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선진지역 방문 및 견학 4.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장이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2.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선진지역 방문 및 견학 4.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장이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p>제15조 (의견청취 및 반영)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5조(의견청취 및 반영)</p> <p>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제16조	<p>제16조(표창)</p> <p>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p>			<p>제16조(표창)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p>		
제17조	<p>제17조(운영세칙)</p> <p>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p>			<p>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p>		

○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자질 소양 함양

충청남도 민주시민 관련 조례에는 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비롯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조례는 충청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조례 제1조)으로 하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충청남도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흥조례 제2조 제2호).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제고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에서 학교 시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을 포함한 학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은 각각 교육감과 도지사가 담당하게 되어 민주시민교육이 이원화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과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 시민교육을 위하여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명시된 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12조). 또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때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다(제13조). 나아가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제14조 제1항),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이수증 발급과 청소년 정치참여 프로그램의 연계

학교민주시민교육에서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 이수증 발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다른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원화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다.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진흥조례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충청남도 청소년 관련 조례에는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진흥조례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청소년 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근거를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진흥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타 광역 조례와 비교·대조하여 봄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과 관련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분	충청남도 조례	타 광역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활동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이 조례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 및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8.>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실시와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세종)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 5. "청소년보호"란 법 제3조제5호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2021. 4. 15.>

	<p>4. "공공시설"이란 지하철역사,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p> <p>5. "법인 또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p> <p>6.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7. "협회"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충청남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말한다.</p>	
<p>도지사의 책무</p>	<p>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p>	
<p>청소년활동 시행 계획 수립</p>	<p>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 진흥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 4.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5.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6. 청소년 국제교류 등 활동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p>(세종)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개정, 2021. 4. 15.></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4.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6.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 관리 7.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7.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조성활동,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p> <p>8.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p> <p>9.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 활동지원</p> <p>10.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p>	<p>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시행계획에 맞는 사업을 수행한다.</p> <p>③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구, 교육,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p> <p>④ 도지사는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세종)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5.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6.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p>(서울)</p> <p>제5조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p> <p>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4.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5.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p>청소년의 참여</p>	<p>① 도지사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예산 수립 과정 등에 참여 또는 의견 제안 등 2.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심의 <p>③ 도지사는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주)</p> <p>제7조(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도지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구 등이 주관하는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청소년 문화 교류활동의 지원</p>	<p>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문화·교류활동의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문화활동 3. 청소년동아리활동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p>(서울)</p> <p>제6조(청소년활동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사업 2.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3.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사업 4.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5.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6.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청소년 활동 시설의 확보</p>	<p>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세종)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읍면동 지역특성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청소년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청소년 지도자 권익보장</p>	<p>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과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세종)제9조(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4. 15.></p>
<p>청소년거리 조성</p>	<p>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 및 조성 공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및 공간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청소년의 날</p>	<p>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민간단체 등의 지원</p>	<p>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협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세종)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p> <p>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4.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신설, 2021. 4. 15.> 2. 국내외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신설, 2021. 4. 15.> 3.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신설, 2021. 4. 15.> 4.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국제교류 <신설, 2021. 4. 15.>

		<p>5. 그 밖에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 4. 15.></p> <p>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개정, 2022. 11. 14.> <p>(경기도)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사업 2.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3.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사업 4.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5.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6.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협력체계 구축</p>	<p>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내 청소년 활동시설 및 그 밖의 청소년 단체들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군, 각급 학교 및 법인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세종)제5조(운영 및 위탁)</p> <p>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p> <p>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p>

		<p>③ 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세종)제12조(포상)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운영지침」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경기도)</p> <p>제6조(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지원)</p> <p>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유익성 확보를 위해 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 활동 인증제를 지원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진흥) 도지사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제청소년성취 포상제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의2(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p> <p>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 IT 기술 등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 지원 체계 마련 2.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서울)</p> <p>제8조의2(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p> <p>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래혁신기술(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 기술을 말한다)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 2.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경기도)</p> <p>제10조의2(보조금) ①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② 도지사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

2. 청소년 정치참여와 충청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 제고

(1)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국제적 의제 리드의 중요성

먼저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중심으로 그 근거를 찾아보고,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시로 하여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국내 현안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기후변화 및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지구적 협력체계를 필요로 하는 의제 설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청소년활동진흥법과 관련하여 문화, 교류, 수련을 통한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을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매개로 시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 정치참여의 확장성 강화: 지역에서 세계로, 일상에서 의회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헌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충청남도 청소년 의회 관련 조례, 충청남도 민주시민 관련 조례,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진흥조례 등을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프로그램을 민간 또는 기관 등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 일관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을 별도의 정의로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는 것보다는 현행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령, 청소년 정치참여를 기존의 청소년 활동의 측면에서 보장할 수 있으며 청소년 문화, 교류, 수련 활동에 관련 프로그램을 부가하여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이나 UN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로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청소년 활동 으로서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기관 등과 함께 충청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도하여 실시한다면 지역과 세계, 일상과 의회를 매개하는 실제적인 정치참여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정치참여 프로그램은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기본), 청소년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확장), 청소년 의회 정치참여 프로그램(실행)으로 상호유기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윤나, “인권관점에 기반한 청소년기본법의 한계와 재조명”, 법과인권교육연구, 제5권 1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2.
- 김영한, 서정아, 권일남, 미래지향적 청소년 관련 법 정비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 김민,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필요와 방향"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7.
- 문지영, 양채원,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연구동향, 아시아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2.
- 이윤주, 정상우, 청소년 정치참여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소년의회 고찰: 청소년의회 조례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24권 4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 음선필, 청소년 관련법의 체계적합성에 대한 평가, 입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한국입법학회, 2021.

참고문헌

- 김남호 (2022). 청소년의 정치성향이 정치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호, 김용민, 손영식 (2021). 대전광역시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모상현 (2019).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명철 (2007). 선거 참여를 위한 교실에서의 유권자 교육. 정치정보연구. 1(1). 217-253.
- 이양훈 (2014).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호 (2007). 청소년기의 특징과 비행 간의 심리사회적 통찰. 지역사회. 38-42.
- 이창호(2017).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보고서, 1-8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유럽의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자료집.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현황 (2022년 9월 기준)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 (2022년 9월 기준)
- Almond, Gabriel, and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earson, Brown(2003). Active participation in citizenship in Gearson. L.(ed). Learning to teach citizenship in the secondary school. New York: Routledge Falmer; 유명철(2007) 재인용.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부록

ID

지역		학교급	설문지연번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청소년용)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와 정치의식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을 통해 얻어진 소중한 자료들은 향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계법 제13조에 따라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자료로 활용됩니다. 설문내용에는 정답이 없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

위 내용을 읽었으며, 본 설문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이라는 것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구에 대한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설문 참여로 제공되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8월



문의 041)562-9003

문항을 읽고 제시되는 보기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번호에 “V표”해주세요.

내 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이다	조금 있다	매우 있다
나는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 현안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 정치적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

내 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이다	조금 있다	매우 있다
1) 나는 정치행정분야(대통령, 정부, 국회 정당활동 등)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외교 및 통일안보 분야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정치 이슈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정치사안 및 정책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선거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과학기술분야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환경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생물·동물분야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교육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청소년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수준

기관	낮다	← 신뢰수준 →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입법기관(국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사법기관(법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중앙행정기관(정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정치적 이슈(문제)와 관련한 대화

내 용	전혀 아 않 는 다	별 로 아 않 는 다	보 통 이 다	가 끔 한 다	자 주 한 다
1) 나는 부모님들과 정치적 이슈에 대해 대화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또래친구들과 정치적 이슈에 대해 대화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정치적 이슈에 대해 대화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온라인 유저*들과 정치적 이슈에 대해 대화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온라인 유저: SNS, 온라인 지인, 온라인 상 익명의 대상 등

4.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내 용	전 혀 미 치 지 아 않 는 다	별 로 미 치 지 아 않 는 다	보 통 이 다	가 끔 미 친 다	매 우 미 친 다
1) 친구들은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선생님은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4) 선배 및 후배는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6) 온라인 유저는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7) 언론매체는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8) 정치(선거)관련 교과 내용은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9) 정치(선거)관련 도서는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5. 정치적 의견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아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아 않 다	보 통 이 다	조 금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공익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정치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역량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민주시민의식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중에도 수용할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위나 집회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선거권과 관련된 권리

내 용	잘 알고 있 다	알고 있 다	보통 이다	거의 모 르 나	전혀 모 르 나
1) 선거권을 갖게 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선거권을 갖게 될 경우 지켜야 하는 의무(법 준수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최근 한달간 참여한 소셜미디어 활동

내 용	전혀 하 지 않 았 다	별로 하 지 않 았 다	보통 이다	가 끔 했 다	자 주 했 다
1) 나는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정치문제나 이슈에 견해나 의견달기(글쓰기, 댓글달기)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기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향

정치와 선거참여에 대한 관심					내 용	정치와 선거참여 의향				
전혀 없 다	별로 없 다	보통 이 다	조금 있 다	매우 있 다		전혀 없 다	별로 없 다	보통 이 다	조금 있 다	매우 있 다
①	②	③	④	⑤	1) 지방선거(광역시·도/시,군,구 단체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국회의원 선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교육감 선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대통령 선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대표와 학급대표 선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선거	①	②	③	④	⑤

10. 정치활동 참여경험

내 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이다	조금 있다	매우 있다
1) 나는 모의선거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청소년시설의 참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정치, 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청소년 정당 단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인권운동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청소년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종교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청소년 단체(보이·걸 스카우트, YMCA)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시설의 참여활동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활동

* 정책활동 : 지자체 정책 제안, 모니터링 활동

11. 정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내 용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에서 모의선거 활동을 활성화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을 활성화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을 활성화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시설에서 모의선거 활동을 활성화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시설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시설에서 리더십함양교육을 활성화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청소년시설에서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을 활성화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정치효능감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정치는 너무 복잡해서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참견하지 않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정치란 원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므로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정치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투표를 하든 안하든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정치는 날씨와 같아서 나 같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치인들은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 되든지 정치활동은 다 똑같다.	①	②	③	④	⑤
9)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유권자의 표에만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정치인들은 선거 당선 후에는 시민들의 바람을 빨리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12) 투표는 내가 정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에게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민주시민교육은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민주시민교육은 체험 및 활동형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정치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서 정치 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4)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①	②	③	④	⑤

15. 배경변인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① 16세 ② 17세 ③ 18세 ④ 19세 ⑤ 20세
소속	① 고등학교 재학 중 ② 학교에 다니지 않음.
지역	① 천안시 ② 공주시 ③ 보령시 ④ 아산시 ⑤ 서산시 ⑥ 논산시 ⑦ 계룡시 ⑧ 당진시 ⑨ 금산군 ⑩ 부여군 ⑪ 서천군 ⑫ 청양군 ⑬ 홍성군 ⑭ 예산군 ⑮ 태안군

구분	사망	동거	비동거
1) 아버지	①	①	②
2) 어머니	①	①	②

부모님의 학력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관적 가정형편(경제적 수준)				
매우 어렵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학업성적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 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정치적 성향											
구분	보수적임	←				중간	→				진보적임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나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보수주의 : '전통적인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안정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

* 진보주의 : '변화와 개혁을 통해 사회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